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문학석사 학위논문

- '슈투름 운트 드랑' 문학에서의 영아살해
-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와 바그너의 『영아살해범』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문학전공 박 채 은

'슈투름 운트 드랑' 문학에서의 영아살해

-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와 바그너의 『영아살해범』

지도교수 이 경 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문학전공 박 채 은

박채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임홍배	(인)
부위	원장	이경진	(인)
위	워	조성희	(이)

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시대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영아살해가 문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방식에 대해 조명한다.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 Urfaust』와 바그너의 『영아살해범 Die Kindermörderin』이라는 대표적인두 작품을 중심으로, '슈투름 운트 드랑'이라는 격정적인 사조 속에서 영아살해를 둘러싼 논의의 흐름을 시대적 고찰 속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영아살해 모티프는 형법제도 및 인구정책 등의 사회제도와 결혼관·여성관 등의 다양한 가치가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문학의 역사에서 꾸준히 쓰여 왔으며, 작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수용되고 변용되었다. 그런데 영아살해라는 특수한 범죄가 괄목할만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이를 작품으로 다루었던 시기가 있는데, 바로 18세기 후반이다. 이 시기에 객관적 범죄성립요건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심리적 상황과 동기 등의 주관적 범죄성립요건도 함께고려하는 방향의 사법개혁이 일어나면서,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한다. 개인의 자유와 감정의 해방이라는 슈투름 운트 드랑의 정신에 따라 시인들은 당시의 이러한 움직임을 영아살해라는 소재를 통해 문학으로 형상화하였던 것이다.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는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에서 영아살해 모티프를 선취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미혼모 및 영아살해범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법학자이자 정치가로서 교회참회가 폐지되도록 공헌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영아살해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체제에 찬성하였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영아살해범에 대한 괴테의 이중적 태도는 "나-또한" 전설로 불리며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본고에서는 이 쟁점이 『원형 파우스트』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선 작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레트헨 비극'에서 영아살해를 조장하는 사회적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레트헨을 동정의 대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그가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레트 헨에 대한 파우스트의 사랑이 문제적이라는 것, 그레트헨이 신실하고 모성적인 인물임에도 그의 구원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 그레트헨이 세

가지 심판에 순종하는 모습이 영아살해범에 대한 사형선고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원형 파우스트』가 근본적으로 남성 서사이기에 가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은 영아살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 명하는 경향극으로서 그 불행의 끔찍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는데,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바로 그 노골적인 묘사로 인해 약 200년간 개작논쟁에 휩싸 이게 된다. 그러나 영아살해 논쟁의 결정체인 만하임 논문현상공모가 이 작 품의 영향 하에 추진되는 등 『영아살해범』은 영아살해의 비극적 현실을 관객들이 직시하도록 해주었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바 그너는 영아살해가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참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등장인물들을 통해 군인들의 여성혐오, 가부장적 시민도덕과 모성애 담론의 폐해, 사회제도의 불합리성 및 법과 사 회의 비인간성이라는 사회적 인과관계를 작품에 명시하였다. 또한 작가는 영아살해와 관련된 여러 담론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메시지에 더욱 힘을 실 었다. 바그너는 시민비극의 형식을 빌리면서도 그 전형적인 틀을 전복시켜 시민도덕의 폐해를 가시화하고, 멜랑콜리 담론과 유혹자 남성에 대한 논의 를 통해 영아살해를 영아살해범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사회를 비판하 였으며, 관객들에게 바라는 모습을 마르탄 부인이라는 인물로 구혂하여 연 출하고 있다.

주요어: 영아살해, 슈투름 운트 드랑, 사법개혁, 괴테, 원형 파우스트, 심판, 바그너, 영아살해범, 시민도덕, 멜랑콜리

학 번: 2018-28324

목 차

I	. 서론	1
	1. 시대적 문제로서의 영아살해	• 3
	2. 슈투름 운트 드랑과 영아살해	. 9
	3. 연구사 및 연구방향	12
П	.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	21
	1. 괴테와 영아살해	25
	1)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괴테의 입장 1:	
	형벌 완화 및 교회참회 폐지	28
	2)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괴테의 입장 2:	
	사형 존치	32
	2.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비판	•36
	1) 비극의 원인	36
	2) 동정의 대상으로서의 그레트헨	41
	3. 남성 중심 서사의 한계	46
	1) 사랑 개념의 문제	47
	2) 성모 마리아적인 그레트헨	57
	3) 심판 모티프의 의미	63
т	ા ા યો ગામેલો દિલેતો હોસોમો	71
ш	. H. L. 바그너의 『영아살해범』	
	1. 수용사	
	2. 비극의 원인	
	1) 군인의 명예와 여성혐오	
	2) 시민도덕과 가부장제	
	3) 정숙한 안주인의 이상	
	4) 법과 사회의 비인간성	96

3. 영아살해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100
1) 시민비극	• 101
2) 멜랑콜리	• 103
3) 남성의 책임	• 114
4) 이상적인 독자상: 마르탄 부인	• 119
Ⅳ. 결론 ···································	123
참고문헌	125
Zusammenfassung	131

I. 서론

영아살해 모티프는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Medeia』(BC 431)부터 크리스타 볼프 Christa Wolf의 『메데아, 목소리들 Medea. Stimmen』(1996), 엘프리데 옐리네크 Elfriede Jelinek의 『욕망 Lust』(2004)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역사에서 꾸준히 쓰여 왔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영아살해 모티프는 작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수용되었고 변용되었다. 영아살해 문제는 그 시대의 형법부터 사회제도, 인구 정책, 결혼관, 여성관 등 다양한 가치가 교차되는 곳이다. 따라서 문학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살펴보는 작업은 그 당시 사회상과 함께 그 사회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영아살해는 기본적으로 미혼 또는 기혼 여성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죽이는 경우를 지칭한다.1) 살해범이 친모인 경우에만 영아살해죄 Kindsmord/infanticidum가 성립되므로 영아살해범은 모두 여성이다.2)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살해한 경우는 일반살해-존속살해죄 Verwandtenmord/parricidium에 해당하나 어머니가 살해한 경우에는 특수살

¹⁾ 한국과 독일의 형법에서 영아살해는 공통적으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산모가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치욕은폐 등의 감경요소가 적용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수많은 논의 끝에 21세기에 접어들며 영아살해 감경조항 (§217)을 폐지하였다.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251% EC%A1%B0) (최종검색일: 2022. 08. 01); 독일 형법 79조(출산 시의 영아살해): 분만 중이거나 분만과정의 영향 하에 있는 산모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정역형을 선고받는다. \$79 StGB Tötung eines Kindes bei der Geburt: Eine Mutter, die das Kind während der Geburt oder solange sie noch unter der Einwirkung des Geburtsvorgangs steht, tötet, ist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bestrafen. (https://www.jusline.at/gesetz/stgb/paragraf/79) (최종검색일: 2022. 08. 01)

²⁾ 여성형 명사를 만드는 후철 '-in'의 의미를 살려 'Kindermörderin'을 '영아살해 모'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영아살해라는 개념 안에 이미 그 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친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영아살해범'으로 번역한다.

해-영아살해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산모가 불명예스러운 출산에 대한 공포와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로 말미암아 책임능력을 잃는다는 감경요소 Privilegierungsmerkmal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특수한 범죄가 유독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작품으로 다루었던 시기가 있는데, 바로 18세기 후반이다. 이 시기에는 영아살해만을 다루는 칙령이 여러 번 내려졌으며, 신문 등에서 영아살해 예방법이 공모되었을 뿐만아니라, 야콥 렌츠 Jakob Michael Reinhold Lenz의 『체르빈 또는 신철학 Zerbin oder die neuere Philosophie』(1776), 말러 뮐러 Maler Müller의『호두 알맹이 Das Nußkernen』(1776), 안톤 슈프릭만 Anton Matthias Sprickmann의 『이다 Ida』(1777), 고트프리트 뷔르거 Gottfried August Bürger의 『타우벤하인의 목사의 딸 Des Pfarrers Tochter von Taubenhain』(1781), 마리안네 에르만 Marianne Ehrmann의 『불운한 한네 Die unglückliche Hanne』(1790) 등 영아살해를 다루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계몽주의의 영향력이 우세한 시대이며 동시에 슈투름 운트 드랑 Sturm

계몽주의의 영향력이 우세한 시대이며 동시에 슈투름 운트 드랑 Sturm und Drang³⁾의 시대이기도 했던 18세기 후반에 영아살해는 문학에서 왜 그 토록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일까? 본 논문은 이 시기에 대한 고찰 및 문학 작품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텍스트는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 Urfaust』(1775), H. L. 바그너 Heinrich Leopold Wagner의 『영아살해범 Die Kindermörderin』(1776)이다. 작품에 대한 개별 분석에 앞서 먼저 영아살해가 논쟁이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한다.

^{3) &#}x27;질풍노도' 혹은 '폭풍우와 돌진'(이 번역어에 대해서는 안삼환: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세창출판사 2016, 179쪽을 참고)이라고 번역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역어 가 통일되지 않은 독일어 'Sturm und Drang'을 본고에서는 발음 그대로 '슈투름 운트 드랑'으로 음역하여 사용한다.

1. 시대적 문제로서의 영아살해

앞서 언급했듯 18세기 후반은 계몽주의(1720-1785)와 슈투름 운트 드랑 (1765-1785)의 정신의 영향 하에, 그리고 프랑스 혁명(1789-1799)의 전조 속에 있다. 이에 따라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국가적차원에서 형법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 시기의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대왕 Friedrich II(1712-1786, 재위 1740-1786)의 통치 하에 있었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 계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자 [d]em Prinzip der Aufklärung gemäß, daß es besser sei, Verbrechen zu verhüten als zu bestrafen"4) 했던 프리드리히 대왕은 형벌 완화에 적극적이었다. 그 예로 그는 즉위한 지 3일째부터 형법 개혁에 착수하여 고문을 일부 폐지하였고, 같은 해 8월 7일에는 자루형을 폐지하였다. 나아가 그는 사형 빈도를 줄였고 재위기간 동안 절단형을 집행한 적이 없었으며 추방형은 감옥형으로 대체하였다.5)

그러나 이와 같은 프리드리히 2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간 이어 져온 전쟁(제2차 백년전쟁, 1689-1815, 그 중에서도 7년전쟁, 1756-1763)의 여파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 중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절도와 영아살해였다.6) 그는 특히 영아살해나 낙태의 주요동기가 형벌의 가혹함이

⁴⁾ J. M.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Ein Beitrag zur Kultur- und Literaturgeschichte des 18. Jahrhunderts. Rotterdam 1927, S. 71.

⁵⁾ Vgl. ebd., S. 66.

^{6) &}quot;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아살해는 프로이센에서 18세기에 기록된 모든 살인죄 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형리의 칼날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절반이 영아살해로 처 벌받은 사람이었다. In Preußen, aber diese Relationen gelten auch in anderen Landesteilen, machten Kindstötungen im 18. Jahrhunderts rund die Hälfte aller registrierten Tötungsdelikte aus; bei fast jeder zweiten Hinrichtung war es eine Kindsmörderin, die das Schwert des Henkers traf." Kerstin Michalik: Vom ≫ zur Kindstötung: Hintergründe der Entwicklung Sondertatbestandes der Kindstötung (§217) im 18. und 19. Jahrhundert. In: Feministische Studien. H. 1(1994), S. 47. 프리드리히 대왕은 1777년에 볼테르 Voltaire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처형된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영아살해범이었다"고 적 었으며 매년 14-15건의 영아살해가 발생했다고 특기했는데, 이 숫자는 그가 이미 3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한 덕분에 서유럽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라고 여겼다. 따라서 1746년 7월 20일에 간통과 혼외임신에 대한 대표적인 형벌인 교회참회 Kirchenbuße를 폐지하였고, 1756년 8월 17일에 영아살해예방에 대한 칙령을 내렸으며, 1765년 2월 8일에는 혼외 신생아 살해와 임신 및 출산 사실의 은폐에 반하는 상세한 칙령을 내렸다.7) 이 칙령은 "그런 것들[임신 은폐 및 영아살해]이 강요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법의 책임이아닌가? Ist es nicht die Schuld der Gesetze, sie in eine derart zwanghafte Situation zu bringen?"라는 문제 제기로 시작하여, '간음 einfache Unzucht'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나 고용인의 임신사실에 대한 고용주의 신고의무 등의 갈등상황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8) 또한 1794년에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을 익사형에서 참수형으로 완화하였다.9)

위와 같은 변화는 문학으로 형상화될 만큼 널리 알려진 세 가지 실제 사건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리아 플린트 Katharina Maria Flint 사건이 그시작이었다. 1765년 슈트랄준트에 사는 구두장이의 정숙한 딸이었던 마리아는 기병대위 요한 뒤케 Johann Dycke의 끈질긴 유혹을 거절하다가 마침내그가 결혼을 약속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뒤케가 소령 이하의 젊은 군인들에게는 독신을 강요했던 당시의 법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동안마리아는 그 근처 비스마르에서 슬리퍼 제작일을 하고 있던 오빠네 집에 머물렀는데, 그동안 동생의 (축복받지 못하는) 사생아 출산으로 자신의 명예가실추될 것을 걱정하던 오빠에게서 끊임없는 모욕을 받아야 했다. 결국 사생아 출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한 마리아는 출산 직후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였고, 아이를 따라 죽기를 결심한 그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당국에 스스로 알렸다. 그러나 마리아는 뒤케의 구출 작전10)으로 자유의 몸이

었다. Cf. Oscar Helmuth Werner: The Unmarried Mother in German Litera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1770-1800. New York 1917, pp. 8-9.

⁷⁾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 71.

⁸⁾ Vgl. Heinz-Dieter Weber: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 In: Der Deutschunterricht. H. 28(1976), S. 83.

⁹⁾ Rameckers: ebd., S. 100.

¹⁰⁾ 편집자인 요헨 골츠 Jochen Golz에 의하면 이는 사실 사랑으로 인한 구원행위라기보다는 군사적 기습에 가까웠다. Vgl. Johann Kaspar Steube: Von Amsterdam nach Temiswar: Wanderschaften und Schicksale[1791]. Hrsg. von Jochen Golz, Berlin 1984, S. 240.

되어 드레스덴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다시 슈트랄준트로 돌아가 12월 2일 재판관 앞에 섰고 10일에 참수형을 받았다. 그 사이 마리아의 지명수배장이 북독일 지역의 모든 신문에실렸었는데, 이것이 당시 라이프치히에서 수학하던 괴테에게 그레트헨 소재를 제공했을 것으로 여겨진다.11)

그러나 괴테의 그레트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은 1772년의 주잔나 브란트 Susanna Margaretha Brandt 사건이다. 주잔나가 '프랑크푸르트의 그레트헨 das frankfurter Gretchen'으로 불리게 된 것은 괴 테가 그 재판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고아로 자란 주잔 나는 1771년 8월 2일 자신이 하녀로 일하고 있던 여인숙의 마구간에서 몰래 아이를 낳고 그 시체를 짚으로 덮어 놓은 채 사라졌다. 다음 날 의사들이 조사한 결과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목이 졸린 멍 자국과 흉곽의 찔 린 상처, 두개골의 파열흔적으로 보아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라졌던 주잔나는 강을 건너 도망치려고 했지만 금전적 문제로 다음날 다 시 도시로 돌아오려다 체포되었다. 8월 4일에 열린 재판에서 주잔나는 출산 사실을 시인했고, 크리스마스 전에 네덜란드 출신의 여행객과 성관계를 가 졌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살해사실은 부정했는데, 출산 직전까지도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당황한 채로 돌바닥에 아이를 떨어뜨리듯 낳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주잔나를 심문하던 시청 서기가 그에게 아이의 시체를 보여 주자, 그는 곧바로 평정을 잃고 "주 예수 Herr Jusus"를 여러 번 외치다 종 내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에게 배정된 변호사 인 샤프 박사 Dr. Marcus Christof Schaaf는 사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았고, 살해 증거를 흔들어 살해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 다. 또한 고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나머지 주잔나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며, 조산으로 인해 이미 허약하게 태어난 아이가 출산 시 바닥에 떨어 지며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 시도는 기각되었고, 주잔나는 1772년 1월 14일 24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았다.12)

¹¹⁾ Vgl. Steube: Von Amsterdam nach Temiswar, S. 32-35; 239f.

¹²⁾ Vgl. Rebekka Habermas, Janja Hommen: Das Frankfurter Gretchen: der Prozess gegen die Kindsmörderin Susanna Margaretha Brandt. München 1999, S, 7–50; Mona Dertinger: Mutter, Gattin, Mörderin - Eine Untersuchung zu Weiblichkeit und weiblicher Kriminalität in Recht und Literatur. Heidelberg 2018, S. 193–199.

마지막으로 H. L. 바그너의 작품 『영아살해범』의 모델인 마리아 라이폴 트 Maria Sophia Leypold¹³⁾는 슈트라스부르의 유서 깊은 독일 시민가정의 딸로 그의 아버지는 도축업자였다. 마리아는 1775년 11월 말 22세의 나이에 영아살해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었다. 그는 아직 스스로도 임신한지 몰랐던 7개월 차에 사산했다고 주장했으나¹⁴⁾ 참수형을 선고받아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1776년 1월 루이 16세에게 종신형으로 감형 받았고, 1788년 8월 14일에 석방되었다.¹⁵⁾ 18세기 말의 슈트라스부르는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카롤리나 법이 아닌 1556년 앙리 2세 Henri II의 칙령을 따르고 있었다. 앙리 2세의 칙령은 카롤리나 법과는 달리 영아살해보다는 임신은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1775년에 마리아에게 내려진 판결 만으로는 그가 실제로 영아살해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사산을 한 것인지 밝혀낼 수 없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후에 감형과 석방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임신은폐만으로도 사형을 선고하는 형법의 가혹함에 대한 저항이 실제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위 사건들의 진행과정, 특히 마지막 마리아 라이폴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 후반에는 형식적·객관적 범죄성립요건만을 중시하는 형법적 사고에서 주관적인 범죄성립요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의 사법개혁이 일어났다.17) 1762년에 장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가 『에밀 Emile』과 『사회계약론 Contrat Social』을 발표하여 범죄는 사회화의 문제라고 주장한 것과, 뒤이어 체사레 베카리아 Cesare Beccaria가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1764)에서 사형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면서 형법논쟁이 일어난 것이 그 시작이었다.18) 탁선미는 이 사법개혁의 핵심

¹³⁾ Johann Froitzheim: Goethe und Heinrich Leopold Wagner: ein Wort der Kritik an unsere Goethe-Forscher. Strassburg 1889, S. 46-53에서는 Marie Sophie Leypold라고 표기되며 모나 데르팅어 Mona Dertinger의 박사논문 『Mutter, Gattin, Mörderin - Eine Untersuchung zu Weiblichkeit und weiblicher Kriminalität in Recht und Literatur』(2018)에서는 Sophie Maria Leypold라 표기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라메커스의 저작에 따라 Maria Sophia Leypold로 적는다. (Vgl.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 143.)

¹⁴⁾ Vgl. Weber: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 S. 77.

¹⁵⁾ Vgl. Rameckers: ebd., S. 143f.

¹⁶⁾ Vgl. Dertinger: Mutter, Gattin, Mörderin S. 212-215; Vgl. Rameckers: ebd., S. 144.

¹⁷⁾ 박상기: 중세독일의 형사재판제도 - 카롤리나 형법전을 중심으로. 실린 곳: 법사학 연구 제14집(1993), 223쪽 참조.

이 "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행위를 수행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만 치중하는 형법체계를(Tatstrafrecht) 범죄자의 심리적 상황과 주관적 동기를 고려하는 형법체계로(Schuldstrafrecht) 바꾼 것"19)이라고 설명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형법적 사고가 객관주의만이 아니라 주관주의도 포괄하게 된 것이다.20) 이에 따라 영아살해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앞서 살펴본 프리드리히 대왕의 정신에 걸맞게 '영아살해 예방논쟁'이라 불린 이 논쟁은후기 계몽주의 운동의 "결정체 Kristallisationskern"21)라고 평가받는 만하임 논문현상공모 Mannheimer Preisfrage에서 그 정점에 달한다.

1780년 '인류의 친구 Menschenfreund'라는 별명이 붙은 한 익명의 저자가 다음의 질문에 가장 좋은 답변을 한 사람에게 100 두카텐을 상금으로 수여하겠다는 현상공모를 걸었다. 그 질문은 "음행을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영아살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Welches sind die besten ausführbaren Mittel, dem Kindermorde abzuhelfen, ohne die Unzucht zu begünstigen?"²²⁾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약 400여개의 답변이 모였다.²³⁾

당시의 문인들 역시 이 공모에 참여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스위스의 교육학자였던 요한 페스탈로치 Johann Heinrich Pestalozzi의 답변이다. 그는 모든 악은 문화적·사회적 관계의 결과라는 입장으로서 악(행)에 대해 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예방만이 존재한다며 그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즉, 악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¹⁸⁾ Vgl. Weber: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 S. 83.

¹⁹⁾ 탁선미: 독일근대문학에 나타난 영아살해 판타지 - 그 사회적 맥락과 젠더정치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40집(2008), 145쪽.

^{20) &}quot;객관주의는 범죄의 외부적 사실, 즉 행위와 결과라는 객관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형벌을 과하여야 한다는 행위중심의 사상임에 반하여, 주관주의는 행위자의 인격을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중심의 사상이다."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 2017, 64쪽.

²¹⁾ Esther Fischer-Homberger: Medizin vor Gericht. Zur Sozialgeschichte der Grichtsmedizin. Bern-Stuttgart-Wien 1983, S. 285. (Otto Ulbricht: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 München 1900, S. 217에서 재인용.)

²²⁾ Vgl. Pfeil, Johann Gottlob Bejamin u. Klipstein, Philipp Egel u. Kreuzfeld, Johann Gottlieb: Drei Preisschriften über die Frage: Welches sind die besten Mittel, dem Kindsmord abzuhelfen, ohne die Unzucht zu begünstigen?, Mannheim 1784.

²³⁾ Vgl. Ulbricht: ebd., S. 217.

따라 그는 영아살해의 범행동기를 총 13가지²⁴⁾로 분류하였는데, 영아살해범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불명예를 숨기고 아이의 존재를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페스탈로치에 의하면 이는 국가가 미혼여성에게 아이가 없기를 바라며 그것을 강요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미혼모의 불명예를 은폐하고 그가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지 않았을 때에 영아살해가 발생하므로, 미혼모를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 됨을 페스탈로치는 강조한다.²⁵⁾

그러나 결국 현상공모의 심사위원들이 뽑은 세 명 중 한 명인 요한 크로 이츠펠트 Johann Gottlieb Kreuzfeld 교수의 주장, 즉 "미혼모의 불명예 해소가 불러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파국적인 결과가 '치유되어야 할 악'보다'더 나쁘고', 차라리 한 명의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영아살해범'이 수많은 '창녀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보다 낫다 [...] daß die mit der Beseitigung der

^{24) &}quot;①여성을 유혹한 남성의 불성실과 기만 ②음행에 관한 엄한 법적 처벌 ③빈곤 ④귀 족의 성에서 일하고 있는 하녀라는 상황 ⑤도움을 받아야 할 부모와 후견인, 친척들 에 대한 두려움 ⑥ "위선적인 정직함" ⑦과거의 죄악이 불러온 내적·외적 결과들 ⑧ 출산 시의 외부적 상황 ⑨불명예에 대한 두려움 ⑩군인들의 독신제가 불러오는 파멸 적 영향 ⑩결혼을 약속했던 남성의 비행/행패 ⑫임신사실을 신고하라는 명령 ⑬음행 과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이 가져올 파멸적 결과. die Untreue und der Betrug verfü hrender Jünglinge; die Strafen der Unzucht; die Armut; die Umstände der dienenden SchloB- und Stadtmädchen; die Furcht vor unvernünftigen Eltern, Vormündern und Verwandten; "heuchlerischer Ehrbarkeitsschnitt"; die inneren und äußeren Folgen früherer Laster; die äußeren Umstände der Mädchen während der Geburtsstunde [...] die Furcht vor der Schande; den verderblichen Einfluß der zur Ehelosigkeit verurteilten Soldaten; den Unfug, der mit Eheversprechen getrieben wurde; die Forderung, daß das geschwängerte Mädchen seine Schwangerschaft anzeigen sollte; die verderbliche Wirkung, die die Strafen der Unzucht und des Kindesmords selbst haben können." J. H. Pestalozzi: Über Gesetzgebung und Kindermord. Wahrheiten und Träume, Nachforschungen und Bilder, nach der Ausgabe von 1783 neu hrsg. von K. Wilker, S. 81-120.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17-18에서 재인용.) 가독성을 위해 번호를 붙였으며, 8번까지는 유영희: 18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난 범죄 - 쉴러의 『잃어버린 명예 때문에 범행한 자』와 바그너의 『영아살해 모』를 중심 으로. 실린 곳: 헤세연구 제32집(2014), 111쪽 49번 각주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라메 커스는 페스탈로치가 위의 저서에는 8번까지만 싣고 나머지 9-13번은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나, 9-13번이 실린 페스탈로치의 저작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²⁵⁾ Vgl. Rameckers: ebd., S. 91-96.

Schande der außerehelichen Mutterschaft verbundenen katastrophalen Folgen für Staat und Gesellschaft »ärger« waren »als die Übel, welche geheilt werden soll[t]en«, und die lieber einige »unnatürliche Kindsmörderinnen« als viele »Huren« im Staat zu dulden bereit war"²⁶⁾는 주장이 고수되었다. 케르스틴 미할릭 Kerstin Michalik에 의하면 크로이츠펠트 교수의 주장으로 대변되는, 영아살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장은 19세기 초 독일 국가들의 입법기관이 친족법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택한 공리주의적·중상주의적 방향에 결정적이었다.²⁷⁾

2. 슈투름 운트 드랑과 영아살해

영아살해는 18세기 후반이라는 시대 중에서도 특히 슈투름 운트 드랑, 즉 1765-1785년 사이의 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 시기에 영아살해를 다루는 문학작품들이 대거 발표되었고 그 작가들의 대부분이 슈투름 운트드랑의 정신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아살해 모티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슈투름 운트 드랑의 시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우선 '슈투름 운트 드랑 Sturm und Drang'이란 1765년에서 1785년 사이의 문학사조를 일컫는 말로, 프리드리히 클링어 F. M. Klinger가 1776년에 출간한 드라마(원제는 『뒤죽박죽 Wirrwarr』)의 새로운 제목에서 그대로 따와 계몽주의-감상주의-고전주의의 대립적인 긴장이 감도는 문학적 시대에 그 방향을 제시하는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28) 이 사조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헤르더 Johann Gottfried Herder의 『최근 독일문학에 관한 단상들 Fragmente über neuere deutsche Literatur』이 출간된 1767년으로 잡는다. 그리고 쉴러의 청년기 작품 『간계와 사랑 Kabale und Liebe』이 출간된 1784년과,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출발하면서 고전주의의 시대가 시작된

²⁶⁾ Pfeil, Klipstein, Kreuzfeld: Drei Preisschriften über die Frage, S. 107; 118. (Michalik: Vom ≫Kindsmord≪ zur Kindstötung, S. 50f.에서 제인용.)

²⁷⁾ Vgl. Michalik: ebd., S. 51.

²⁸⁾ Vgl. Michael Schmidt: STURM UND DRANG. In: Wolfgang von Einsiedel u.a.(Hrsg.): Kindlers Literatur Lexikon im dtv. Bd. 20, München 1974, S. 9064.

1786년 사이인 1785년에 슈투름 운트 드랑의 시대가 끝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슈투름 우트 드랑은 계몽주의에서 강조되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 해방에 기초를 두면서도, 계몽주의의 일면적인 면모들, 즉 지나친 합리주의 및 합목 적적 사고, 진보 낙관주의와 피상적인 인간상, '비자연적'인 사회질서와 신분 제, 경직된 관습 등에 저항하는 젊은 세대의 혁명적인 성격을 지닌다.29) 이 새로운 세대는 개인의 감정과 감각의 절대성을 신봉하였고 자연과 천재를 예찬하였으며, 지배 계층의 부패를 비판하며 소박한 민중들에게 관심을 쏟 았다. '슈투름 운트 드랑'이라는 말 자체에 그들의 성격과 관심사가 잘 드러 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완전한 해방을 저해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강력하고도 저돌적인 불만을 의미"30)하기 때문이다. 슈투름 운 트 드랑의 시인들은 "신과 이성, 양심과 인간의 '가슴'(Herz)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봉건적 신분사회의 특권을 비판하 고,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이성의 보편적 법칙"으로 내세우면서 모든 개인에 게는 고유한 가치와 인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자유"를 요청하였다.31) 안삼환은 주로 독일 시민계급 출신이었던 젊은 시인 들이 '자연'과 '자연법'에 의거하여 "인간다운 감정의 중요성"을 부르짖었고,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위하였으며 전제주의 체제의 폭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강조한다.32)

따라서 그들은 열정적이고 긴장으로 가득 찬 생의 감정 Lebensgefühl에 부합하는 장르로서 희곡, 특히 비극과 희비극을 선호하였다. 거의 모든 희곡들이 산문으로 쓰였는데, 그것이 이 운동의 전체적인 성격을 설명하는 데적합했기 때문이다. 그 형식은 고전주의로 이해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비극에 정반대로 대항한다. 규칙들은 거부되었고, 자유로운 시공간의 변화와인물중심적인 줄거리 구조를 위해 삼일치의 법칙은 해체되었다. 또한 그들이 선호한 주제와 모티프로는 전체의 필연적 진행 den notwendigen Gang des Ganzen과 개인의 비극적인 충돌, 천재적인 인물의 자아실현, 형제살해로 이어지는 형제간의 불화, 도덕규범과 열정 사이의 갈등, 특히 영아살해

²⁹⁾ Vgl. Barbara Baumann, Birgitta Oberle: Deutsche Literatur in Epochen. München 1985, S. 89.

³⁰⁾ 안삼환: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180쪽.

³¹⁾ 안삼환: 같은 책, 182-183쪽.

³²⁾ 같은 책, 218쪽.

모티프에서 첨예화되는 지배계층의 부패와 신분제도에 대한 사회적 고발 등이 있다.33)

그 중에서도 영아살해가 독특한 위상을 갖는 것은, 우선 이 시기에 유독영아살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아살해 예방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특기할만한 것은 슈투름 운트 드랑의젊은 시인들의 사상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얀 라메커스 J. M. Rameckers는 18세기의 "인간적인 형사정책 menschliche Kriminalpolitk"을 위한 투쟁이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이 사법관도 목사도 아닌 계몽주의 철학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34) 그들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법학자였거나 법을 공부했던) 독일의 계몽주의자들은 대체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결정론자들이었다고 한다. 라메커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들[계몽주의자들]은 도덕신학의 핵심인 자유의지를 기각한다. 만약 인간에게 모든 표상들이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표상들로 인해 야기되는 의지의 결단 또한 외부세계에 종속된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행위들은 필연성의 산물이 된다고 그들은 결론 내린다.

범죄자 역시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는 그를 둘러싼 세계의 영향 속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행한 자이기에 우리의 전적인 동정을 받아도마땅하다.

Die Willensfreiheit, diesen Angelpunkt der Moraltheologie, verwerfen sie. Wenn dem Menschen alle Vorstellungen lediglich von außen kommen, so schließen sie, sind auch seine durch die Vorstellungen motivierten Willensschlüsse von der Außenwelt abhängig, und seine Handlungen also Produkte der Notwendigkeit.

Der Verbrecher bildet hier keine Ausnahme: er ist ein Unglücklicher, der seine Tat nur unter den Einflüssen der ihn umgebenden Welt verübt hat, und folglich unser vollstes Mitleid verdient.³⁵⁾

³³⁾ Vgl. Günther Schweikle, Irmgard Schweikle(Hrsg.): Metzler Literatur Lexikon: Begriffe und Definitionen. Stuttgart 1990, S. 449.

³⁴⁾ Vgl.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 52.

³⁵⁾ Rameckers: ebd., S. 54.

이러한 맥락에서 슈투름 운트 드랑 작가들은 범죄자들의 처벌 완화를 주장했는데, 가장 흉악하다고 여겨졌으며 또한 다발적이었던 범죄인 영아살해를 소재로 삼아 이 주장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메커스는 슈투름 운트 드랑 작가들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당시 군주나 영주들이 "모든 것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Alles für das Volk, nichts durch das Volk"36)라는 원칙하에 시민이 통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문학의 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슈투름 운트 드랑은 계몽주의에 그 바탕을 두면서도 감정을 해방하여 자유를 갈구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사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영아살해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그 목적 역시 모두 범죄예방과 처벌완화에 두고 있음에도 이에 접근하는 작가들의 관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또한 이것이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의 영아살해가 흥미로운 이유가 된다. 직접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이 다양성을 확인하기 전에 우선 슈투름 운트 드랑 시기의 영아살해 문학에 대한 연구 현황을살펴보도록 한다.

3. 연구사 및 연구방향

18세기 후반의 영아살해에 대한 연구는 큰 흐름에서 영아살해죄에 대한 연구와 영아살해 문학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즉, 영아살해에 대한 법제사 적, 담론사적 연구와 영아살해 모티프를 다루는 문학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영아살해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 오토 울브리히트 Otto Ulbricht는 저작 『독일의 영아살해와 계몽주의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1990)에서 당시 계몽주의자들이 영아살해 문제를 다음의 네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음을 밝힌다.. 영아살해는 ①'음행 Unzucht'의 결과이므로 미혼의 성생활을 새로운 방식으로 단속해야 하고, ②미혼모의 운명에 의해 발생하므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③국가가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새로운 복지 기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³⁶⁾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 110.

또한 영아살해는 ④사형법에 좌우되므로 사형의 의미와 목적, 그것의 폐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37)

울브리히트는 위에서 지적한 각각의 필요를 분석하여 그 이면에 놓인 질문을 탐구한다. 그에 의하면 ①미혼의 성생활을 처벌하는 문제의 이면에는 성생활을 사회적·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규정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 ②미혼모의 처우 이면에는, 지금까지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법적 특권과 자연법에 근거한 결혼의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③영아살해를 국가의 단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 이면에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 ④형벌의 적합성을 따지는 질문 이면에는 계몽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형벌의의미와 그 목적에 대한 질문이 존재한다.38)

그는 또한 영아살해가 이렇듯 큰 감정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것이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되어왔던 모성애를 완전히 전도시키는 "비자연적인 unnatürlich"39) 행위였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것은 희생자의 성격, 그가 약하고 무방비하며 지은 죄가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신생아라는 점에서 "무자비하다 grausam"40)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성격은 곧 '살생하지 말라', '약자와 차별받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라'라는 기독교의 두 가지 기본적 교리를 어긴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나아가 기독교의 오래된 두숙적인 (기독교 아이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유대인과 (신생아와 작은 아이들의 죽음에 주로 책임이 있는) 마녀를 연상시키는 것이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영아살해 범죄에 상징적 힘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육체적 폭력, 갑작스러운 죽음, 연약하고 죄 없는 피해자, 자연을 거스른 반모성애적 행위가 이 범죄를 더욱 문제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41)

다음으로 케르스틴 미할릭 Kerstin Michalik은 교육학자로서 영아살해 예 방논쟁이 범죄와의 싸움에 영향을 미치려는 관심사보다는 그 예방조치가 도 덕과 윤리 일반, 특히 결혼 생활의 품위에 미칠 유해한 영향에 대한 논의였

³⁷⁾ Vgl. Ulbricht: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 S. 15.

³⁸⁾ Vgl. ebd., S. 15f.

³⁹⁾ Ebd., S. 21.

⁴⁰⁾ Ebd., S. 22.

⁴¹⁾ Vgl. ebd., S. 22.

다고 일축한다. 그는 영아살해 모티프에서 계몽주의의 영향력을 지배적으로 평가하는 주장, 즉 사생아에 대한 처벌완화를 계몽된 인본주의의 승리로, 범 행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계몽주의 시대의 광활한 논쟁에서 얻은 인식과 통 찰의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한다. 계몽주의적 해석에서 감형 동 기로 강조되었던 '출산 시 임산부의 약화된 책임능력 Zurechnungsfähigkei t'42)은 생리학적 가정일 뿐 의학적·법학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할릭은 그보다는 "봉건적 신분사회에서 시민적 근대 국가로 이행하는 과 도기 Übergangsphase von der feudalen Ständegesellschaft zum modernen Staat bürgerlicher Prägung"43) 속 특정한 사회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아살해범에 대한 감형은 결혼과 가족을 법률이 아닌 도 덕에 기초한 공동생활이자 국가와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토대의 성스러운 기 관으로 여기는 새로운 시민적 결혼관 및 가족관으로의 변화에 그 배경을 둔 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이센에서 혼인법은 도덕적·관례적이라기보다 국가주 의적·공리주의적 측면에서, 즉 우선적으로 재생산의 심급에서 중요하게 간 주되었다. 때문에 살해당한 아이라는 '손실'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어머 니를 보호하기 위해 영아살해의 처벌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 다.44)

미할릭은 18세기 말 슈투름 운트 드랑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여기에서는 순진하게 유혹당하고 불명예에 대한 공포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아이를 죽였다는 영아살해범에 대한 집단적 남성판타지가 덧붙여짐으로써 영아살해는 점점 더 그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결국 영아살해는 동기와 목적이 결정된 의도적 범행이라기보다는 무분별하고 무의식적인 경향이 있는 산모의 행동을 의미하게 됨으로써 사회적개혁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의미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45)

지금까지 영아살해에 대한 담론사 및 법제사적 연구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영아살해 문학에 대한 연구를 조망하고자 한다. 우선 영아살해 문학연구에서 고전적인 연구로 널리 인용되는 얀 라메커스 J. M. Rameckers의

⁴²⁾ Michalik: Vom ≫Kindsmord≪ zur Kindstötung, S. 46.

⁴³⁾ Ebd., S. 49.

⁴⁴⁾ Vgl. ebd., S. 46f.

⁴⁵⁾ Vgl. ebd., S. 50.

연구에 대해서는 앞서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와 영아살해' 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책임은 범죄자 개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계에 있다는 것이 슈투름 운트 드랑 작가들의 입장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문제시되었던 범죄인 영아살해를 소재로 삼아 문학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처벌을 완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영아살해를 소재로 작품을 쓴작가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보여주었지만 개별 작품 분석에 있어서는 줄거리 요약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독문학자 하인츠-디터 베버 Heinz-Dieter Weber는 「비극적 행동으로서 의 영아살해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1976)에서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을 중심으로 영아살해를 비극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검토한다. 그는 비애극이나 비극과 같이 장르와 형식을 도식적으로 구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신 특정한 행동맥락을 비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베버는 레싱과 쉴러, 벤야 민, 헤겔의 비극이론들의 도움을 받아, 어떤 행동을 비극적으로 해석하려면 (이하 비극적 해석 tragische Interpretation), 그 상황이 첫째, 관객들에게 공 감 - 두려움과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로 인해 양가성을 내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중 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필연성이란 "오직 인간만이 주재할 수 있는 모든 자유로운 행위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진로를 향하는 그러한 필연성"46)을 의미한다. 이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 해 비극이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이성에 따르려 하는 인물이 이러한 운명(숙 명)과 충돌하는 비극에서는 "그 속에서 계몽되지 못한 것이 포착되어 있는 계몽 Aufklärung, in der erwas Nichtaufgeklärtes festgehalten wird"47)이라 는 양가성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극적 해석은 불가피한 불행과 인 의지를 분리시킴으로써, "너무나 끔찍해서 이전에는 물의 unverständlich했던 것을 이해 가능한 verstehbar 것으로 바꾸는"48) 기능을

^{46) &}quot;Die tragische Notwendigkeit muss eine solcher sein, 'die auch bei Hinzunahme aller freien Akte, über die nur der Mensch zu verfügen vermag, dennoch ihren Lauf nimmt'." Weber: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 S. 82.

⁴⁷⁾ Ebd., S. 81.

⁴⁸⁾ Ebd., S. 84.

한다. 이를 통해 독자/관객은 "고통과 함께 이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뒤섞인 감정 die gemischte Empfindung des Leidens und der Lust an dem Leiden"⁴⁹⁾, 보다 정확하게는 미적인 즐거움과 필연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예컨대 영아살해의 경우 혼인법과 결혼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두 느끼게되므로, 비극적 해석은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살해라는 범죄를 한 사람이 불가피한 모순에 휩쓸린 결과로 본다면, 영아살해는 비극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다. 또한 베버는 영아살해는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의 요구가 시민계급의 규범과 충돌하는 것이기때문에 영아살해 모티프를 다루는 문학은 슈투름 운트 드랑의 산물이라 할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영아살해라는 지탄받아 마땅했던 범죄가 어떻게새로운 비극적 행동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장르적 범주와비극적 해석을 구분하는 매우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것에 비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은 바그너의 작품에만 그쳤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영아살해 문학에 대한 영미권의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는 저작은 미국의 교육철학자 오스카 베르너 Oscar Helmuth Werner의 『1770-1800년 사이의 독일 문학에 나타난 미혼모 The Unmarried Mother in German Litera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1770-1800』(1917)이다. 베르너는 도덕적인 문학관에 입각하여,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의 영아살해 문학이 교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그는 영아살해 예방책에 관한 "낡은 이론들이 미혼모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처벌들을 전시하여 소녀들에게 경고하는 [위협 Abschreckung의] 방식을 취했다면, 새로운 이론들은 영아살해라는 비극의 전개와 결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문학의] 방식을 택했다"50)고 설명한다. 즉, 당시의 문인들은 영아살해 범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여 "장래의 미혼모들 prospective unmarried mothers"51)에게 공포를 새기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베르너

⁴⁹⁾ Weber: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 S. 80.

^{50) &}quot;On the old theory, girls were warned by letting them see what terrible penalties were imposed for unmarried motherhood, on the new theory, by showing in detail how the tragedy of infanticide developed and ended." Werner: The Unmarried Mother in German Literature, p. 71.

⁵¹⁾ Ibid.

에 의하면 그 본질부터가 '삶에 대한 비판 criticism of life'이자 '교훈주의 didacticism'인 문학, 그중에서도 인간의 경험을 그 주제로 삼는 희곡이 이 새로운 방식에 적합하다고 한다.52)

그러나 베르너는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의 영아살해 문학 중 괴테의 『파우스트』를 제외한 다른 작품들은 현재 기억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미혼모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목표에는 도달했지만, 순문학 esthetic literature이 되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한다.53) 그에 의하면 "예술의 소관은 매혹하는 것, 기품을 주는 것, 정신적으로 고양시키는 것, 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지, 혐오감을 주는 것, 침울하게 만드는 것,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 공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54)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작가들이 실제로 그들의 작품에서 역겨움과 끔찍함을 자아내는 장면들을 삭제하거나 평화롭게 수정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55) 베르너의 연구는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의 영아살해 문제를 지나치게 교훈주의적인 관점에 천착하여 설명했기 때문에, 당시의 작가들이 그 문제를 형법과 사회제도의 영역에서 해소하고자 했음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내연구로는 탁선미의 『독일근대문학에 나타난 영아살해 판타지 - 그 사회적 맥락과 젠더정치학적 함의를 중심으로』가 영아살해를 중심주제로 다루는 거의 유일한 논문이다.56) 그는 1750-1830년 사이의 독일문학사에 나

⁵²⁾ Cf. Werner: The Unmarried Mother in German Literature., pp. 69-70.

⁵³⁾ Cf. ibid., pp. 108-109.

^{54) &}quot;The province of art is to attract, to ennoble, to lift up, to emphasize the beautiful, not to repel, to drag down, to debase, to stress the horrible." Ibid., p. 111.

⁵⁵⁾ 크리스티안 슈바르트 Christian Friedrich Daniel Schubart는 자신의 시 『임신한 소 녀 Das schwangere Mädchen』(1763-1769)의 제목을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선 민혠 Minchen am Grabe ihrer Mutter』으로 바꾸면서 작품 속 혐오스러운 요소들을 전부 제거하였고, 슈프릭만은 끔찍하게 울부짖는 아기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집필하려던 계 결말로 마무리되는 포기하고 대신 평화로운 작품 Schmuck"(1779-1780)을 작성하였다. Cf. ibid., p. 110; H. L. 바그너 역시 『영아살해 범』을 발표하고 3년 뒤인 1779년에 그 제목을 『에프헨 훔브레히트, 또는 어머니들 은 명심하라. 5막으로 구성된 연극 Evchen Humbrecht oder Ihr Mütter merkt's Euch. Ein Schauspiel in fünf Aufzügen』으로 바꾼 수정본을 발표했다. 수정된 2판 에서는 영아살해가 벌어지지도, 에프헨의 어머니가 자살하지도 않는다. Vgl. Weber: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 S. 89.

타나는 영아살해 문학에서 그 주인공들이 대부분 정숙하고 도덕적이며 아름 다운 젊은 시민계층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당시의 주되 독자층이었던 시민계층은 무엇보다 가족과 신분의 도덕적 명예를 중시하였고, 그것은 여 성의 성을 억압하고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지켜졌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 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계몽주의 이념과 인구를 국가의 부의 생산 및 확장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중상주의적 국가정책"57)을 통해 아동의 가치 가 상승되는 과정과 더불어, 어머니의 역할을 여성의 본질적인 존재방식으 로 규정하는 모성애담론을 동반한다. "서구근대문학에서 새로운 미학적 이 상으로 부상한 '순수한 여성'의 표상에는 이처럼 성적 욕망에서 순화되어 사 랑과 자기희생으로 남편과 자식에게 헌신하는 다정하고 정숙한 모성적 여성 의 길고도 치열한 규범화 과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58) 즉 저자에 의 하면 영아살해범은 "그 자체로 근대시민사회의 문화적 자기이해에 근본적으 로 이질적이고 위협"적이었다는 것이다.59) 탁선미의 논문은 18세기 영아살 해의 배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나. 이를 모성애 담론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바그너의 『영아살해범』 속 모녀관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작 품 속에서 영아살해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 예컨대 군인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 전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18세기 후반의 영아살해 모티프는 그 주제가 지니는 분명한 중요성 때문에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많지 않다. 위에서 언급된 탁선미의 연구 외에는 부분적으로 개별 작품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이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작품들은 번역조차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그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해외에서의 연구 역시 대체로 경향을 분석할 뿐 문학작품 내에서 영아살해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본고에서는 영아살해를 다루는 18세기 후반의 문학작품들 중에서 중요한 의

⁵⁶⁾ 이외에도 유영희: 18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난 범죄, 95-124쪽을 참조. 이 논문은 영아살해를 작품 속 모티프 중 하나로 다루고 있어서 본문에서 따로 소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영아살해를 부분적으로만 다룬 연구들은 이후 본론에서 개별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⁵⁷⁾ 탁선미: 독일근대문학에 나타난 영아살해 판타지, 146쪽.

⁵⁸⁾ 탁선미: 같은 곳, 149쪽.

⁵⁹⁾ 같은 곳, 152쪽.

미를 가지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와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을 선정하여, 두 작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괄적인 경향성이 아닌 그 분화성과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8세기 후반은 계몽주의가 지배적이나 문학사조로는 슈투름 운트 드랑이라는 격정적이고 혼란한 정신이 번지고 있었던 시대다. 또한 사법개혁이 진행되어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시대였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라는 단일 모티프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관점 역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영아살해범에게 선고되는 형벌의 가혹함을 완화하려는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형제도를 지지하였던 보수적인 관점에서부터 영아살해범은 그를 둘러싼 불합리한 제도들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급진적인 관점까지 영아살해를 바라보는 관점의 범위가 넓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 두 작품,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 H. L.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의 분석을 통해 18세기 후반의 혼란한 사회상과 계몽주의 및 슈투름 운트 드랑의 정신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 작가들이 문학을 통해 영아살해 논쟁에참여한 방식과 그 의의를 탐구할 것이다.

2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작품의 의의와 한계가 뚜렷이 갈리는 이유를 괴테 가 작가이자 정치가·법학자로서 영아살해 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취 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찾도록 한다. 그는 영아살해범에게 선고되는 가혹 한 형벌들, 특히 교회참회가 폐지되는 것에 크게 기여하는 등 동정적인 태 도를 취함과 동시에 사형제도에 찬성하기도 했다. 우선 2절에서 괴테가 영 아살해 문제에 대해 비판한 지점들을 작품의 구체적인 장면들에서 확인하도 록 한다. 작가가 영아살해라는 비극의 사회적 원인들을 작품에 상세히 반영 함으로써 그레트헨의 순수한 사랑을 문제 삼았던 당시 사회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했으며, 영아살해의 진행과정을 생략하는 등의 미학적 전략을 통해 그레트헨을 동정의 대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3절에서 는 그레트헨과는 달리 파우스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해될 수 없다 는 것을 살펴본다. 파우스트는 그레트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 라 그녀에게서 발견한 '신성한 어머니'라는 표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그레트헨이 비단 파우스트의 시선 속에서만 성모 마리아같은 인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처음부터 그레트헨을 성모 마리아적인 여성으 로 설정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괴테가 성모를 그레트헨에 투사함으로써 야 기되는 문제에 대해 탐구해본다. 마지막으로 그레트헨이 종교적 순종과 본성적 모성애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작품에서 심판 모티프가 시사하는 의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레트헨이 심판의 세 가지 유형, 즉 하늘과 지상, 양심의 심판을 모두 받고 이에 순응하는 것이 결국 영아살해범에 대한 사형선고를 정당한 것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만하임 현상공모 등 영아살해 논쟁의 시발점 격인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이 영아살해를 둘러싼 사회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다. 영아살해범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영아살해를 중심 사건으로 전개하는 첫 번째 작품으로서, 이 희곡에서 작가가 영아살해를 개인적인 사 건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그로 인한 제약이 만들어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영아살해범인 에프헨을 희생양으로 그려냄으로 써 당시의 형법과 사회적 인식에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하 고 있는 것이다. 먼저 당시 수많은 영아살해 문학 중에서 바그너의 작품이 유독 문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정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2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작품 분석에 들어가 각각의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 작품에 나타나는 영아살해의 사회적 원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에프헨을 유혹한 폰 그뢰닝젝과 그의 동료 폰 하젠포트를 통해 군인 들의 여성혐오적인 명예관을, 에프헨의 아버지인 마르틴 훔브레히트를 통해 시민도덕의 폐해를 이해해본다. 그리고 '정숙한 안주인'이라는 당시의 여성 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영아살해와 관련된 제도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영아살해범에 대한 법과 사회의 비인간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3절에서는 바 그너가 영아살해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지점들을 다룬다. 우선 작가 가 작품에서 시민비극의 전형적인 틀을 전복시켜 시민도덕의 폐해를 가시화 하였고, 멜랑콜리 담론을 활용하여 여성의 멜랑콜리를 가벼운 문제로 간과 하는 남성적 시선을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비극을 유발한 인물 인 그뢰닝젝에 대한 에프헨과 다른 인물들의 평가가 갈린다는 사실을 지적 하여 영아살해에서 유혹자 남성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사회에 대한 바그너 의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마르탄 부인을 통 해 관객들에게 바라는 모습을 직접 연출하고 있음을 밝혀내도록 한다.

Ⅱ.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

괴테는 프랑크푸르트의 유서 깊은 법학도 집안에서 태어나 그 자신도 법학자로서 1771년부터 일찍이 영아살해 문제에 관심을 표현한 바 있다. 『무쇠손 괴츠 폰 베를리항엔 Götz von Berlichingen mit der eisernen Hand』 (1773)과 『젊은 베르터의 고뇌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1774)로 슈투름 운트 드랑의 대표적인 작가가 된 그는 『원형 파우스트』 (1775)에서 주잔나 브란트의 영아살해 사건을 '그레트헨 비극'으로 문학화하여 영아살해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 작품은 슈투름 운트 드랑 시기의 시대적 문제였던 영아살해 논쟁을 작품의 소재로 삼은 첫 번째 작품60)으로서 작가들이 문학을 통해 영아살해 논쟁에 참여하는 길을 터주었다.

『원형 파우스트』는 오늘날 잘 알려진 『파우스트』와는 다른 젊은 괴테 의, 슈투름 운트 드랑 시기의 '파우스트'였다. 『원형 파우스트』는 영아살해 논쟁이 가장 뜨겁던 슈투름 운트 드랑의 시기에 쓰였으나 『파우스트 Ⅰ』 은 1808년에 처음 출판되었으며 1829년에 개정되어 다시 발표되었고. 『파 우스트 Ⅱ』는 괴테가 사망한 1832년에서야 최종적인 형태로 출판되었던 것 이다. 이런 점에서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의 영아살해극을 살펴보는 본 논 문에서는 최종본 『파우스트 I·Ⅱ』보다는 『원형 파우스트』를 1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원형 파우스트』의 생성사에 대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괴테가 1775년 바이마르에서 낭독했던 『파우스트 단편』을 청중 루이제 폰 게히하우젠 Luise von Gächhausen이 필사해놓은 것이 1887년 발견되었다. 1773년과 1775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 로 추정되는 이 최초의 『파우스트』 사본을 문학사가 에리히 슈미트 Erich Schmidt가 『본래의 형태로 된 괴테의 파우스트 Goethe Faust in ursprünglicher Gestalt nach der Göchhausenschen Abschrift herausgegeben von Erich Schmidt』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에 출판하였

^{60) 1772}년에 요한 슈멜 Johann Gottlieb Schummel이 저작 『감상적인 독일 일주 Empfindsame Reisen Durch Deutschland』에서 영아살해범에 대해 언급하기는 하지만 (Vgl. Ulbricht: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 S. 232), 이후에 발표되는 영아살해 문학작품들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불분명하므로 연구자들은 주로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를 영아살해를 다룬 첫 주요작품으로 간주한다.

다.61) 이것이 바로 오늘날 『원형 파우스트 Urfaust』라 불리는 작품이다.

『원형 파우스트』가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 이외에도 본고에서 『파우스트』 최종본이 아닌 『원형 파우스트』만을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원형 파우스트』에서 영아살해를 둘러싼 '그레트헨 비극'이 중심 사건을 이루기 때문이다. 『원형 파우스트』와 『파우스트 I』은 큰 틀에서 '학자 비극'과 '그레트헨 비극'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같다. 다만 『원형 파우스트』에서의 '학자 비극'은 최종본에 비해 비중도 적고 완성도도 낮다. 이에 따라 『원형 파우스트』에서는 그레트헨 비극이 중심적인 사건으로 인식된다. 반면 『파우스트 I』에서 그레트헨 비극이 중심적인 사건으로 인식된다. 반면 『파우스트 I』에서 그레트헨 비극, 영아살해 사건은 남성 주인공 파우스트의 '인생행로 Lebensphase'라는 전체 드라마 중 일부라는 것이 강조된다. 『파우스트 I』에는 『원형 파우스트』처럼 독자적인 개체가 아닌 제2부와의 연관성에서 의의를 가지는 장면들이 많다.62) 게다가 『파우스트 I』은 그레트헨 비극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제2부로 이어진다. 즉 『원형 파우스트』에서는 그레트헨 비극이 주로 다뤄지나 최종본에서는 제1부에서만, 그것도 다른 사건들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본에서와는 달리 『원형 파우스트』에서는 그레트헨이 단죄를 받는 분위기만이 강조될 뿐 구원 가능성이 전혀 제시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순희는 1808년에 발표된 『파우스트 I』에 파우스트의 구원 가능성을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는 <천상의 서곡>과, 구원에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성모의 존재가 확실히 등장하는 <심산유곡>이 추가되면서 파우스트와 함께 그레트헨 역시 구원되는 것으로 상황이 변화했다고 설명한다. 이 지점이 『원형 파우스트』에는 없었던 천상의 목소리들이 『파우스트 I』의 <감옥 Kerker> 장에 삽입되어 "그녀는 구원받았다 Sie ist gerettet"라고 외치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63)

⁶¹⁾ J. W. 괴테(지명렬 편역): 원형(原形) 파우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87-191쪽 참조. 'Urfaust'를 '초고 파우스트'나 '우어파우스트'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에리히 슈미트가 붙인 제목에 따라 '원형 파우스트'로 번역한다.

^{62) &}lt;헌사 Zueignung>, <본무대 앞의 서연 Vorspiel auf dem Theater>, <천상의 서곡 Prolog im Himmel>, <마녀의 주방 Hexenküche>, <숲과 동굴 Wald und Höhle>, <발푸르기스의 밤 Walpurgisnacht>, <발푸르기스 밤의 꿈 Walpurgisnachtstraum>, <밤, 트인 들판 Nacht, offen Feld>

⁶³⁾ 오순희: 악마와 성모 - 테오필루스 전설과 파우스트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악마와의계약". 실린 곳: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제126집(2013), 103쪽 참조. 저자는 성모의

이 차이는 괴테가 『원형 파우스트』를 작성한 이후에 전체 작품의 결말을 파우스트가 구원받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그레트헨역시 성모에 의해 구원되는 것으로 고쳤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레트헨이 영아살해를 저지른 대가, 그의 최종적 운명마저도 파우스트의 운명에 의해 결정지어진 것이다. 따라서 파우스트의 구원과의 연관성에서 벗어나 오로지그레트헨의 운명만을 고려했을 때, 그레트헨이 구원의 가능성 없이 그저 심판을 받는 『원형 파우스트』에서 괴테의 영아살해범에 대한 입장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의 영아살해극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원형 파우스트』가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는 그레트헨 비극뿐만이 아니라 학자 비극도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도 이미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게다가 이후 『파우스트 I·Ⅱ』라는 최종본이 발표되면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더 이상 하나의 견해로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작품이 되었다. 따라서 최종본의 존재를 배제하고 『원형 파우스트』만을 해석하는 일이 현시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투름 운트 드랑이라는, 18세기후반 중에서도 약 20년 정도의 좁은 시간대 안에서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기위해, '작품에서 영아살해 문제가 나타나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어 작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원형 파우스트』가 영아살해극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괴테가 기존에 존재하는 '파우스트 전설'에 그레트헨이라는 인물을 창조해 넣었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 Johann Georg Faust라는, 1480년에서 1540년 사이에 실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전설에서부터, 1587년 프랑크푸르트의 인쇄업자 요한 슈피이스 Johann Spies가 비밀계약을 체결하는 악마 메피스토를 삽입하여 편찬한 '민중본 Volksbuch' 『요한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 Historia von D, Johann Faustens』, 영국의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 Christopher Marlowe가 파우스트를 초월적 인식과 세속적 권력을 포함하여 신의 권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이로 설정한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적 이야기 The Tragical History of

존재가 '악마와의 계약'이 지옥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은 결정적인 존재였다고 강조한다.

Doctor Faustus』(1589), 마지막으로 파우스트의 구원을 한발 먼저 선취한 레싱의 『파우스트 단편 Faust-Fragment』(1759)까지, '파우스트 전설'의 역사 속에는 그레트헨의 영아살해에 대한 암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⁶⁴⁾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괴테가 『원형 파우스트』에 그레트헨 비극을 창작해 넣은 이유는 영아살해가 주요범죄로 대두되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찾아야 한다. 영아살해에 대한 시대의 관심과 민중의 측은지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괴테의 입장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괴테가 당시 영아살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한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는 영아살해범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폐해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괴테는 주잔나 브란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영아살해 재판에 참여하였으며, 영아살해범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처벌들, 그중에서도 특히 '교회참회 Kirchenbuße'의 폐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모순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가 영아살해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체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원형 파우스트』에서도 발견되는 괴테의 '이중적' 태도를 역사적 사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어서 괴테가 영아살해죄와 관련된 형법과 사회적 인식 등 근본적인 문제들로 여겼던 것들이 작품 『원형파우스트』에서 영아살해의 구체적인 원인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영아살해범 그 자체보다는 그를 둘러싼 환경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레트헨이 범죄자가 아닌 희생자로서 대두된다는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나 영아살해 모티프를 다룬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파우스 트』는 영아살해를 중심적 사건으로 다루는 순수한 '영아살해극'은 아니다. 주인공이 여성 인물이 아니고 남성 인물이며, 여성 인물의 삶과는 별개로

^{64) &#}x27;파우스트 전설'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논고를 참조하였다. 이인웅: 『초고 파우스트』와 『파우스트』 제1부의 그레트헨 비극 연구. 실린 곳: 괴테연구 제2권 (1986), 138쪽. 안삼환: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110-111쪽, 263쪽. 다만 뉘른베르크의 의사 니콜라우스 피처 Nikolaus Pfitzer가 1674년에 출판한 간행본에 파우스트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는 "이웃에 있는 가게에서 일하는 아름다우나 가난한 처녀"가 '그레트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적은 있다. Vgl. Erich Trunz(Hrsg.): Anmerkungen des Herausgebers. In: Faust. Hrsg. von Erich Trunz. (HA). Bd. III. München 1972. S. 464. (박광자: 『파우스트』의 그레트헨 비극. 실린 곳: 괴테연구제14권(2002), 3쪽에서 재인용.)

남성 인물의 삶이 이어진다. 이렇듯 『원형 파우스트』는 완전한 영아살해 극이라 정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렇게 남성 주인공 의 서사이기 때문에 영아살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역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작중에서 비극은 파우스트와 그레트헨의 사랑으로 시작되는데, 두 인물의 사랑의 양상은 결코 같다고 말할 수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 한다. 파우스트가 정욕으로 시작하여 그레트헨의 모성을 찬양하는 형태로 '진정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 그레트헨은 정신과 육체의 사랑을 분리하지 않고 그 둘 모두를 파우스트에게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한 이해 의 차이와 각각의 인물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는 작업은 작품에서 영아살해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리고 그레트헨이 파우스트의 주관적 시선에서 벗어나도 여전히 그 신앙심과 모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그레트헨이 성모 마리아의 모티프를 투사한 인물 임에도 불구하고 『원형 파우스트』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마 무리된 것이 영아살해 논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비극의 결말로 '심판 모티프'가 차용되면서 발생하는 작품의 결 정적인 한계에 대해 점검해보려 한다. 전체 작품에서 심판 모티프가 가지는 성격을 고려하여, 영아살해가 개인의 비극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과오처 럼 희석된다는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1. 괴테와 영아살해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는 슈투름 운트 드랑의 시대에서 영아살해 모티 프를 선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획득한다. 그는 당시 큰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던 영아살해범의 인권과 형법에 대한 고찰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했을 뿐만 아니라 법학자이자 정치가로서 해당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카를 아우구스트 통치 하의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에서 추밀고문관을 지내면서 교회참회를 폐지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런데 1931년, 극작가이자 법학자인 카를 핀켈른부르크 Karl Maria Finkelnburg가 「"나 또한...". 괴테 시대의 영아살해에 관한 사법과 형법 "Auch ich...". Kindesmordjustiz und Strafrecht unter Goethe」이라는 논문에서 괴테의 '이중성'에 대해 대담한 주장을 펼친다.65) 기록연구자이자 역사

학자인 빌리 플라흐 Willy Flach의 정리에 따르면, 핀켈른부르크는 위 논문에서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괴테의 "작품에서의 입장과 현실에서의 행보 사이에 모순 Widerspruch zwischen Goethes dichterischem und tatsächlichem Verhalten"66)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핀켈른부르크는 괴테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Wilhelm Meisters Lehrjahre』(1795-96)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이 Wer nie sein Brot Tränen aß'67)를, 『타우리스 섬의이피게니에 Iphigenie auf Tauris』(1787)에 대한 헌사로서 1827년에 "모든인간적 결함들을 보완해주는 것은 / 순수한 인간성이다 Alle menschlichen Gebrechen / Sühnet reine Menschlichkeit"68)라는 문장을 써보낸 것과는 달리, 영아살해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체제에 찬성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핀켈른부르크의 주장은 소위 "'나-또한" 전설 "Auch-ich"-Legende'69)이라 불리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플라흐는 핀켈른부르크가 변호사이자 정치가 프리드리히 루흐트 Friedrich Wilhelm Lucht의 논문 『칼 아우구스트통치 하의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에서 형법집행 Die Strafrechtspflege in Sachsen-Weimar-Eisenach unter Carl August』(1929)에서 몇몇의 단서만을 포착하여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 평가한다.70) 또한 핀켈른부르크가 예로 든 작품들은 괴테가 사형에 대한 입장문(1783)을 제출한 이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핀켈른부르크의 논지가 완전히 신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괴테가 영아살해범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교회참회를 폐지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영아살해범에 대한 괴테의 동정적인 태도가 '작품에서만'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태도와, 영아살해범에 대한

⁶⁵⁾ Karl Maria Finkelnburg: "AUCH ICH ..." Kindesmord-Iustiz und Strafrecht unter Goethe. In: Berliner Tageblatt Nr. 161(05. 04. 1931). (In: Volker Wahl(Hrsg.): "Das Kind in meinem Leib". Sittlichkeitsdelikte und Kindsmord in Sachsen-Weimar Eisenach unter Carl August. Eine Quellenedition 1777–1786. Weimar 2004, S. 229.)

⁶⁶⁾ Willy Flach: Beiträge zum Archivwesen, zur thüringischen Landesgeschichte und zur Goetheforschung. Hrsg. von Volker Wahl, Weimar 2003, S. 255.

⁶⁷⁾ 핀켈른부르크는 괴테의 문장을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인용해놓았으나, 해당 문구가 삽입된 작품의 제목은 본문에 표기한 바와 같다.

⁶⁸⁾ Wahl: "Das Kind in meinem Leib", S. 230.

⁶⁹⁾ Ebd., S. 472.

⁷⁰⁾ Vgl. Flach: Beiträge zum Archivwesen, S. 255.

사형선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스위스의 법학자인 르네 베어로허 René Jacques Baerlocher도 괴테가 영 아살해에 대한 사형선고를 지지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고 말한다.71) 베 어로허는 괴테가 1771년 8월 6일. 23세의 나이로 법관 자격 Lizenziat(Licentia docendi)을 얻기 위해 발표한 「법률입장 Positiones Juri s,에서 이미 이러한 이중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괴테는 「법률입장」 의 56테제 중 55절 "막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여인은 사형에 처해야 하는 가? 이것은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이다 Ob eine Frau, die ein soeben geborenes Kind umbringt, der Todesstrafe zu unterwerfen sei, ist eine Streitfrage unter den Doktoren"에서 당시 쟁점이 되었던 문제 를 짚어내었을 뿐 자신의 견해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반면, 53절에서는 "사 형은 폐지될 수 없다 Die Todesstrafen sind nicht abzuschaffen"⁷²⁾며 사형 을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던 것이다. 따라서 핀켈른부르크의 주장 은 현재까지 발견된 실제 단서들에 의해 어느 정도 정당성을 얻는다고 보아 야 한다.

"나-또한"전설을 포함하여 '괴테와 사형, 그리고 영아살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73) 당시 괴테가 법학자·정치가로서 영아

⁷¹⁾ Vgl. Flach: Beiträge zum Archivwesen, S. 453.

⁷²⁾ 라틴어로 쓰인 원문은 다음과 같다. 53절: "Pœnæ capitales non abrogandæ." 55절: "An fæmina partum recenter editum trucidans capite plectenda sit? quæstio est inter Doctores controversa."

[「]법률입장」의 라틴어 원문은 Elisabeth Genton(Hrsg.): Goethes Straßburger Promotion. Zum 200. Jahrestage der Disputation am 6. August 1771. Urkunden und Kommentare. Basel 1971, S. 98을, 독일어 번역은 Hanna Fischer-Lamber(Hrsg.): Der junge Goethe. Berlin 1964. Bd. 2, S. 318을 르네 베어로허가 Wahl: "Das Kind in meinem Leib", S. 455f.에서 참조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⁷³⁾ 해당 주제에 대해 다음의 논고들을 참조. Erich Wulffen: Bekanntes und Unbekannt es über Goethe als Kriminalisten(1932); Alfred Wieruszowski: Goethe und die Tode sstrafe(1932); Hans Wahl: Antworten auf häufig Fragen bei den Goethe-Institution (1936). (이상의 논고들의 전문은 Wahl: "Das Kind in meinem Leib"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né Jacques Baerlocher: Anmerkungen zur Diskussion um Goethe, Todess trafe und Kindsmord. In: Goethe-Jahrbuch(2002), S. 207-217; Rüdiger Scholz: Goet hes Schuld an der Hinrichtung von Johanna Höhn. In: Goethe-Jahrbuch(2003). S. 3 24-331; René Jacques Baerlocher: "Goethes Schuld an der Hinrichtung von Johanna Höhn."

살해 논쟁에 참여했던 내역을 상술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탓인지, 학자들마다 같은 기록을 두고 해석을 달리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논쟁을 규명하기보다는, '영아살해범에 대한 괴테의 이중적 태도'라는 쟁점이 『원형 파우스트』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작가가 영아살해범에 대한 동정적 태도를 드러내면서도 그레트헨의 구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먼저 괴테의 이중적 태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역사적 사료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괴테의 입장 1: 형벌 완화 및 교회참회 폐지

피테는 프랑크푸르트의 뿌리 깊은 법학자 집안의 자손으로서 그 스스로도 법학자였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1770년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률박사 학위를 얻었으며, 1771년 9월 고향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다. 그의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 괴테 Johann Caspar Goethe(1710-1781)는 왕실고문관으로 일한 바 있고, 외할아버지 요한 볼프강 텍스토르 Johann Wolfgang Textor(1693-1771)는 프랑크푸르트의 시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괴테의 가문은 평민 출신이었음에도 당시 정계에 영향력이 상당한 집안이었다. 따라서 괴테에게 프랑크푸르트의 법조계와 정치계는 더없이 친숙한 것이었고, 이름난 법률가와정치가와는 모두 면식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괴테는 주잔나 브란트의 재판에 참여한 시의회 의원들, 법학자들, 의사들 대부분과 친분이 있었다. 어린 시절 괴테의 스승이자 당시 괴테의 부친의 서기로서 일하고 있었던 요한 하인리히 팀 Johann Henrich Thym이 재판의 서기를 맡았다.74) 주잔나의 검진을 맡은 두 명의 의사는 괴테 집안의 주치의였고, 외삼

a Höhn"? In: Goethe-Jahrbuch(2003), S. 332-339. 또한 다음의 기사 역시 참고할만 하다. Mario Lichtenheldt: Keine Gnade für Gretchen - Goethes dunkle Seite. (http s://pagewizz.com/keine-gnade-fuer-gretchen-goethes-dunkle-seite-2/) (최종검색일: 2022. 08. 01)

⁷⁴⁾ Vgl. Habermas u. Hommen: Das Frankfurter Gretchen, S. 17. 이뿐만 아니라 괴테 의 친우이자 이후 여동생 코넬리아 Cornelia의 남편이 되는 요한 슐로서 Johann

촌인 요한 텍스토어 Johann Justus Textor를 포함하여 괴테의 친인척들 중 많은 수가 재판에 참여하였다.75) 괴테도 이 재판을 직접 참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후 프랑크푸르트의 생가에서 주잔나의 소송 기록의 일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76) 이 사실로부터 괴테가 단순히 재판을 참관한 것이상으로 해당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잔나 브란트의 영아살해 재판이 유독 특별한 이유는 변호사인 샤프 박사의 변호 전략 때문이다.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있어서 (당시 조명받지 못했던) 새로운 단면인 '동기'를 고려하는 것은 1771년 근대초기의 법학논리에서 아직 낯선 것이었다. 때문에 샤프 박사가 가난, 절망과 불명예등을 동기로 제시하면서 영아살해범에 대한 처벌완화를 주장한 것은 1780년대에 발행된 항의문들의 시초가 되었다. 레베카 하버마스 Rebekka Habermas에 의하면, 항의문들의 많은 부분은 영아살해 동기를 문학적으로형상화한 유명한 작품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77) 샤프 박사의 변호논리와 주잔나를 모델로 한 그레트헨, 그리고 다른 문학적 영아살해범들은 범죄자 전반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특히 영아살해범에 대한표상을 변화시켰다. 영아살해범이 더 이상 신적 질서의 위반자가 아니라 악의적인 유혹자와 부당한 법체계의 '희생자'로 여겨졌다. 그리고 범행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동기를 고려하는 사법체계의 변화가 부각되었다.78)

괴테는 『원형 파우스트』를 발표한 이후에도 문학의 영역에서 영아살해 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나갔다. 특히 미혼모가 영아살 해를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가혹한 형벌이었던 교회참회 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자신의 입장을 1778년 다음의 시를 통해 문학화하

Georg Schlosser가 해당 재판에 법률 고문으로 섰다고 알려져 있으나, 저자에 의하면 사실은 요한 슐로서 본인이 아닌 그의 형 히에로니무스 슐로서 Hieronymus Peter Schlosser가 섰다고 한다.

⁷⁵⁾ Vgl. Habermas u. Hommen: Das Frankfurter Gretchen, S. 303; Mirko Laudon: Go ethe und die Kindsmörderin. (https://www.strafakte.de/historisches/goethe-und-die -kindsmoerderin/) (최종검색일: 2022. 08. 01)

⁷⁶⁾ 이인웅: 『초고 파우스트』와 『파우스트』 제1부의 그레트헨 비극 연구, 142쪽 참 조. 소송기록에 대한 문서는 괴테의 명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⁷⁷⁾ Vgl. Habermas, Hommen: ebd., S. 31.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⁷⁸⁾ Vgl. Ebd., S. 41.

였다.

법정에 서서79)

내가 누구 애를 가졌는지 말하지 않겠어요, 내 배 속의 아기를. 퉤하고 침을 뱉으시구려, 저기 창녀가 있다고! 그래도 난 정직한 여자랍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을 맹세하였는지 말하지 않겠어요, 내 님은 사랑스럽고 착하니까. 그 사람 목에 황금 목걸이 하고 있거나, 그 사람 초라한 밀짚모자 쓰고 있겠지요.

비난과 경멸을 견뎌야 한다면 나 혼자만 경멸을 받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알고, 그도 날 잘 알지요, 그리고 하느님도 그 사실을 아세요.

목사님 그리고 재판장님 당신들, 제가 부탁드리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건 내 아이예요 그리고 내 아이로 남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 해 준 것도 없잖아요.

Vor Gericht⁸⁰⁾

Von wem ich es habe, das sag' ich euch nicht, Das Kind in meinem Leib. – Pfui! speit ihr aus: die Hure da! –

⁷⁹⁾ 임우영: 괴테 시선 1.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284-288쪽. 번역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저자에 의하면 괴테는 위 시를 1776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1777년 타인(슈타인 부인 Charlotte von Stein)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발표한 것은 1815년이다. 따라서 위 시는 괴테의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효하지만, 사실상 현실의 교회참회 폐지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⁸⁰⁾ 원문은 다음을 참고. Erich Trunz(Hrsg.): Johann Wolfgang von Goethe Werke.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Bd. 1(1981), S. 85.

Bin doch ein ehrlich Weib.

Mit wem ich mich traute, das sag' ich euch nicht, Mein Schatz ist lieb und gut, Trägt er eine goldene Kett' am Hals, Trägt er einen strohernen Hut.

Soll Spott und Hohn getragen sein, Trag' ich allein den Hohn. Ich kenn' ihn wohl, er kennt mich wohl, Und Gott weiß auch davon.

Herr Pfarrer und Herr Amtmann ihr, Ich bitte, lasst mich in Ruh! Es ist mein Kind, es bleibt mein Kind, Ihr gebt mir ja nichts dazu.

이 시는 미혼모의 입장에서 쓰인 것으로, 화자는 자신과 아이, 상대 남성을 직접 변호하고 있다. 화자는 미혼모인 자신을 "정직한 여자"로, 혼외임신을 시킨 상대 남성은 "사랑스럽고 착"한 사람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사랑을 긍정하고 "하느님"도 이를 용인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은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문제적인 것으로 변색된다. 화자는 "재판장님 Amtmann"과 함께 "목사님 Pfarrer"을 언급함으로써 형법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도 문제 삼고 있다. 교회가 영혼의 구원이 아닌 무자비하고 부당한 처벌의 기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괴테는 공개참회를 "완전히변질된 vollig ausgearttet"⁸¹⁾ 형벌이라 말하며 바이마르 공국의 추밀고문관으로서 미혼모가 영아살해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교회 처벌법의 폐지에 동참하였다. 당시 부재하였던 카를 아우구스트 공작을 대신해 마찬가지로 추밀고문관이었던 슈나우스와 괴테가 절도에 대한 교회참회를 폐지한다는 군주의 훈령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이 둘은 1786년 작센-바이마르-아이제

⁸¹⁾ Bernhard Suphan: Goethe im Conseil. In: Vierteljahrschrift für Literaturgeschichte 6(1893), S. 600. (Ulbricht: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 S. 280에서 재인용.)

나흐에서 교회참회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간주 된다.82)

공공연한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교회참회에 대한 두려움은 영아살해의 주된 동기 중 하나로 꼽힌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영아살해를 예방하기 위해가장 먼저 폐지한 형벌이 교회참회일 정도다.83) 박광자는 당시 공권을 박탈당하고 교회와 가족에게서도 추방되어 결국 매춘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미혼모의 사회적 처우를 설명하면서, 공개참회라는 가혹한 처벌이 영아살해라는 범죄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음을 지적한다.84) 그만큼 교회참회는 바이마르 공국에서 괴테가 추밀고문관으로 역임하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사안 중 하나였다. 괴테가 이 시기에 영아살해 문제에 기여한 기록은 놀랍게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교회참회를 비롯하여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괴테의 입장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1776년 7월 11일부터 1786년까지 약 10년간 추밀고문관으로 역임했던 바이마르 공국에서 해당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괴테의 입장 2: 사형 존치

작센-바이마르 지역에서 영아살해 예방논의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1728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약 30년이 지난 1752년이 되어서야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음행의 죄를 저지른 창녀'가 임신이나 출산사실을 숨기는 경우 영아살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 사실을 아는 주변인들까지 모두 처벌하는 방식으로 영아살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85) 이

⁸²⁾ Vgl. Wahl: "Das Kind in meinem Leib", S. 14. 알토나에서는 1736년부터 교회참회 가 선고되지 않았고, 1746년에 프리드리히 대왕이 교회참회의 폐지를 선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Vgl. Ulbricht: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 S. 282),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에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⁸³⁾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 71.

⁸⁴⁾ 박광자: 『파우스트』의 그레트헨 비극, 12쪽

⁸⁵⁾ Vgl. Flach: Beiträge zum Archivwesen, S. 256. 두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Vgl. Ulbricht: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 S. 282.

러한 흐름에서 교회참회 폐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1762년 후견인으로서 통치의 자리에 있었던 안나 아말리아 공작부인 Anna Amalia von Braunschweig-Wolfenbüttel(1739-1807)가 공개처벌이 오히려 영아살해의 동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회참회를 폐지하고자 한 것이다.86) 유감스럽게도 이때까지는 아직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1777년 9월, 카를 아우구스트 Karl August(1757-1828)의 통치기에 이르러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카를 아우구스트 공작은 추밀원 das Geheime Consilium을 곁에 두고, 괴테를 추밀고문관 Geheimrat으로 임명했다.87) 핀켈른부르크는 공작 주변의만류에도 불구하고 괴테를 임명한 이유가 괴테의 심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공작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88) 군주의 자비는그의 인가권(형사사법 간섭에 대한 승인권) Bestätigungsrecht에서 재확인되는데, 이것은 이른바 "법에 앞선 자비 Gnade vor Recht"라는 정신으로, 형법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범죄자에 대한 가혹한 판결이나 처벌을 완화하여 계몽주의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형벌을 피하게 해주는 가능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89) 인가권은 영아살해 문제에서 주로 사면권 Begnadigungsrecht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카를 아우구스트는 1775년 9월 재위하면서 바로 아말리아 공작부인의 주장에 대해 숙고하였고 결국 1777년 9월 교회참회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0월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지역에서 절도에 대해서는 교회참회가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칙령 Mandat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종교적 처벌 geistliche Strafe'로서 '특수처벌 Sonderstrafe'이었던 교회참회는 근본적으로 오직 혼외임신과 간통 Ehebruch에 대한 처벌로서 남게 되었

⁸⁶⁾ Vgl. Wahl: "Das Kind in meinem Leib", S. 14.

⁸⁷⁾ 카를 아우구스트 공작에게 추밀원은 "하나의 형식적인 관청이라기보다는 군주에게 조언하는 기관 mehr den Charakter eines beratenden Organs des Landesherrn als den einer förmlichen Behörder"에 가까웠고, 추밀원 의원, 즉 추밀고문관 Geheimrat 은 "언제든지 두려움이나 저의 없이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jederzeit freymütig und unpartheyisch ohne Furcht und Nebenabsichten"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Wahl: ebd., S. 4.

⁸⁸⁾ Vgl. Wahl: ebd., S. 227. 이때 공작이 아직 18세였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⁸⁹⁾ Vgl. Flach: Beiträge zum Archivwesen, S. 10.

다.90) 따라서 교회참회의 전면적 폐지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공작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혼외임신과 간통,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범죄로서의 영아살해로 넘어갔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어지는 실제 사례들, 1779년 11월 요한나 퀴벨슈타인 Johanna Dorothea Kübelstein이 바이마르의 대로변에서 혼외자식을 출산한 사건과 1781년 2월 11일 마르가레테 알트바인 Margarethe Dorethea Altwein이 영아살해를 저지른 사건의)이 교회참회 논의를 첨예화한다. 만하임 논문현상은 - 당시 바이마르 공국의 추밀고문관이자 괴테의 친우였던 크리스티안 포이그트 Christian Gottlob Voigt가 참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 이미 바이마르 공국에 알려져 있었고, 그 영향으로 알트바인의 처형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익사형을 선고받았던 알트바인은 공작에 의해 종신형으로 사면되고, 1798년 8월 29일 추방을 조건으로 석방된다.92)

계속해서 첨예화되었던 형법개혁에 대한 문제는 1783년 4월 11일 요한나 흰 Johanna Katharina Höhn의 영아살해 사건에서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통치 하에 있는 다른 공국들과 마찬가지로 바이마르 공국도 카롤리나 법에 따르고 있었고, 따라서 흰의 사형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카를 아우구스트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본보기라는 사형의 최종목적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⁹⁰⁾ Vgl. Wahl: "Das Kind in meinem Leib", S. 20.

⁹¹⁾ 카를 아우구스트의 통치시기에서 최초의 영아살해 사건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에서 알트바인은 처음에는 아이가 죽은 채로 태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직후에 이를 목격한 다른 하녀의 증언으로 진상이 밝혀지자 곧 아이를 부엌벽에 두 번 처서 살해하 였음을 자백하였다.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아이스만 Abraham Eißmann 역시 '음행 Hurerei'을 저지른 죄로 8일간 구금되었으며, 벌금을 물고 1년간 바이마르를 떠나야 했다. 아이스만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간통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Vgl. Habermas u. Hommen: Das Frankfurter Gretchen, S. 28. 여기서 하버마스는 괴테가 공작에게 사면권에 대해 귀띔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괴테가 사형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알트바인이 종신형으로의 사면된 것에 괴테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또한 알트바인이 석방된 것은 괴테가 추밀고문관에서 퇴직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⁹²⁾ Vgl. Flach: Beiträge zum Archivwesen, S. 14-25. 괴테의 매부인 요한 슐로서 또한 만하임 논문현상에 참여한 바 있다. Vgl. Ulbricht: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 S. 267. 이 사실을 통해 괴테가 만하임 논문현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추밀원에 횐의 사형에 대한 소견서 Gutachten를 요구하였다. 이에 추밀고문 관 중 야콥 프리취 Jakob Friedrich von Fritsch와 크리스티안 슈나우스 Christian Freidrich Schnauß는 영아살해범에 대한 사형은 유지하되, 각각의 사안에 따라 사면권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괴테는 10월 25일 의견서 Votum이 아닌 논설 Aufsatz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작에게 보냈고, 이어서 11월 4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93)

제 부족한 논설의 결론은 앞선 심원한 의견서들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와 같은 의견에 모든 점에서 찬성하는 바이며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데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Da das Resultat meines unterthänigst eingerechten Aufsatzes mit beyden vorliegenden gründlichen Votis völlig übereinstimmt, so kann ich um so weniger zweifeln, selbigen in allen Stücken beyzutreten und zu erklären, daß auch nach meiner Meinung räthlicher seyn mögte, die Todtesstrafe beyzubehalten.⁹⁴⁾

여기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은 괴테가 영아살해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체제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횐의 사건으로 유발된 사형 논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횐이 에르푸르트 문 Erfurter Tor 앞의 공개처형장에서 참수되었다는 사실만이 바이마르의 사망자 명부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횐의 공개처형은 사형의 근본적인 목적대로 두려움을 주는 본보기로서 바이마르 주간지 Weimarische Wöchentliche Anzeigen에 실렸다.95)

사형에 대한 괴테의 논설과 요한나 횐의 사형은 앞서 괴테가 『원형 파우스트』나 시 「법정에서」를 통해 영아살해범에 대한 동정심을 일으키고자했던 태도와는 확실히 일치하지 않는다. 군주인 카를 아우구스트 공작이 사형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그보다는 사면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종신형을 더 선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테가 영아살해범에 대한 사형을 유지하자는

⁹³⁾ Vgl. Flach: Beiträge zum Archivwesen, S. 261.

⁹⁴⁾ A.a.o.

⁹⁵⁾ Ebd., S, 262.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은, 『원형 파우스트』에서 그레트헨이 구원의 가능성이 암시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심판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결말에서 이미 읽어낼 수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핀켈른부르크가 지적하듯이 영아살해범에 대한 괴테의 모순적인 태도, 즉 가혹한 처벌을 받는 영아살해범에게 동정심을 가지면서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이 『원형 파우스트』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비판

1) 비극의 원인

괴테가 현실에서 영아살해 논쟁에 기여하고자 실천한 노력들은 작품 『원형 파우스트』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대표적으로 <밤>에서 메피스토의 대사 "그 아이가 처음으로 그런 꼴을 당한 여자는 아닙니다! sie ist die erste nicht!"(UF 183)%는 주잔나의 언니 마리아 쾨니히 Maria Ursula König가 8월 3일 심문에서 했던 말인 "혼외출산은 그다지 말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녀가 그런 일을 당한 첫 번째도, 마지막도 아니죠"97)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었다. 괴테는 이 무감정한 발언에 대한 반발심을 파우스트를 통해폭발하는 감정으로 표출한다.

파우스트: 이 개같은 놈아! 흉측한 괴물아! - 그대 무한한 영이여, 이놈을

⁹⁶⁾ Johann Wolfgang Goethe: Urfaust. Hrsg. Ulrich Gaier, Stuttgart 1989, S. 183. 이 후 『원형 파우스트』의 원문 표기는 해당 도서의 판본으로 인용할 것이며 (**UF** 쪽 수)로 내주 표기한다. 한글 표기는 J. W. 괴테(지명렬 편역): 원형(原形) 파우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을 참조하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인용할 것이다.

⁹⁷⁾ Zit. n. Habermas u. Hommen: Das Frankfurter Gretchen, S. 14: "Uneheliche Geburten waren nämlich nicht ungewöhnlich oder, wie es die Schwester König gegenüber der Brandtin ausdrückte: Eine uneheliche Geburt habe "ja nichts zu sagen", das "sie nicht die erste und auch nicht die letzte" sei, der so etwas passiert sei."

이 버러지 같은 놈을 다시 개의 모습으로 바꿔다오, 이놈은 밤이 되면 자주 개가 되어, 내 앞을 슬금슬금 기어다니면서 우쭐대던 놈이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산책하는 사람의 발 밑으로 뒹굴어가 그가 넘어지면 그의 어깨를 물고 늘어지면서 좋아했던 놈이다. 부탁하건대 이놈을 다시 이놈이 좋아하는 형상으로 바꿔다오, 그러면 이놈이 내 앞에서 모래에 배를 깔고 설설 길 것이고, 내가 이놈을 발로 짓밟겠다, 이 사악한 놈을! - 그 아이가 처음으로 그런 꼴을 당한 여자가 아니라고! - 비통하도다! 비통하도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이 비참한 불행 속으로 깊숙이 빠져드는 사람이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밖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온몸이 뒤틀리는 죽음의 고통을 겪은 최초의 한 사람만으로는 영원한 자도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나에게는 이 단 한 여성의 비참한 꼴이 골수에 사무치고 온몸을 파헤치는 것 같은데, 네놈은 수천 명의 비참한 운명을 태연히 악마의 입을 비죽이며 조소하고 있단 말이냐!

Faust: Hund! abscheuliches Untier! Wandle ihn, du unendlicher Geist, wandle den Wurm wieder in die Hundsgestalt, in der er sich nächtlicher Weile oft gefiel vor mir herzutrotten, dem harmlosen Wandrer vor die Füße zu kollern und dem Umstürzenden sich auf die Schultern zu hängen! Wandl' ihn wieder in seine Lieblingsbildung, daß er vor mir im Sand auf dem Bauch krieche, ich ihn mit Füßen trete, den Verworfnen! - Die erste nicht! - Jammer! Jammer! von keiner Menschenseele zu fassen, daß mehr als ein Geschöpf in die Tiefe dieses Elends sank, daß nicht das erste in seiner windenden Todesnot genugtat für die Schuld aller übrigen vor den Augen des Ewigen. Mir wühlt es Mark und Leben durch, das Elend dieser einzigen, und du grinsest gelassen über das Schicksal von Tausenden hin! (UF 183)

파우스트가 당시 인간성에 반하는 끔찍한 범죄라고 여겨졌던 영아살해를 "비참한 불행"으로, 영아살해범을 "온몸이 뒤틀리는 죽음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은 영아살해를 저지른 여성에 대한 작가의 깊은 측은지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영아살해가 단 한 사람만이 아닌 수천 명한테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비극을 멈추지 못한 사회에 대한 유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괴테는 영아살해죄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중 특히 교회참회의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이러한 작가의 관심이 <우물가에서> 장면에 반영되어 있다.

리스헨: 그런 아이 조금도 딱하게 여길 것 없다 너.

우리 같은 사람은 물레질이나 하고,

밤에도 어머니가 외출을 금하는데,

그 계집애는 애인과 달콤하게 지냈지.

문 밖의 벤치나 어두운 복도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겠지 뭐.

그 계집아이 이번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여,

죄수복을 입고 교회에서 참회나 하게 될걸!

그레트헨: 그 남자는 필경 그 아이를 아내로

맞이해 줄 거야.

리스헨: 그가 바보라면 그렇겠지. 잽싼 젊은 놈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행동의 자유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

실제로 그 자도 도망했대.

그레트헤: 그건 좀 심하다.

리스헨: 만약에 그 계집아이가 그 남자와 결혼한다면, 혼을 내 줘야지.

악동들이 신부 화관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고

우리 처녀들도 집 문 앞에 지푸라기 여물을 뿌려주는 거야! (퇴장.)

Lieschen: Bedauer sie kein Haar

Wenn unser ein's am Spinnen war

Uns Nachts die Mutter nicht n'abe ließ

Stand sie bei ihren Buhlen süß

Auf der Türbank und dem dunkeln Gang

Ward ihnen keine Stund zu lang.

Da mag sie denn sich ducken nun

Im Sünderhemdgen Kirchbuß tun!

Gretchen: Er nimmt sie gewiß zu seiner Frau.

Lieschen: Er wär ein Narr. Ein flinker Jung

Hat anderwärts noch Luft genung.

Er ist auch durch.

Gretchen: Das ist nicht schön.

Lieschen: Kriegt sie ihn solls ihr übel gehn.

Das Kränzel reißen die Buben ihr

Und Häckersel streuen wir vor die Tür! (ab) (UF 177)

여기서 영아살해범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 마을과 교회 전체에서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그 치욕을 지켜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부 화관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거나 "집 문 앞에 지푸라기 여물을 뿌"리는 등 직접 처벌을 실행하기도 했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쓰는 화관은 순결을 상징하는 미루테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외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여성은 관습상 이 화관을 쓰지 못했다. 따라서 화관을 찢는다는 것은 신부가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처벌하는 행위였다. 신부의 집 앞에 지푸라기를 뿌려 놓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지푸라기가 사생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특히 미혼모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더해진다.98)

위의 관행에서 미혼모에 대한 처벌만이 관찰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대 남성 역시 혼외임신의 원인제공자이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임은 언급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영아살해를 조장하는 주된 원인임이 분명한데도, 베르벨의 친구였던 리스헨조차 "행동의 자유"를 포기하고 베르벨과 혼인하는 것이 "바보"라 말하는 점에서 영아살해의 책임을 임신한 여성이 온전히 뒤집어 써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같은 상황에 처한 그레트헨이 베르벨에 대한 동정심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과도한 교회처벌의 악습과 동시에 유혹한 남성은 처벌받지 않았던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괴테는 앞에서 인용한 시 「법정에서」에서 남녀의 혼전 사랑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그것을 문제 삼는 사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미혼모가 영아살해를 저지르는 데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 식과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는 괴테의 견해는 『원형 파우스트』에서도 충분 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베르벨의 행실에 대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으며 그의 혼전임신 소식 역시 발 빠

⁹⁸⁾ 괴테(지명렬 편역): 원형(原形) 파우스트, 166쪽 참조.

르게 퍼져나가는 등, 그레트헨이 살고 있는 마을은 남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마을이다. 이 지점은 작품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웃여자의 집 Nachbarin Haus>에서 마르테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레트헨에게 메피스토는 마음씨 고운 처녀인데 애인이라도 하나 만들라고 말한다. 그때 그레트헨은 거절의 의미로 "그런 짓은 이 고장의 풍습에 맞지 않아요 Das ist des Landes nicht der Brauch (**UF** 162)라고 답한다. 이것은 <정원 Garten> 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마르테: 좀 더 계시라고 붙잡고 싶기는 하지만 여기는 너무나도 나쁜 곳이랍니다. 아무도 달리 소일거리가 달리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웃사람의 일거일동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것밖에는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소문이 나고 말아요.

Marthe: Ich bät euch länger hier zu bleiben
Allein es ist ein gar zu böser Ort.
Es ist als hätte niemand nichts zu treiben
Und nichts zu schaffen,
Als auf des Nachbarn Schritt und Tritt zu gaffen.
Und man kommt ins Gespräch wie man sich immer stellt (UF 170)

그레트헨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세상을 떠나며 상당한 재산을 남겨 주었기에 살림형편은 상대적으로 나쁘지않았지만, 오빠는 군대에 갔기 때문에 남성 보호자가 없고, 어린 누이동생은 죽었다.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는 죽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장의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괴테는 그레트헨의 어머니를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레트헨이 '올바른'길에서 벗어나지않도록 그를 엄한 도덕으로 가르치며 주의 깊게 감독하는 성격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레트헨의 어머니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사실상 부재함으로써 기댈 곳이 없는 그레트헨의 처지가 부각된다.99) 가정 내의

⁹⁹⁾ 바바라 마비 Barbara Mabee는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와 바그너의 『영아살해 범』에서 여성주인공의 어머니가 귀족에게 아첨받길 좋아하는 허영심 많은 '나쁜 어

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레트헨은 더욱더 마을이라는 사회의 질서에 의존하게 되고, 여성의 행실을 감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파우스트와의 부정한혼외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증거가 되는 아이를 없애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레트헨의 죄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성당 Dom>장에서 그레트헨의 귀에 들려오는 합창인 '분노의 날 Dies irae'는 심판의 날이오면 "숨겨진 일 모두 드러나 / 징벌을 면하는 것 하나도 없으리 Quid quid latet adparebit / Nil inultum remanebit"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그레트헨이무엇보다 자신의 죄가 밝혀져 사회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괴테는 샤프 박사의 변호전략과도 같이 그레트헨이 영아살해를 저지르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레트헨이 범죄자가 아닌 희생자라 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한다.

2) 동정의 대상으로서의 그레트헨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의 수많은 영아살해 문학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당시의 현실에서만 유효했다는 한계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원형 파우스트』는 '순문학 Schöne Literatur'으로서 현재까지도 중요하게 언급되 고 있으며, 최종본인 『파우스트 I·Ⅱ』는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명작으로 여겨진다. 이런 판단에는 거장 괴테가 영아살해라는 사회적 문제를 미학적 으로 탁월하게 형상화했다는 사실도 작용할 것이다. 그 예로, 괴테는 슈투름 운트 드랑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비규칙적인 운율'을 작품에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운율을 그 성격에 따라 장면에 맞게 변형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데르팅어의 분석에 의하면. 괴테는 그레트헨의 단순함과 순 진함을 강조하는 장면에서는 민중적인 크니텔 시행을 사용하였고, 그레트헨

머니'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형 파우스트』 속 그레트헨의 어머니는 부재함으로써 비극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고 설명한다. Vgl. Babara Mabee: Die Kindesmörderin in den Fesseln der bürgerlichen Moral: Wagners Evchen und Goethes Gretchen. In: Women in German Yearbook. Bd. 3(1987), S, 29-45. Hier S. 34.

과 파우스트의 애정 어린 대화는 마드리갈 시행으로 썼다. 그리고 작품의 최고조 지점에서는 산문과 자유운이 드라마적 무게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 었다고 한다.100)

작품을 미학화하는 전략들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주요사건이 벌어지는 장면, 특히 그레트헨이 영아살해를 저지르는 구체적인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성당에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한 후 그레트헨의 상황이 직접 언급되는 것은 그녀가 이미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혀 있음을 파우스트가알게 되었을 때다. 그리고 그레트헨의 임신 사실이 <큰 성당 Dom>에서 "그리고 너의 뱃속에서는, / 이미 부풀며 맥박치고 있지 않은가, / 치욕의 낙인이 찍힌 생명이! Und unter deinem Herzen, / Schlägt da nicht quillend schon, Brandschande Malgeburt!"(UF 179)라는 대사로 확증되자마자, 다음 장인 <밤 Nacht>에서 발렌틴의 독백을 통해 그 사실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나갔음이 암시된다. 그레트헨을 "처녀 전체의 자랑거리 die Zier vom ganzen Geschlecht"(UF 181)라 청송하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욕하지만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Könnt ich sie docht nicht Lügner heißen"(UF 181)는 것이다. 바로 이어지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대화에서 그레트헨은 이미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혀 [alls Missetäterin im Kerker"(UF 183) 있다.

그레트헨이 임신하고, 그것이 마을에 소문으로 퍼지고, 그레트헨이 아이를 낳고 또 곧바로 살해하였으며, 그 사실이 발각되어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작품 속에서 최소 10개월은 지나는 동안의 이야기가 아주 빠르게 전개된다. 이렇듯 주요장면들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암시하거나 회상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의 심리적 결과에 무게를 둔다.101) 괴테는 그레트헨의 심리적 상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 변화를 단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갈등을 함께 체험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이 그레트헨에 이입하게 하고, 그레트헨을 정형화된 범죄자가 아닌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버린 불행한 여인으로

¹⁰⁰⁾ Vgl. Dertinger: Mutter, Gattin, Mörderin, S. 202

¹⁰¹⁾ 그레트헨의 영아살해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이후 『파우스트 I』에 '발푸르기스 밤' 장면이 삽입되면서 파우스트의 무관심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뒤에서 살펴보 겠지만, 이 무관심함은 그레트헨을 향한 파우스트의 사랑이 긍정될 수 없는 것, 문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맞닿는다.

느끼게 만들었다. 사회적 관습과 규범을 위반했다는 불안과 공포에 의해 영아살해를 저지르게 되는 과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낸 것이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괴테가 그레트헨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서술 전략을 활용했다는 점과 당시 여성의 행실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회 적 분위기를 비판했다는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레트헨이 자신의 사랑을 긍정하는 것은 당시 시대에서 진보적인 견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레트헨 이 파우스트와 혼전관계를 가지면서도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을 긍정하는 것은, 여성의 혼전순 결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명예와 직결시켰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저항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 로 확인하도록 한다.

그레트헨의 사랑은 순수하고 헌신적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몰랐어요, 무엇이 / 당신에 대한 호감을 여기 이 가슴속에 그리 금방 태동하게 했는지. Gesteh ich's doch! Ich wußte nicht was sich / Zu euerm Vorteil hier zu regen gleich begonnte."(UF 169)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그레트헨은 순진한 소녀라는 이상을 그대로 구현한 듯 꽃점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소박한 모습에 파우스트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 자신을 압도하는 감정에 "소름이 끼쳐요! Mich überläuft's!"(UF 170)라고 말하는 것은 그레트헨의 사랑이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에서 강조된 열정 Leidenschaft의한 형태라는 것을 설명해준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좋으신 분, 벌써 오래 전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Bester Mann schon lange lieb ich dich"(UF 171)라고 사랑을 고백하게 된 그레트헨은 <그레트헨의 작은 방 Gretgens Stube>에서 파우스트에 대한 사랑에 푹 빠진 나머지 마음의 평온을 잃은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다음의 대사에서 그레트헨의 사랑은 정신적인 것만이 아님이 드러난다.

그레트헨: 나의 온몸은, 오 하느님! 그이로 이끌릴 뿐, 아아 그이를 붙잡고 그리고 가슴에 안고 또 키스하였으면 마음껏, 그이와 키스하다 숨 막혀 죽을지라도!

Gretgen: Mein Schoß! Gott! drängt Sich nach ihm hin Ach dürft ich fassen und halten ihn

> Und küssen ihn So wie ich wollt An seinen Küssen Vergehen sollt. (**UF** 172)

앞서 확인했던 "이웃 사람들의 일거일동"(UF 170)을 주시하는 마을의 분 위기는 괴테가 살던 시대에서 그리 특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내재화한 여성이라면 적극적으로 남성과의 사랑, 육체적 합 일을 원하는 것을 스스로 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미덕'은 <우물가에서> 장에서 리스헨이 베르벨헨 을 비난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목도된다. 리스헨은 "그래, 결국 그 계집애는 그렇게 되고 말았어! / "얼마나 그 계집애가 그놈을 따라붙어 다녔다구! Ja so ist's ihr endlich gangen / Wie lang hat's an dem Kerl gehangen!"(UF 177)라고 말하며, 상대남성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던 베르벨헨 이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에 고소해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아주 뻔뻔 해져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 남자의 선물을 받은 거라고. / 애무하고 쪽 쪽 키스하다가. / 그래. 예쁜 꽃은 떨어지고 말았지. War doch so ehrlos sich nicht zu schämen / Geschenke von ihn anzunehmen. / War ein Gekos und ein Geschleck, / Ja da ist dann das Blümgen weg."(UF 177) 이 대사에서 여성은 비록 상대남성이 먼저 호감을 드러내더라도 이를 받아 들여 즐기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레트헤은 여성의 미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모를 리가 없었음에도 파우스트와의 사랑을 부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레트헨이 자신의 주체적인 욕망을 긍정하는 모습 은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라 보아야 한다.

그레트헨: (집으로 돌아가면서.)

평소 같으면 나도 얼마나 세차게 욕설을 퍼부었을지 모르는데, 어느 불쌍한 처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면! 다른 사람의 죄를 책할 때는 아무리 꾸짖어도 충분하지 못했는데! 남의 일이 검게 보이면, 더 검게 칠하곤 했지, 도무지 그 검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는 나의 무고함을 자찬하며 잘난 척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이 속수무책으로

죄악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구나!

그래도 - 나를 죄악으로 몰아댄 것은 모두가,

하느님! 너무나 좋았답니다! 아아, 너무나 사랑스러웠지요!

Gretgen: (heime gehend)

Wie könnt ich sonst so tapfer schmälen Wenn tät ein armes Mägdlein fehlen

Wie könnt ich über andrer Sünden

Nicht Worte gnug der Zunge finden.

Wie schien mirs schwarz und schwärzts noch gar.

Mir nimmer doch nit schwarz gnug war.

Und segnet mich und tat so groß

Und bin nun selbst der Sünde bloß

Doch - alles was mich dazu trieb

Gott! war so gut! ach war so lieb! (UF 177f.)

또한 그레트헤이 사랑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은 슈투름 운 트 드랑에서 전형적인 인간의 갈등양상이라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유혹자 남성과의 사랑을 부정하고 후회하는 다른 영아살해 문학들의 여성주인공과 는 달리, 그레트헨은 '자연과 사회, 열정과 규범, 의무와 욕구'라는 시대의 사상가들이 겪은 갈등102)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즉, 그레트헨은 사랑을 통해 시민도덕의 사슬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

¹⁰²⁾ 본문 9-12쪽 참조.

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흡사 슈투름 운트 드랑 지식인과 유사한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획득한다.

그레트헨은 슈투름 운트 드랑의 시대정신에 걸맞게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충실하여 순수하게 사랑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이렇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레트헨의 사랑이 결혼제도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것을 지탄했다. 괴테는 오히려 사회의 '구시대적인' 시선을 문제 삼았고, 반대로 그레트헨의 사랑을 진보적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레트헨이 부당하게 희생되었다는 괴테의 관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3. 남성 중심 서사의 한계

괴테는 영아살해범들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제도에 찬성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 점을 유의하였을 때, 앞에서 그레트헨을 희생자로 그리기 위해 괴테가 택한 축소 및 삭제 전략은 도리어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 다음 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괴테와는 달리 문제의 장면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 하려 한 바그너는 '경향극'으로서 영아살해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원형 파우스트』는 '그레트헨 비극' 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너무 위대하고 숭고하여 "순수-미학적인 측면" 에 의해 현실이 압도당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103)

특히 영아살해가 일어나는 장면은 그녀가 투옥되었다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되는데 여기서조차 그레트헨의 영아살해 행위보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파우스트의 감정이 조명된다. 술집 장면을 제외하고 줄곧 운율에 맞춰 서술되던 극이 갑자기 산문으로 전환되면서 주목을 끌기 때문이다. 작품은 '자신이 파멸로 몰고 간 여성의 결말을 지켜보는' 남성의 관점, 그레트헨비극을 '체험'하는 파우스트의 관점에서 진행된다. 괴테 연구자들은 괴테의자전적 경험에 주목하여 젊은 날 작가가 프리데리케 브리온을 버리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 및 책임감이 마리아 플린트와 주잔나 브란트의 사건과 결부

¹⁰³⁾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 195.

되어 '그레트헨 비극'으로 승화된 것이라 설명한다.104)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으로 인해 불행에 빠진 여성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시선이 작품에도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인물(플린트, 브란트, 프리데리케 - 그레트헨)이겪는 고통은 그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되는 대신, 그 상황을 건너들은 남성주인공(괴테 - 파우스트)의 정돈된 시적 언어로 축약되어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원형 파우스트』는 근본적으로는 남성의 서사이기 때문에 영아살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두면서 작품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비극의 원인으로서 '사랑'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발견한 '신성한 어머니'라는 표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작품에 '심판 모티프'가 도입됨으로써 그레트헨의 영아살해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과오' 속에 편입되는 문제를 탐구해본다,

1) 사랑 개념의 문제

파우스트는 그레트헨에게 처음부터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느끼지는 않았다. 오히려 파우스트에게 그레트헨은 '학자 비극'에서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 아닌, 즉각적인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기로 한 '만족 프로젝트 Genussprogramm'의 교체 가능한 일부에 다름 아니다.105)

파우스트: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다! 저 아이가 내 가슴 속에 불을 당겼다.

저 아이는 참 암전하고 덕기가 많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쌀쌀맞기도 하다.

입술의 진홍색, 볼의 광택,

평생토록 나는 그것을 잊지 못하리!

그녀가 눈을 숙이고 있는 모습이,

^{104) &}quot;[...] 마음에 받은 여성적인 것의 표상적 인상은 <프랑크푸르트의 그레트헨>에게서 받았고, 자기의 경험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 즉 죄책감을 받은 것은 프리데리케 브리온이고, 이야기의 발전 과정은 마리아 플린트 사건과 브란트 사건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고익환: 그레트헨 비극의 의의 - 파우스트의 구원과 관련해서. 실린 곳: 괴테연구 제2권(1986), 167쪽; 안삼환: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264쪽 참조. 105) Vgl. Dertinger: Mutter, Gattin, Mörderin, S. 203f.

내 가슴속 깊이 새겨져 버렸다. 퉁명스럽게 뿌리치는 그녀의 모습은 황홀하기까지 하다.

Faust: Das ist ein herrlich schönes Kind
Die hat was in mir angezündt
Sie ist so sitt und tugend reich
Und etwas schnippisch doch zugleich
Wie sie die Augen niederschlägt
Hat tief sich in mein Herz geprägt
Wie sie kurz angebunden war
Das ist nun zum Entzücken gar. (UF 152f.)

그레트헨과의 첫만남에서 파우스트는 자신을 뿌리치고 가는 그레트헨의 정숙함과 미덕에 관심을 가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곧 이것은 "입술의 진홍색, 볼의 광택"이라는 육체적 매력에 대한 끌림과 연결된다.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의 미덕에 사랑을 느낀 것인지, 아름다움에 정욕을 느낀 것인지는 이어지는 대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보게, 저 계집아이를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게 해주어야겠네! Hör du mußt mir die Dirne schaffen"(UF 153)이에 메피스토는 "아무 죄도 없 aller Sünden frei"는 저런 "아주 순진한 아이 ein gar unschuldig Ding"에게는 "나도 손을 쓸 수 없다 hab ich keine Gewalt"고 말한다. 악마인 메피스토조차 만류할 정도의 일임에도 파우스트는 "그래도 열네 살은 넘었을 것 Ist über veirzehn Jarh doch alt"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우스트: 제발 도덕적 계율 따위로 나를 성가시게 굴지 말게! 그리고 자네에게 단도직입 한 마디 말해 두겠는데, 만약에 저 귀엽고 어린 아이가 오늘밤에 나의 팔에 안기지 않는다면, 자정에는 우리가 갈라서는 거다.

Faust: Laß er mich mit dem Gesetz in Frieden.
Und das sag ich ihm kurz und gut
Wenn nicht das süße junge Blut
Heut Nacht in meinen Armen ruht,
So sind wir um Mitternacht geschieden.

파우스트: 일주일만 여유가 있다면 악마 따위는 필요 없을 게다 내가 그런 계집아이 하나 유혹하는 데.

Faust: Hätt ich nur sieben Tage Ruh Braucht keinen Teufel nicht dazu So ein Geschöpfgen zu verführen. (UF 153)

'도덕적 계율'과는 상관없이 그레트헨을 취하고자 하는 파우스트의 모습에서 그가 그레트헨을 단순히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줄 도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파우스트가 처음 그레트헨에게 느낀 것은 사랑이 아닌정욕이었던 것이다. 파우스트가 첫만남에서 그레트헨에게 팔짱을 끼고 산책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후 그 자신이 "무례한 짓"이라 사과할 정도로 예의에어굿난 행위였는데, 고익환은 이 행위에 맞지 않은 "아가씨 Fräulein"라는말 또한 그레트헨을 유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106)

이어서 파우스트가 "그렇지 않아도 식욕은 많아 Hab Appetit auch ohne das"(UF 153)라며 "그녀의 가슴을 감싼 스카프 Halstuch von ihrer Brust"(UF 154)라도 얻고자 그레트헨의 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메피스토는 "앞으로의 즐거움을 이것저것 꿈꾸며 / 그녀의 몸 향기 그윽한 방안에서 실컷 An aller Hoffnung künftiger Freuden / In ihren Dunst kreis satt euch weiden" 즐기라고 말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향락을 맛보기 위해 Mich drangs so grade zu genießen"(UF 156) 그 레트헨의 방으로 침입한 파우스트는 깨끗하게 정돈된 방을 보고 갑작스럽게 변화를 맞이한다. 방 안에서 "고요함 Stille", "정돈감 Ordnung", "만족감 Zufriedenheit", "풍족함 Fülle", "행복함 Seligkeit"(UF 155)을 느낀 파우스트는 이 "성스러운 곳 dies Heiligtum"에서의 소박하지만 질서 있는 가정의 역사를 상상하며 "어머니와도 같은 Mütterlich" 그레트헨의 정신 Geist에 감탄한다. 이것은 점점 고조되어 "계집아이"일 뿐이었던 그레트헨은 "신성하게 맑은 직조로 mit heilig reinem Weben" 지어진 "신의 형상 das Götterbild"(UF 156)으로 탈바꿈한다.107)

¹⁰⁶⁾ 고익환: 그레트헨 비극의 의의 - 파우스트의 구원과 관련해서, 168쪽 참조.

그레트헨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 파우스트는 직전까지 그레트헨을 단순히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줄 도구로 보고 있던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순결한 처녀의 방에 마음대로 쳐들어 온 것을 "무례한 짓 Frevel"이라 부르며 반성한다. "너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가? 왜 마음이 무거워지는 가? / 가련한 파우스트여, 나는 너를 알 수가 없구나 Was willst du hie? Was wird das Herz dir schwer? / Armseliger Faust ich kenne dich nicht mehr."(UF 156)

그러나 파우스트는 그레트헨에게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작품에서 메피스토에 의해 직접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당신은, / 강의실에라도 들어가려는 듯 보이는 군요, / 물리학이니 형이상학이니 하는 것이, / 마치 음험한 실체로 나타나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요. Und ihr seht drein / Als solltet ihr in Hörsaal'nein. / Als stünden grau leibhaftig vor euch da / Phisik und Mataphisika."(UF 156)우선 그는 파우스트가 육체적 관능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다가 다시 이전처럼 형체가 없는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을 비웃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사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파우스트는 그레트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고익환은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의 침실에서 "어머니와도 같은 Mütterlich", "신과도 같은 Göttergleich" 그레트헨의 "정신 Geist", 즉 모성과 신성 Gottheit을 발견하고 그레트헨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108)이 지점은 파우스트는 그레트헨이라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트헨이그 안에 일깨워준 감정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수렴된다.

이것을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에게 느끼는 '사랑'이 위선이라고 지적하는 메 피스토의 대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메피스토펠레스: 내일이면, 나리는 온갖 점잔을 빼면서, 가련한 그레트헨을 우롱할 것이고,

¹⁰⁷⁾ 지명렬은 괴테가 외적 청결을 통해 여성의 내면적 순결을 드러내는 방식을 선호하였다고 덧붙인다. 괴테(지명렬 편역): 원형(原形) 파우스트, 158쪽 해설 참조.

¹⁰⁸⁾ 고익환: 그레트헨 비극의 의의 - 파우스트의 구원과 관련해서, 171쪽 참조. 모성적인 여성에 대한 숭배와 사랑은 『젊은 베르터의 고뇌』, 『친화력 Die Wahlverwandtschaften』(1809) 등 괴테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반복되는 소재이다.

또 온갖 마음의 사랑을 그녀에게 맹세하지 않겠어요?

파우스트: 그것도 진정한 사랑을 맹세하겠다!

메피스토펠레스:

좋아요 아름다운 말씀.

그러시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심과 사랑이라든가.

오직 무엇보다도 강한 충동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터인데 -

그런 것도 진심에서 하는 말일까요?

파우스트: 그만해, 진심에서이다! 내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이 감정과 마음의 혼란을

표현해 보려고 그 이름을 찾다 못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세상 끝까지 찾아

헤메다가 드디어 가장 고귀한 말을 찾아내어,

나의 가슴 불태우는 이 열정을,

무한, 영원, 영원이라 부르는 것이,

어찌 악마의 거짓 말장난 따위인가?

메피스토펠레스: 하지만 저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Mephistopheles: Denn morgen wirst in allen Ehren

Das arme Gretgen nicht betören?

Und alle Seelen lieb ihr schwören?

Faust: Und zwar von Herzen.

Mephistopheles:

Gut und schön.

Dann wird von ewger Treu und Liebe!

Von einzig überallmächtigen Triebe -

Wird das auch so von Herzen gehn.

Faust: Laß da, es wird. Wenn ich empfinde

Und dem Gefühl und dem Gewühl

Vergebens Namen such und keine Namen finde.

Und alle höchsten Worte greife,

Und diese Glut von der ich brenne

Unendlich, ewig, ewig nenne

Ist das ein teuflisch Lügenspiel.

Mephistopheles: Ich hab doch recht! (UF 166)

여기서 메피스토는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에게 느끼는 감정이 결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고, 말장난과도 같은 사랑을 맹세하지만 이는 위선에 불과 하며 실상은 본능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작품의 많은 부분에서 메피스토가 파우스트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비아냥거리듯 말하는 것이 목격된다. 그레트헨을 "천사같이 사랑스러운 마음씨의 아이 diese Engels liebe Seele"라 부르며 그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찬양할 때에도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초연한 척 하면서 호색적인 구애자 übersinnlicher, sinnlicher Freier"(**UF** 176)라며 일침을 놓는다.

메피스토가 그레트헨에 대한 파우스트의 태도를 빈번하게 문제 삼는 것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109) 바로 이지점에서 그레트헨 비극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농간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그레트헨과의 첫 만남에서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을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려하자 메피스토가 오히려 이를 만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파우스트와 그레트헨의 관계는 악마의 주선이 아니라 오히려 파우스트의 강행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와 그레트헨의 사이에 개입하기보다는 제삼자로서 파우스트의 잘못된 시각을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 이 지점을 통해 악마의 존재가 영아살해 비극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오히려 그렇게,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에게 휩쓸려 과로를 저지르게 된다는 식으로 보이게 만드는, 파우스트의 '면죄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위에서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을 정욕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천사) 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다음의 인용문에서 파우스트의 사랑이 가지 는 성격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파우스트: 그 아이의 팔에 안겨 느끼는 천상의 환희는 그 무엇일까? 전신을 관통하는 감동과 열기, 이런 것이 이 마음의 고뇌를 떨쳐 버려 줄까? 하! 나는 도망자, 집도 없는 자, 목표도 없고 휴식도 못하는 비인간, 마치 암석 사이를 요란하게 흘러.

¹⁰⁹⁾ 물론 메피스토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악마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겠지 만, 그가 파우스트의 사랑이 문제적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는 것은 파우스트를 만족 시킨다는 작품 속 메피스토의 제1목적과는 어긋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하의 흐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욕망에 미쳐 날뛰듯 절벽으로 떨어져 가는 폭포수 같은 자가 아닐까? 그런데 폭포수 옆에는 그 아이가 천진난만하여 별 생각 없이 알프스의 작은 들판 위에 세워진 오두막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며 조그마한 세계 속에 감싸여 살고 있다. 그런데 나, 이 신의 저주를 받은 자는, 암석을 붙잡아 그것을 때려부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던가! 그 아이와, 그녀의 평온한 생활마저 매장하고 말았다! 지옥아, 네가 이런 제물을 바랐던 거지! 악마여! 나를 도와 이 공포의 시간을 줄여다오, 어차피 면할 길 없는 일이라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 아이의 운명이 내 위를 덮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멸망할지라도!

메피스토펠레스: 또다시 지글지글 끊는군요! 또다시 화끈화끈 달아오르는군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위로나 해 줘요, 이 바보 같은 양반아! 이렇게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죽을 생각부터 한단 말이야.

Faust: Was ist die Himmels Freud in ihren Armen
Das durch erschüttern durcherwarmen?
Verdrängt es diese Seelen Not.
Ha bin ich nicht der Flüchtling, Unbehauster
Der Unmensch ohne Zweck und Ruh
Der wie ein Wassersturz von Fels zu Felsen brauste
Begierig wütend nach dem Abgrund zu
Und seitwärts sie mit kindlich dumpfen Sinnen,
Im Hüttgen auf dem kleinen Alpenfeld
Und all ihr häusliches Beginnen
Umfangen in der kleinen Welt.
Und ich der Gott verhaßte
Hatte nicht gunug
Daß ich die Felsen faßte

Und sie zu Trümern schlug!

Sie! Ihren Frieden mußt ich untergraben, Du Hölle wolltest dieses Opfer haben! Hilf Teufel mir die Zeit der Angst verkürzen, Mag schnell geschehn was muß geschehn. Mag ihr Geschick auf mich zusammen stürzen. Und sie mit mir zu Grunde gehn.

Mephistopheles: Wies wieder brotzelt! wieder glüht!
Geh ein und tröste sie du Tor
Wo so ein Köpfgen keinen Ausgang sieht,
Stellt es sich gleich das Ende vor. (UF 182)

여기서 작품의 주제가 그레트헨의 영아살해 비극이 아니라 파우스트의 인생행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그레트헨인데도 파우스트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에 골똘하고 있다. 오죽하면 메피스토가 그에게 "그녀를 위로나 해"주라고 핀잔을 놓을 지경이다. 스스로를 "폭포수"에 비유하는 것 역시 지금까지 자신이 그레트헨에게 저지른 행위들이 자연의 힘에 휩쓸렸다는 의미로, 파우스트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이에 데르팅어는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의 희생을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말이 아니라, 압도적인 자연법의 인과적결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한다.110)

연구자들 사이에서 파우스트와 그레트헨, 두 인물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원형 파우스트』에서 '사랑'은 긍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감정이 전부"라는 슈투름 운트 드랑의 표어가 『원형 파우스트』에서 출발했다는 점, 그리고 괴테가 이 작품을 발표하기 불과 1년 전에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출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박종소는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의 괴테는 정열 Leidenschaft이 아닌 "어떤 내적 당위성 때문에 행해진 행동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판단을 적용시키지"111) 않으려 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형 파우스트』가 도덕적 결함을 문제 삼는 '도덕비극'을 목표로 한 작품이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절대자아가

¹¹⁰⁾ Vgl. Dertinger: Mutter, Gattin, Mörderin, S. 205f.

¹¹¹⁾ 박종소: 『우어파우스트』에서의 절대자아와 사랑의 상관성.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53권(2011), 62쪽.

사회적 제약에 부딪혀 갈등하는 것이 주축을 이루는 작품이라는 점을 피력한다. 이 작품에서 괴테가 보여준 여성관에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박광자 역시 당시 괴테에게 "감정과 열정은 비록 파멸을 가져올지라도 인습이나 도덕보다 앞서는 것"¹¹²⁾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들은 그레트헨 비극에서 더나아가 『파우스트 제1, 2부』까지 포함하여 전체 작품, 파우스트의 인생행로에서 '사랑'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을 결국 천재에 대비되는, 시대적 관습에 매여 있는 존재를 그린 괴테의 여성관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 먼저 고익환은 파우스트의 "애정 행각은 결코 사랑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연애 체험을 위한 일종의 모험에 불과"113)하다고 진단한다. 이어서 마비는 파우스트의 사랑이 긍정되기 위해 그레트헨의 사랑이 이상화되었다고 주장 한다. 그는 괴테뿐만 아니라 레싱, 바그너에게서 시민여성의 처녀성과 무지 함이 관능적인 매력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의 순결함이 자연을 악 용하는 남성 유혹자를 다시 때 묻지 않은 화해의 상태로 돌려보낸다고 말한 다. 자연에 순종하는 시민여성들의 미덕은 남성의 과오를 인간적인 것,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114) 그들의 존재의의는 남성 유혹자를 인간적으 로 묘사하는 데에 있으므로, 여성인물은 시민도덕의 사슬을 극복할 수 없고, 극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분파에 속하는 연구자들 역시 제2부와의 연 관성 속에서 의견을 강화하기도 한다. 안진태는 그레트헨이 "여성의 숙명적 인 운명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파우스트의 구원을 위한 디딤돌 역할인 대원 녀"가 된다는 점을 들어 성모 마리아나 그레트헨의 "어머니같이 몰아적이며 영원한 사랑이 남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괴테의 사상"115)이라는 견해 를 굳힌다.

파우스트의 사랑을 긍정하는 연구자들은 '파우스트의 인생행로'라는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 반대로 괴테의 여성관을 비판하는 이들은 현실의 영아살 해 문제와 관련하여 '사랑'을 분석하고 있다. 이 두 흐름은 관점이 다를 뿐 각자의 해석적 틀에 따라 정당성을 획득한다. 본고에서는 『파우스트』에

¹¹²⁾ 박광자: 『파우스트』의 그레트헨 비극, 15쪽 참조.

¹¹³⁾ 고익환: 그레트헨 비극의 의의 - 파우스트의 구원과 관련해서, 160쪽.

¹¹⁴⁾ Vgl. Mabee: Die Kindesmörderin in den Fesseln der bürgerlichen Moral, S. 40.

¹¹⁵⁾ 안진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어머니상". 실린 곳: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제 65권(1998), 64-65쪽.

대한 연구가 아닌 영아살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므로 '파우스트가 체험하는 그의 그레트헨 비극'이라는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파우스트는 그레트 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발견한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표상을 숭배한다. 이런 그의 그릇된 '진정한 사랑'은 그레트헨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사랑과 여러모로 대조를 이룬다. 둘의 사랑은 그레트헨에게는 목숨을 그 대가로 내어주어야 했을 만큼 중대한 것이었지만, 파우스트에게는 인생행로의 한 국면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레트헨이 어머니와 오라버니, 그리고 자신의 아기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파우스트는 세 죽음 모두에 자신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그레트헨이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 대부분의 책임을 악마인 메피스토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 '약간의' 죄의식만을 가질뿐이다.

또한 『원형 파우스트』에서 그레트핸은 구원에 대한 그 어떤 확정도 없이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지만,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에 의해 (시내에 아직발렌틴의 죽음에 대한 파우스트의 혐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구출된다. 이지점은 작품의 범위를 『파우스트 I·Ⅱ』로까지 확장시켰을 때 더욱 분명해지는데, 그레트핸이 겪는 일에는 변함이 없지만 파우스트의 구원을 위해그레트핸의 죽음의 의미만이 구원되는 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파우스트는 메피스토에 의해 구출되고 기억을 잃은 채 또다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시작하고, 종래에는 자신이 파멸시킨 그레트핸에 의해 구원된다. 박광자는 "<제1부>에서 그나마 피와 살을 가진 현실 속 인물로 그려져 있던그레트핸은 <제2부>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추상화된다"고 말하면서 그레트핸이 희생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스러움을얻게 된다는 주장을 합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어서 그는 그레트핸이 '여성의 전형'으로서 보여주는 여성성은 "전적으로 남성작가 괴테와 그 시대의산물"이라고 단언한다.116) 이 점에 집중했을 때, 그레트핸의 서사가 파우스트의 구원을 위해 이용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파우스트는 그레트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녀에게서 발견한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표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그의 잘못된 '진정한 사랑'은 그레트헨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에 대

¹¹⁶⁾ 박광자: 『파우스트』의 그레트헨 비극, 20쪽.

한 대조점으로서, 그레트헨이 파우스트의 과오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재확인시키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성모 마리아적인 그레트헨

그레트헨과 성모 마리아의 유사성은 파우스트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잘 못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작품에 활용된 심 판 모티프와 결합되어 보편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전 장에서 파우스트의 남성적 시선에서 그레트헨이 '신성한 어머니'상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관찰하 였다. 여기에서는 그레트헨이 비단 파우스트의 시선 속에서만 성모 마리아 같은 인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처음부터 그레트헨을 성모 마리 아적인 여성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괴테가 성모 마리아를 그레트 헨에 투사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그레트헨의 신앙심이 돋보인다. 첫 만남에서 이미 그레트헨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고해하러 갔던 것이지요 Das eben für nichts zur Beichte ging"(UF 153)라는 메피스토의 대사를 통해 교회의 질서를 완전히 내재화한 모습을 보인다.117) 그의 어머니 역시 독실한 신자로 묘사되는데, 그레트헨이 방에서 발견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석에 대해 "성모님께 바치기로 하자, / 성모님이 만나 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Wollens der Mutter Gottes weihen / Wird uns mit Himmels Mann' erfeuen"(UF 159)라고 말해 신부로부터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생각이시군요! ach christlich so gesinnt!"라는 찬사를 듣게 된다.

또한 그레트헨의 이름은 독일문학의 역사에 '그레트헨 질문

¹¹⁷⁾ 지은 죄가 없음에도 고해하는 그레트헨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정권이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를 분석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 "에밀리아는 참회에서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 에밀리아의 참회의 중심에는 그녀의 자기감정이 경건주의적 감수성의 형태로 자리한다. 이 경건주의적 감수성이 부도덕한 외부세계와의 갈등에서 선과 악의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에밀리아의 참회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잘못의 가능성과 관련되며, 이로써 '홋날에 있을 수 있는 결함의 전제조건'즉 유혹에 빠질 가능성의 전제조건을 속죄하는 것이다." (이정권: 계몽시대 시민의 이상과 종교 관점에서 본 시민처녀의 죽음 -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를 중심으로.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59집(2013), 312쪽.)

Gretchenfrage'이라고 불리는 장면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당신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Wie hast du's mit der Religion?", "당신은 신을 믿나요? Glaubst du an Gott?"(UF 173)라는 질문에 대한 파우스트의 답변에서 슈투름 운트 드랑의 표어 "감정이 전부니까 Gefühl ist alles"(UF 174)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레트헨의 신실함이 더욱 부각되기도 하는데, 순진하면서도 악마와 계약을 맺은 파우스트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에 이어서 메피스토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이 드러나는 것이다. "당신이 함께 다니는 그 사람, / 그가 나는 마음속 깊이깊이 싫어요. Der Mensch den du da bei dir hast / Ist mir in tiefer innrer Seel verhaßt."(UF 174) "평소에 누구에게나 호의적"이었던 그레트헨은 "그 사람앞에 있으면 피가 들끓"는다며 그에게 공포심을 느끼는 한편 그가 악당같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등118) 상당히 구체적으로 메피스토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한다.

그레트헨: 나는 그런 기분에 억눌려,

그자가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면,

당신을 더는 사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또 그자가 있으면, 도무지 기도마저 할 수 없고요.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여보, 하인리히, 필경 당신도 그러시죠.

파우스트: 선천적 혐오감이라는 거야!

Gretgen: Das übermannt mich so sehr

Daß wo er mag zu uns treten,

Mein ich so gar ich liebte dich nicht mehr.

Auch wenn er da ist könnt ich nimmer beten.

Und das frißt mir ins Hert hinein.

Dir Heinrich muß es auch so sein.

Faust: Du hast nun die Antipathie! (UF 175)

118) Gretgen: Seine Gegenwart bewegt mir das Blut

Ich bin sonst allen Menschen gut

Aber wie ich mich sehne dich zu schauen

Hab ich vor den Menschen ein heimlich Grauen.

Und halt ih für einen Schelm dazu.

Gott verzeih mir's wenn ich ihm Unrecht tu. (UF 174)

악마에 대한 그레트헨의 강렬한 거부반응은 신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에서 발원한다. 여기서 그레트헨이 메피스토의 존재 때문에 파우스트를 더는 사 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발 언은 그레트헨의 신앙심이 파우스트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시 사한다. 그레트헨의 사랑이 순수하고 헌신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작 품의 흐름 속에서 이 지점은 더욱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레트헨이 파우스 트의 손길이 아닌 신의 손길을 구한다는 결말에 대한 단초로 제공하기 때문 이다.

마르가레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해! 저 사람을 쫓아 버려요! 저 사람이 나를 잡아가려고 해요! 안 돼요, 안 돼! 신의 심판, 나에게 내리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해 주소서! 결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영원히 안녕! 안녕 하인리히.

파우스트: (그녀를 끌어안으며) 나는 너를 내버리지 않는다!

마르가레테: 그대 거룩하신 천사시여, 나의 영혼을 보호하소서! 당신을 보니 무서워요. 하인리히.

메피스토펠레스: 저 여자는 심판을 받았다!

(그는 파우스트와 함께 사라지고 교도소 문은 덜커덩 소리내며 닫힌다.)

하인리히! 하인리히!

Margarethe: Der! der! Laß ihn schick ihn fort! der will mich! Nein! Nein! Gericht Gottes komm über mich, dein bin ich! rette mich! Nimmer nimmermehr! Auf ewig lebe wohl. Leb wohl Heinrich.

Faust: (sie umfassend) Ich lasse dich nicht!

Margarethe: Ihr heiligen Engel bewahret meine Seele - mir grauts vor dir Heinrich.

Mephistopheles: Sie ist gerichtet!

Er verschwindet mit Faust, die Türe rasselt zu man hört verhallend.

Heinrich! (UF 187f.)

그레트헤은 결말부에서 파우스트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믿음 사이 선

택의 기로에 놓인다. 이미 저울의 추가 후자에 기울어있음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레트헨이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를 거부하며 신과 "거룩하신천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려 하는 선택은 충분한 개연성을 갖춘다. 그러나 그레트헨의 신앙심이 파우스트에 대한 사랑을 압도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작품이 현실의 영아살해 문제에 던지는 메시지를 약화시킨다. 그레트헨이 이토록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원형 파우스트』에서 그레트헨의 구원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아살해범은 대중에게 동정심을 자아낼지언정 신에게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울브리히트가 지적한대로 '살생하지 말라', '약자와 차별받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라'라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가장 비기독교적인행위 중 하나로서 영아살해는 신의 용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확인되는 것이다.119)

그레트헨의 신앙심만큼이나 강조되는 모성 역시 이 인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박광자는 "모성적인 그레트헨이 사회적 인습 때문에 후에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 희곡의 최대 아이러니"120)라고 설명한다. 그레트헨의 '어머니와도 같은 정신'은 파우스트의 입을 통해 수차례부각되지만, 어머니 같은, 성모 같은 그레트헨의 모습과 성격은 여동생이 죽기 전까지 그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하고 돌보았다는 일화(<정원>)에서도 가장 돋보인다.

마르가레테: 그 아이 때문에 많이 애태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고통이라면 다시 한 번 감내하고 싶어요, 그렇게 귀여운 아기였는데.

Margarethe: Ich hatte mit dem Kind wohl meine liebe Not Doch übernähm ich gern noch ein mal alle Plage, So lieb war mir das Kind. (UF 168)

119) Vgl. Ulbricht: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 S. 22.

¹²⁰⁾ 박광자: 『파우스트』의 그레트헨 비극, 10쪽. 중간에 작은 따옴표로 표시된 문장은 저자가 Margaret B. Guenther: Faust: the Tragedy Reexamined. In: Beyond the Eternal Feminine. Critical Essays on Women and German Literature. Hrsg. von Susan L. Cocalis, Kay Goodman. Stuttgart 1982, S. 98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부분이다.

마르가레테: 그래서 아기를 제가 혼자서 키웠지요

물과 우유로,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제 아이가 되었어요.

제가 팔에 안아 주고, 무릎에 앉혀 주면

아기는 좋아라하고 발버둥치면서 자랐지요.

파우스트: 아가씨는 필경 가장 순결한 행복을 느꼈을 거요!

마르가레테: 그렇기는 해도 무척 어려운 때도 많았어요.

밤에는 아기 요람을

저의 침대 옆에 놓아, 아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저는 잠에서 깨었어요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저의 곁에

재워 보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울음을 그치려 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듯 방안에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날이 밝으면 새벽부터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을 보고 취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저씨, 항상 기분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밥맛은 좋았고 잠도 달게 잤어요.

Margarethe: Und so erzog ich's ganz allein

Mit Wasser und mit Milch, und so ward's mein.

Auf meinem Arm, in meinem Schoß

War's freundlich, zappelig und groß.

Faust: Du hast gewiß das reinste Glück empfunden!

Margarethe: Doch auch gewiß gar manche schwere Stunden.

Des Kleinen Wiege stund zu Nacht

An meinem Bett, es durfte kaum sich regen,

War ich erwacht.

Bald mußt ich's tränken, bald es zu mir legen,

Bald, wenn's nicht schweigen wollt, vom Bett aufstehn

Und tänzelnd in der Kammer auf und nieder gehen,

Und früh am Tag schon an dem Waschtrog stehn,

Dann auf dem Markt und an dem Herde sorgen,

Und immer so fort heut und morgen.

Da geht's, mein Herr, nicht immer mutig zu,

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죽은 여동생을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했던, '자연'이 빚어놓은 것 같은 여성이 바로 그레트헨이다. 그레트헨의 모성적 성격은 마지막 장인 <감옥>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인 죄로 감옥에 갇힌 그레트헨은 정신착란 속에 서도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한다고 말한다. "저 아기를 보라고요! 내가 젖을 먹여야 하는데 Sieh das Kind! Muß ich's doch tränken."(UF 185) 그리고 이미 죽었을 것이 분명한 아이가 살아 있다는 환상에 휩싸여 구해달라고 파 우스트에게 간청한다. "저 발버둥치는 아이가 보여요? 저 불쌍한 아이를 구 해 줘요, 아직도 버둥거려요! - 어서 가요! 빨리! 판자다리를 건너, 곧장 숲 속으로 들어가요. 연못가 왼쪽에 판자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어서 가요! 구 해 줘요! 구해 줘! Siehst du's zappeln! Rette den armen Wurm er zappelt noch! - Fort! geschwind! Nur übern Steg, gerad in Wald hinein links am Teich wo die Planke steht. Fort! rette! rette!"(UF 187) 그레트헨의 가련한 요청은 이어지는 파우스트의 대사("구해라! 너 자신을 구해라! Rette! Rette dich!")를 통해 한층 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자신조차 구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아이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지극한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트헨의 모성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가 저지른 영아살해라는 범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오토 울브리히트는 영아살해가 다른 범죄와는 달랐던 이유로 그것이 자연법이라고 여겨지던 모성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조명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죄 없고 무방비한 젖먹이라는 점에서 영아살해는 '흉악죄'로 분류된다.121) '자연이 빚어놓은 여성'인 그레트헨이 가장 비자연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를 저지른다는점에서 그레트헨의 영아살해는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높은 신앙심으로 종교적 순종과 본성적 모성애를 갖춘 그레트헨은 성모 마리아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파우스트를 만나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종교적 순종이 무너지고, 혼외자를 출산하여 그 아이를 죽임 으로써 모성애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남성적 시선, 파우스트-괴테의 시선

¹²¹⁾ Vgl. Ulbricht: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 S. 21f.

에서 그레트헨은 마리아가 되는 것에 실패한 여성일 뿐이다. 그 시선 속에서 영아살해는 비자연적이고 무자비하며 비기독교적이다. 신성한 어머니상이자 구원자적 여성상이었던 그녀가 그 성질과 정반대에 놓인 것을 범했기때문에, 그레트헨은 결국 용서받을 수 없다. 정리하자면 『원형 파우스트』에서 알 수 있는 괴테의 입장은, 영아살해를 저지른 여성은 '심판'을 받게되고, 이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도 대개 구원받으나, 영아살해범만큼은 -그 개인의 깊은 신앙심과 모성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3) 심판 모티프의 의미

죄를 저지른 대가로서의 심판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소박 하고 순진하고 신실한 소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파우스트에게 유혹당해 혼외자식을 임신하고 결국 그 아이를 살해하게 되는 파멸의 과정 속에서 그레트헨은 지상의 법과 하늘(종교). 그리고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된 다. <밤 Nacht> 장에서 그레트헨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파우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아이는 사로잡혀 있구나! 돌이킬 수 없는 곤경 속에! 악령들 손아귀에, 사람을 심판하는 무자비한 인간들의 손에 넘겨졌다! Gefangen! Im unwiederbringlichen Elend bösen Geistern übergeben, und richtenden gefüllosen Menschheit"(UF 183) 이 대사에서 그레트헨이 양심의 심판과 지상의 심판을 받고 있음이 명시된다. 그리고 작 품의 마지막에 그레트헨은 "신의 심판을 나에게 내리소서, 나는 당신의 것 입니다! 나를 구해주소서! Gericht Gottes über mich, dein bin ich! rette mich!"(UF 188)라 외치고, 곧 메피스토펠레스가 "저 여자는 심판을 받았다! Sie ist gerichtet!"(UF 188)라고 말하는 것에서 '신의 심판', 즉 하늘의 심판 역시 작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레트헨은 이 세 가 지 심판 중 그 어떤 것도 회피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끝 까지 책임을 지려 한다. 그레트헨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 개로, 그레트헨이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은 신성하고 숭고하게 묘사되었다.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영아살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심판 Richten'과 '법정 Gerichtshof'의 성격을 알아보자. 철학자 랄프코너스만 Ralf Konersmann은 『철학적 은유 사전 Wörterbuch der philosophischen Metaphern : Studienausgabe』(2014)의 Richten 항목에서 '법정 은유 Gerichtsmetapher'의 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재판소 내지는 사법의 은유법 die richterliche bzw. juridische Metapher'이다. 이는 교조적이고 형이상적인 철학의 형식으로서 전지전능한 신화적, 종교적 신이 가지는 재판관으로서의 모습을 그려내고, 믿음(fides)과 찬양(Genus demonstrativum)을 기반으로 태양이나 빛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는 '수사학적 은유법 die forensiche Metaphorik'122)으로, 비판적인 철학의 형식이며 인간의 비판적 판단능력, 이성(ratio)과 회의(dubium), 계몽의 비판적 수사학을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재판관 은유법'과는 달리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123)

이 분류는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언어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법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적 법정(forum humanum)으로서의 외부 법정(forum externum)과, 양심의 법정(forum conscientiae)으로서의 내부 법정(forum internum)인 것이다."124) 여기서 '외부 법정'이자 '인간적 법정'은 재판소와 같은 국가기관을 지칭한다. 칸트의 동시대인인 요한 에버하르트 Johann Augustus Eberhard(1739-1809)도 같은 내용을 말한 바 있다. "내부법정은 양심 법정(forum conscientiae), 혹은 양심의 재판관석이기도 하고, 또한 양심은 이성에 속하기 때문에 이성 법정(forum rationis), 혹은 이성의 재판관석으로 불린다."125) 일본의 철학자 이시카와 후미야스Ishikawa Fumiyasu(1946-2013)는 칸트의 첫 문장 "법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에서 칸

^{122) &#}x27;Die Forensik'은 법과학이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수사학의 의미에 가까우므로 그렇게 번역하였다.

¹²³⁾ Vgl. Ralf Konersmann(Hrsg.): Wörterbuch der philosophischen Metaphern: Studienausgabe. Darmstadt 2014, S. 315–325.

¹²⁴⁾ Immanuel Kant: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cademie der Wissenschafte(und Nachfolgern), Berlin 1900 Bd. X X VII/2, S. 296. (권이선: ≪윤리(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의 Gewissen의 내부법정은 허구인가? - F. Ishikawa의 '양심법정설' 논의를 중심으로. 실린 곳: 건지인문학 제16집(2016), 38쪽에서 재인용.)

¹²⁵⁾ Johann August Eberhard: Sittenlehre der Vernunft. Berlin 1781, S. 80. (권이선: 같은 곳, 39쪽에서 재인용.)

트가 어느 한 쪽이 근본적이고 다른 하나가 파생적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선후관계 보다는 외부 법정이 말 그대로 '보이는 법정'인 것이며 내부 법정은 '보이지 않는 법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권이선이 설명하고 있듯이 물론 '자율적 양심'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근대에 속하는 개념이지만,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지 양심을 하나의 법정, 내부의 법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키케로,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등의 스토아 철학자들과 구약성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신(하느님)을 입법자이자 재판관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함께 하나의 전통으로서 이어져 왔다.126) 이 점이 이시카와가 주목한 칸트의 논지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앞서 분류된 두 가지 법정,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의 법정과 개인 내부의 양심의 법정에 신과 종교의 법정이 더해져 『원형 파우스트』에서는 총 세가지 형식의 법정이 등장한다. 이점을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영아살해 문제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한다.

『원형 파우스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재판 관(신)에 의한 심판이다. 비판적으로 판단하거나 이성적으로 회의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호하거나 호소할 수 없고, 그저 절대적인 신을 믿고 따르듯 심판의 결과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메피스토펠레스: 나로서도 복수하는 자의 사슬을 풀 수 없고, 그들이 잠가 놓은 빗장을 열 수도 없어요.

Mephistopheles: Ich kann die Bande des Rächers nicht lösen, seine Riegel nicht öffnen. (**UF** 184)

지명렬에 따르면 여기서 "복수하는 자 Rächer"는 재판소의 재판관을 의미한다.127) 메피스토마저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재판관의 심판이 신의 이름으로 내려진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하늘의 심판과지상의 심판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아야 한다.

하늘의 심판과 지상의 심판이 종교적 구원의 상실과 사형이라면, 양심의 심판은 좀 더 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레트헨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고

¹²⁶⁾ 권이선: ≪윤리(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의 Gewissen의 내부법정은 허구인가? , 36-37쪽 참조.

¹²⁷⁾ 괴테(지명렬 편역): 원형(原形) 파우스트, 170-171쪽 참조.

통의 형벌을 내린 것이다. <우물가에서> 장면에서 동네의 처녀들이 미혼모 신세가 된 베르벨을 입을 모아 욕하는 것을 보고 그레트헨은 자신은 더 이 상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한탄한다. 더 이상 자신은 무고하지 않 다는 죄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 죄의식은 자신도 베르벨처럼 비난의 대상 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맹렬한 기세로 성장한다. 다음 장면인 <성벽 안쪽 작은 길>에서 그는 성모에게 자신의 고통을 굽어 살펴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듯하다. 그레트헨이 <큰 성당 Dom> 에서 양심의 가책에 숨통이 짓눌리는 고통을 느끼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 말 이다.

악령 그레트헨아!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의 가슴속에는

무슨 죄업이 숨어 있느냐?

너의 모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느냐,

너로 인해 연옥의 고통 속에

영면하시거늘?

- 그리고 너의 뱃속에서는,

이미 부풀며 맥박치고 있지 않은가

치욕의 낙인이 찍힌 생명이?

그리고 너를 겁주고 그 자신도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은가

현재 벌써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그레트헨: 아! 아!

이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오락가락하며

나를 가책한다!

Böser Geist: Gretgen!

Wo steht dein Kopf?

In deinem Herzen

Welche Missetat?

Betest du für deiner Mutter Seel

Die durch dich sich in die Pein hinüberschlief.

-Und unter deinem Herzen,

Schlägt da nicht quillend schon,

Brandschande Malgeburt¹²⁸⁾! Und ängstet dich und sich Mit ahnde voller Gegenwart.

Grectchen: Weh! Weh!

Wär ich der Gedanken los Die mir rüber und nüber gehn, Wider mich. (**UF** 179)

파우스트에게서 받은 수면 효력이 있는 약을 마신 어머니가 결국 그로 인해 죽어 치르는 장례식장에서, 그레트헨은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혼외자식을 임신했다는 불안·공포 속에서 점점 제정신을 잃어간다. 여기서 악령은 그레트헨을 꾸짖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가책의 영'으로 번역되기도 한다.129) 따라서 악령은 칸트의 양심의 법정에 있어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타자'로 해석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양심이 내부 법정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꾸짖을 수 있는 타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타자'는 내면의 재판관으로 기능한다.130)이렇듯 내면의 타자로 이해될 수 있는 악령이 그레트헨에게 두 심판에 대한공포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양심의 심판이 다른 두 심판을 강조하는기능을 수행하면서, 작품에서 양심의 법정이 '인간의 법정'에 파생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위에서 '악령'이라는 타자의 형태로 드러난 그레트헨의 양심은 <감옥>에

¹²⁸⁾ 지명렬은 "Brandschande Malgeburt"가 "슈트름 운트 드랑 양식의 조어로서 '여러가지 생각의 연합 Gedankenassoziation'이 '말의 합성 Wortkomposition'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혼외자 출생에 대한 공포 속에서 "치욕의 낙인 Schandmal", "치욕당한 자의 이마에 찍힌 화인 Brandmal eines Geschändeten", "낙인이 찍힌 출생 Malgeburt" 등의 관념이 연합되어 합성된 단어라는 것이다. 괴테(지명렬 편역): 원형(原形) 파우스트, 167-168쪽 참조.

¹²⁹⁾ 지명렬은 'Böser Geist'가 실제로 악행을 저지르기 보다는 그레트헨에게 양심의 가책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가책의 영'으로 번역하였다(괴테(지명렬 편역): 같은 책, 167쪽 참조.). 그러나 이 영은 이미 죄책감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레트헨을 더욱더 몰아붙여 결국 영아살해를 저지르도록 일조하기 때문에, 그레트헨의 정신적 혼란에 부채질을 하려는 진짜 '악령'이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중의성을 염두에 두고 원문의 표현을 살려 '악령'으로 번역한다.

¹³⁰⁾ 권이선: ≪윤리(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의 Gewissen의 내부법정은 허구인가?, 36-37쪽 참조.

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 엄마, 탕녀, 그녀가 나를 죽였다! 우리 아빠, 악당, 그가 나를 먹었다! 나의 어린 여동생 나의 뼈를 모아서 시원한 곳에 묻었다 나는 예쁜 숲 새 되어 멀리 멀리 날아간다! Meine Mutter die Hur Die mich umgebracht hat Mein Vater der Schelm Der mich gessen hat Mein Schwesterlein klein Hub auf die Bein An einen kühlen Ort, Da ward ich ein schönes Waldvögelein Flige fort! Fliege fort! (UF 185)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오빠인 발렌틴마저 파우스트와의 결투 끝에 사망하고, 파우스트는 사라져 돌아오지 않는 사이, 그레트헨은 아이를 낳고 살해하여 그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위의 인용문은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이 있는 감옥의 문을 열려고 할 때 들린 노래 소리다. 마치 동화처럼 들리지만¹³¹⁾, 그 내용은 죽은 아이가 그레트헨과 파우스트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노래는 <감옥> 장의 시작에 위치하여 그레트헨이양심의 고통으로 제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르가레테: 우리 어머니를 내가 죽였어요! 우리 아기를 내가 물에 빠져죽게 했어요. 당신의 아기를, 하인리히! 아아, 하느님,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당신의 손, 하인리히! - 그런데 당신의 손이 젖어 있군요 - 손을 씻어요, 제발! 피가 묻어 있어요 - 칼을 칼집에 꽂아요! 내 머리는 돌았어.

¹³¹⁾ 그림형제의 「노간주나무」.

Margarethe: Meine Mutter hab ich umgebracht! Mein Kind hab ich ertränkt. Dein Kind! Heinrich! – Großer Gott im Himmel soll das kein Traum sein! Deine Hand Heinrich! – Sie ist feucht – Wische sie ab ich bitte dich! Es ist Blut dran – Steck · II e den Degen ein! Mein Kopf ist verrückt. (UF 186)

감옥 안의 그레트헨은 자신의 어머니, 오빠, 그리고 직접 낳은 아이까지 자기가 죽이고 말았다는 엄청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제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그레트헨은 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으며,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죗값을 치르는 것을 택한다. 지상에서의 구원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어머니와 오빠, 여동생과 자신의 아이와 함께 묻히기를 소망한다. 양심의 심판은 그레트헨이신의 심판과 지상의 심판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그레트헨이 하늘, 지상, 양심의 세 가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가 아니라 그레트헨의 심리에 조명하는 괴테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레트헨의 안타까운 처지에 이입하도록 도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레트헨이 세 가지 심판, 특히 양심의심판을 받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더욱이 그레트헨이 성모 마리아와도 같은 순진하고 신실한 여성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그가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으로 이해된다. 영아살해가주된 사건으로 인식되는 『원형 파우스트』에 심판 모티프가 도입됨으로써작품은 영아살해범은 심판받게 된다는 인상을 주고, 이것이 괴테의 사형에대한 입장과 겹쳐져 영아살해범에 대한 사형선고를 정당한 것으로 제시하게된다.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최종본 『파우스트 I·Ⅱ』에서 그레트헨이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작품에서 심판이 가지는 의미로 인해 작품이 영아살해 문제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것이다. 최종본에서 파우스트는 온갖 지상의 쾌락을 맛보고 수많은 죄를 범함에도 파우스트의 죄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죄로 이해되면서 그레트헨에 의해구원된다는 '심판'의 결과를 맞는다. 이로써 그레트헨이 『파우스트 I·Ⅱ』에서 성모에 의해 구원되었던 것도 영아살해가 인간의 보편적인 죄로 포섭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그리고 이것은 영아살해라는 죄의 성격을 희석하는 결과를 낳는다. 영아살해가 한 사람의 죄로 나타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바그너가 강조하듯이 영아살해는 영아살해범 개인의 과실로 인해 일어나는 불행이 아니라 주변 환경,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점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괴테가 선구자로서 영아살해범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고무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원형 파우스트』를 남성의 서사로 시작하면서, 그레트헨을 성모와도 같이 모성애와 종교적 순종을 갖춘 인물로 묘사하고, 그럼에도 - 그가 영아살해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체제에 찬성했다는 점과 일치하는 태도로 - 영아살해라는 죄를 저질러 심판받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원형 파우스트』가 현실의 영아살해 논쟁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Ⅲ. H. L. 바그너의 『영아살해범』

하인리히 레오폴트 바그너 Heinrich Leopold Wagner는 1747년 2월 19일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상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법을 공부하던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773년 자브뤼켄으로 이동하여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해당 가정과의 불화, 국가와 귀족에 대한 대담한 발언들로 인해 영주에게 추방을 명령받았고, 1774년 기센을 거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 괴테, 클링거, 클롭슈톡 등 당대의 이름난 작가들과 친분을 쌓게 된다. 1776년 학업을 마치기 위해 슈트라스부르크로 다시 돌아온 바그너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해 9월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살 연상의 미망인과 결혼하였으나 식을 올린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가 사망하고, 이듬해인 1779년 3월 4일, 바그너역시 32세의 젊은 나이로 그 뒤를 따른다.132)

당시의 형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원래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1775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도축업자의 22살의 딸 마리아 소피아 라이폴트가 영아살해로 참수형을 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그해 겨울 6막으로 이루어진비극 『영아살해범 Die Kindermörderin』 133)을 집필하여 1776년 익명으로라이프치히에서 출판하였다. 이 드라마는 영아살해를 저지른 여성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도적인 메시지를 담은 "경향극 Tendenzdrama"이다.134)

¹³²⁾ Vgl. Erich Schmidt: Wagner, Heinrich Leopold. In: Allgemeine Deutsche Biographie. Bd. 40 (1896), S. 502-506. (https://www.deutsche-biographie.de/pnd11862833X. html#adbcontent) (최종검색일: 2022. 08. 01); H. L. Wagner: Die Kindesmörderin. Ein Trauerspiel[1776]. Hrsg. von Dr. Ulfred Möller, Leipzig 1914, S. 3.

^{133) 1776}년 작품의 첫 출판본에 따르면 작품의 원제목은 'Die Kindermörderin'이다. (htt ps://books.google.co.kr/books/about/Die_Kinderm%C3%B6rderin.html?id=7EY7AAAA cAAJ&redir_esc=y 참고.) (최종검색일: 2022. 08. 01)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1914년 Reclam 출판본의 제목은 'Die Kindesmörderin'으로 나와 있고, 본고에서 참고한 출판본인 H. L. Wagner: Die Kindsmörderin. In: Sturm und Drang. Dramatische Schriften. Bd. 2(1963)에는 보이는 바와 같이 'Die Kindsmörderin'이 제목으로 표기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주석에서는 다시 'Die Kindermörderin'으로 나온다. Vgl. ebd., S. 668.)

¹³⁴⁾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 173.

작품은 도축업자인 마르틴 훔브레히트의 집에 한 달째 머무르고 있던 그 뢰닝젝 소위가 훔브레히트 부인과 그 딸 에프헨을 무도회에 데려가면서 시 작된다. 그들에게 사교계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뢰닝젝은 점잖은 식당이라 속인 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매춘술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 훔 브레히트 부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에프헨을 겁탈한다. 별 생각 없이 정욕을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그뢰닝젝은 관계 후 괴로워하는 에프헨의 도 덕성을 보고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 사죄와 보상의 의미로 그녀에게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소령 이하의 군인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당시의 군 인제도 때문에, 그뢰닝젝은 다섯 달 후 소령이 되어 돌아와 약속을 지키겠 다고 굳게 맹세한다. 에프헨이 그뢰닝젝을 믿고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숨기 며 괴로워할 동안, 사정을 듣게 된 그뢰닝젝의 친우 하젠포트 소위는 욕망 해소의 도구일 뿐인 여성에게 사랑을 운운하는 그뢰닝젝을 한심하고 안타깝 게 여긴다. 그래서 그는 친우를 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뢰닝젝인 척 결 혼약속을 무효로 돌리는 내용의 편지를 에프헨과 훔브레히트 부부에게 보내 게 된다. 먼저 편지를 받은 에프헨은 절망 속에 집을 떠나 가난한 마르탄 부인의 집에 머물며 아이를 낳는다. 그러나 에프헨은 곧 마르탄을 통해 하 젠포트의 편지를 받고 전말을 알게 된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분노와 절망으로 인해 광기에 빠져 아이를 살해한다. 마르탄에게 에프 헨의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온 에프헨의 아버지 마르틴과 때마침 아무 것도 모른 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그뢰닝젝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뢰 닝젝과 마르틴, 그리고 에프헨의 사촌인 신학교사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법 을 비판하며 에프헨을 구면할 의지를 불태우는 반면, 에프헨은 목숨을 구걸 할 의지가 없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한다.

바그너의 작품은 에프헨이 영아살해를 저지르게 되기까지, 그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한 아버지 마르틴의 가부장적인 엄격성, 여성을 유혹해 치욕을 입히고 주둔군 변경에 따라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는 (귀족)군인들의 파렴 치한 행태, 여성에게 '정숙한 안주인'이라는 이상화된 여성상을 강요하는 성 도덕의 문제, 영아살해범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형법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바그너 가 작품에서 영아살해의 원인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탐 구할 필요가 있다. 그전에 먼저 작가 바그너와 그의 작품이 영아살해라는 거대한 시대적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시의 수많은 영아살해 문학 중에서도 유독 문제적인 작품이었던 『영아살해범』이 쓰인 배경과 표절 및 개작의 문제, 연극으로 상연되는 과정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바그너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아살해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먼저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 Emilia Galotti』(1772)와의 비교를 통해 바그너가 전형적인시민비극의 성격을 많은 부분 답습하되, 주요지점들을 전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되는 에프헨의 멜랑콜리가 등장인물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것이 시민비극의 동일시 전략에 의해 독자의 멜랑콜리로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그뢰닝젝에 대해 에프헨과 인물들이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바그너가 영아살해범의 남성 파트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사회를 비판하고 있음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마르탄 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바그너가 독자들에게 바라는 현실적인 모습을 작품에서 직접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1. 수용사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은 현재 독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작품 중하나가 되었지만, 불과 백 년 전인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었다. 이 작품은 영아살해라는 불행의 끔찍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사회적으로 지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작가는 유곽에서의 유혹이나영아살해와 같이 당시로서는 상스럽거나 끔찍한 상황들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비난에 맞서 그는 자일러극단 Seylersche Truppe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한 바 있다. "추잡한 관념을 일깨우는 것은, 이를 통해 악덕을 혐오스럽게 만들고 추악하며 역겨운 것으로 묘사할 수 있을 때에만 허락될 수 있다."135) 바그너는

¹³⁵⁾ Zit. n.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 177: "Schumutzige Ideen zu erwecken ist nur dann

독자들로 하여금 영아살해범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도록 설득한다는 확고한 목적을 설정해두었고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비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낱낱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단정치 못한 말이나 행동들이 묘사되는 것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비도덕적인 말과 행동의 제시가 결과적으로 도덕에 기여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이러한 기대와 달리바그너는 작품을 출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휘말렸다. 표절과 선정성, 개작 문제가 그중 대표적이었다. 20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서 작품이 어떻게수용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에 대한 표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바그너보다 먼저 영아살해를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했던 괴테는 자서전 『시와 진실 Dichtung und Wahrheit』 14권에서 바그너가 그레트헨 비극이 라는 자신의 소재를 "가로챘다 wegschnappte"고 표현하며 직접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 그래서 나는 다른 이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바그너]에게도 『파우스트』, 특히 그레트헨 비극에 대한 내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 주제를 손에 쥐고는 『영아살해범』이라는 비극에 이용하였다. 누군가가 내 계획을 가로채버린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내가 그에게 앙심을 품지는 않았지만, 불쾌한 일이었다. 그 후에도 그와 같이 아이디어를 빼앗기거나 누군가 먼저 써버리는 일은 꽤 자주 겪었다 [...].

[...] so erzählte ich ihm wie andern meine Absicht mit »Faust«, besonders die Katastrophe von Gretchen. Er faßte das Sujet auf, und benutzte es für ein Trauerspiel, »Die Kindesmörderin«. Es war das erstemal, daß mir jemand etwas von meinen Vorsätzen wegschnappte; es verdroß mich, ohne daß ich's ihm nachgetragen hätte. Ich habe dergleichen Gedankenraub und Vorwegnahmen [...].136)

erlaubt, wenn man dadurch Mittel gewinnt, das Laster verhaßt zu machen, häßlich und abscheulich zu schildern."

¹³⁶⁾ Erich Trunz(Hrsg.): Goethes Werke.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Bd. 10. Hamburg 1948. (http://www.zeno.org/Literatur/M/Goethe,+Johann+Wolfgang/Autobio graphisches/Aus+meinem+Leben.+Dichtung+und+Wahrheit/Dritter+Teil/Vierzehntes+Buch) (최종검색일: 2022. 08. 01)

바그너가 영아살해, 수면제, 교회에서의 기절 등 괴테와 동일한 소재를 사 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1914년에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을 재출간한 편집 자 울프레트 묄러 Ulfred Möller는 두 작가가 이 소재들을 전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한다. 영아살해와 수면제에 대한 것을 괴테는 다른 인 물의 입을 통해 전해주었고 바그너는 그대로 묘사하였으며, 반대로 교회에 서의 기절 장면을 괴테는 직접 보여주었고 바그너는 전해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같은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 외에 바그너가 괴테의 『원형 파우스 트』를 표절했다고 말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1770-80년 대에 영아살해를 다룬 작품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본이고 표절인지 구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137) 베르너 역시 당시 영 아살해가 얼마나 인기 있는 소재였는지를 설명하며 괴테의 표절의혹과 당시 작품들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상술한 바 있다.138) 또한 프리츠 브라이트하우 프트 Fritz Breithaupt에 따르면 세 작가, 괴테와 바그너, 렌츠는 스트라스부 르크에서 열린 마리아 라이폴트 재판에 참석하였고 이에 영감을 받아 각각 『원형 파우스트』, 『영아살해범』, 『제르빈 혹은 신철학』의 집필을 시작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39) 세 작가의 집필 및 출간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미 루어 볼 때, 바그너가 괴테의 구상을 훔쳤다는 혐의의 증거가 한층 불확실 해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그너의 작품이 영아살해범을 주인공으 로 전면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영아살해를 작품의 주된 사건으로 설정한 슈투 름 운트 드랑 시대 최초의 작품이라는 의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작품 전체의 의의가 제대로 평가되기도 전에, 몇몇의 문제적인 장면들 때문에 작품은 출간 직후부터 쇄도하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시민가정의 모녀가 유곽에서 수면제를 먹게 되거나 접탈을 당하는 장면, 영아살해가일어나는 장면 등의 노골적이고 끔찍한 장면들이 직접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바그너의 전기를 작성한 에리히 슈미트 Erich Schmidt조차 작품을 '상스럽고 거친 리얼리즘'이라 폄하하며 1막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¹³⁷⁾ Vgl. Wagner(1914): Die Kindesmörderin, S. 6. 편집자인 울프레드 묄러 박사 Dr. Ulfred Möller는 같은 시기 영아살해를 다룬 다른 작품들을 비교하며 그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¹³⁸⁾ Cf. Werner: The Unmarried Mother in German Literature, pp. 2-3.

¹³⁹⁾ Cf. Fritz Breithaupt: Anonymous Forces of History: The Case of Infanticide in the Sturm und Drang. In: New German Critique No. 79(2000), p. 167.

단언할 정도였다.¹⁴⁰⁾ 이 1막으로 인해 『영아살해범』을 둘러싼 개작논쟁은 오랜 시간동안 이어졌다.

먼저 작품은 1777년 헝가리의 프레스부르크(지금의 슬로바키아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같은 해 레싱의 남동생인 카를 고트헬프 Karl Gotthhelf Lessing가 이를 개작하여 베를린에서 상연했다. 그는 '상스러운' 1막을 통째로 삭제하고 훔브레히트 가족을 더욱 정숙한시민가정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을 창작하여 덧붙였다. 그 나름대로는 바그너의 의도에 찬성하여, 시민도덕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떨어뜨릴 작품들을 무대로 올리지 않으려는 극장의 사정으로부터 바그너의 작품을 구제하려 한것이었지만, 오히려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141)

그렇지 않아도 1막으로 인해 작품을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극장에 올릴수 없어 고민하던 바그너는 카를 레싱이 멋대로 자신의 작품을 망쳐놓은 것에 분노하여142) 스스로 작품의 상당부분을 고쳐서 1778년에 『에프헨 훔브레히트, 또는 어머니들은 명심하라. 5막으로 구성된 연극 Evchen Humbrecht oder Ihr Mütter merkt's Euch. Ein Schauspiel in fünf Aufzügen』이라는 제목의 개정본을 발표하였고 이듬해 출간하였다. 그는 카를 레싱과 마찬가지로 1막의 유곽장면을 삭제하였고, 기존의 2막이자 새로운 1막에 그 내용을 암시해놓았다. 또한 개정본의 결말부에서는 영아살해가 벌어지지도, 에프헨의 어머니가 자살하지도 않는데, 그뢰닝잭이 제때에 결혼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파국의 절정에 달했을 때 손바닥 뒤집듯 극적인화해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반쯤은 조소하는 어투로 서언을 덧붙여놨을

¹⁴⁰⁾ Vgl. Jürgen Haupt: "Die Kindermörderin". Ein bürgerliches Trauerspiel vom 18.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In: Orbis Litterarum 32(2007), S. 286.

¹⁴¹⁾ Vgl. Wagner(1914): Die Kindesmörderin, S. 9; Haupt: "Die Kindermörderin". Ein bürgerliches Trauerspiel vom 18.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S. 292.

^{142) &}quot;그들은 나의 영아살해범을 베를린에서 불구로 만들었고, 못 쓸 정도로 망쳐놨으며, 오물을 싸놓았다. Meine Kindermörderin haben sie in Berlin verstümmelt, verhunzt, eigenen Koth hineingeschissen." Heinrich Leopold Wagner: Die Kindermörderin. hrsg. von J. U. Fechner. Stuttgart 1969, S. 143f.; Erich Schmidt: Heinrich Leopold Wagner, Goethes Jugendgenosse. Jena 1879, S. 91f. (Haupt: "Die Kindermörderin". Ein bürgerliches Trauerspiel vom 18.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S. 293에서 재인용)

정도로 본연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진 개정본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프랑크푸르트의 자일러 극단에 의해 여러 번 극장에 오르는 등 성공을 거두었다. 위르겐 하우프트 Jürgen Haupt는 이것이 봉건적 전제주의에 대항하고자했던 바그너에게는 거의 예술가로서의 거세를 의미한 성공이었다고 설명한다.143)

1789년에 익명의 저자가 다시 개작을 시도하면서 『수면제, 또는 어머니들이여! 딸들을 더 잘 간수하라. Der Schlaftrunk oder: Mütter! Hütet euere Töchter besser』라는 익살스러운 제목을 달았다.144) 시민비극을 멜로드라마에 가깝게 개작한 것이었으나 이 판본은 1813년까지 극장에서 사랑받았다. 그 후 60년의 시간동안 작품은 독자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극장가에서 사라졌다가 1875년 경 자연주의에 의해 다시 주목받았다. 지나치게 거친 현실주의라는, 이전에는 비난받았던 부분이 자연주의자들에게는 찬사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작품은 바그너의 첫 판본으로 1904년에 베를린과 그라츠의독립극장들에서 다시 상연되었다. 그러나 저명한 독문학자이자 신고전주의자였던 프리드리히 군돌프 Friedrich Gundolf가 작품을 혹평하면서 인기가수그러들었다. 다시 평가절하된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은 1957년 페터 학스 Peter Hacks에 의해 또 한 번 개작되었는데, 학스는 1막을 더 끔찍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에프헨을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해방을 꿈꾸는 여성으로 설정했다. 1965년 상연된 학스의 개정본은 관객들에게 원했던 반응을 이끌어내기는커녕 비웃음만 샀다.145)

약 200년간 지속된 바그너의 작품을 둘러싼 논쟁은 야만성을 이유로 작품을 폄하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뤘다. 위르겐 하우프트는 이것이 미적 비판의 탈을 쓴 도덕적·정치적 비난이었다고 주장한다. 계몽주의 시대의 교양시민계층이 실존하는 외부자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에 대해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숙고하지 않은 채 1막에 묘사된 날것의 현실의 추악함을 외면하

¹⁴³⁾ Vgl. Haupt: "Die Kindermörderin". Ein bürgerliches Trauerspiel vom 18.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S. 293; 300.

¹⁴⁴⁾ Weber: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 S. 89; Maximilian Bergengruen: Das neue Recht und der neue Körper. Wagners Kindermorderin zwischen Anthropologie und Rechtstheorie. In: Die Grenzen des Menschen. Anthropologie und Asthetik um 1800. Hrsg. von Maximilian Bergengruen, Roland Borgards und Johannes Friedrich Lehmann. Wiirzburg 2001, S. 9f.

¹⁴⁵⁾ Vgl. Haupt: ebd., S. 293-298.

고자 바그너를 (군돌프의 표현에 따라) "천박하고 불쾌한 문필가"라고 낙인 찍었다는 것이다.146)

작가에 대한 혹평과 함께 작품도 "바그너가 슈투름 운트 드랑이라는 식품 저장고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섞어서 하나의 드라마적 라구를 만들었다 dieses dramatische Ragout aus Elementen zusammen, die (auch) in den Vorratskammern der Stürmer und Dränger zu finden sind"147)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비난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당시에 영아살해를 다 뤘던 문학작품들 중에서 바그너의 『영아살해범』 만큼 영아살해범이 만들 어지는 사회적 환경들을 다각도에서 다양하게 숙고한 작품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유영희는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바그너가 자신의 고향이자 드라 마의 배경인 슈트라스부르크의 일상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마르 탄 부인이나 파우스트햄머의 대사 등에서 방언이나 계층 특유의 언어들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시대적·지역적 특색을 통해 줄거리의 현 실성을 높임으로써 작가는 당시의 상황을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 다는 것이다. 유영희는 그럼으로써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이 시대적 문제 였던 영아살해 범죄의 사회적 원인과 비극적 현실을 관객들이 직시하도록 해주었고, 사회의 반향을 이끌어내어 영아살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한다.148)

작품을 둘러싼 숱한 마찰과 잡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바그너의 의도대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만하임 논문현상도 이 작품의 영향 하에 작성된 것이다. 『라인지역의 학문논총 Rheinische Beiträge zur Gelehrsamkeit』의 1780년 7월호에 영아살해 예방책을 강구하는 현상공모를건 익명의 저자는 바로 페르디난트 폰 라메잔 Ferdinand von Lamezan이라는 이름의 인물이었다. 그는 만하임에서 1770년부터 행정 고문관으로, 1779년부터는 고등법원 고문관으로 일하면서, 1770년대부터 이미 팔츠 지역의 영아살해에 대한 고문과 사형을 폐지하였고, 선제후인 엘리자베스 아우구스타 Elisabeth Augusta의 후원을 받아 만하임에서 미혼모 등을 위한 산원

¹⁴⁶⁾ Vgl. Haupt: "Die Kindermörderin". Ein bürgerliches Trauerspiel vom 18.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S. 297f.

¹⁴⁷⁾ Ebd., S. 296. 저자에 따르면, 1950-60년대의 필독서였던 『독일문학사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에 이렇게 실려 있었다.

¹⁴⁸⁾ 유영희: 18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난 범죄, 114쪽 참조.

Entbindungshaus을 설립하였다.¹⁴⁹⁾ 이렇듯 영아살해 예방을 위해 이미 오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페르디난트가 바그너의 작품을 읽고 감명을 받아 사비로 100 두카텐을 걸어 만하임 논문현상공모를 열 정도로 바그너의 작품 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¹⁵⁰⁾

본고에서는 바그너가 법, 특히 영아살해범에 대한 형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영아살해의 원인이 되는 군인들의 근본적인 여성혐오, 지나친 가부장제, 모성애 담론 등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적 인식의 폐해와, 이와 얽힌 신분제도, 군인제도, 혼인제도, 형법제도 등 사회제도의 문제적인 측면들을 보여주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바그너가 이렇게 다양한 시점에서 영아살해의 원인을 분석하여 작품으로 형상화했음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비극의 원인

영아살해가 개인의 단순한 '헛디딤 Fehltritt'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참사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던 바그너의 의도대로, 작품에는 수많은 사회적 원인이 명시되어있다. 그중에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뢰닝젝의 강간, 거의 폭군에 가까운 가부장인 마르틴 훔브레히트에 대한 에프헨의 두려움, 하젠포트의 거짓 편지, 어머니의 자살이다. 여기에는 군인들의 여성혐오, 가부장적 시민도덕과 모성에 담론의 폐해, 사회제도의 불합리성 및 법과 사회의 비인간성이라는 사회적 인과관계가 암시되어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바그너의 의도에접근하고자 한다.

1) 군인의 명예와 여성혐오

에프헨의 영아살해 비극은 그뢰닝젝이 홈브레히트 부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에프헨을 겁탈한 사건으로 시작된다. 그뢰닝젝은 홈브레히트 모녀를

¹⁴⁹⁾ Vgl.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 183.

¹⁵⁰⁾ Vgl. Weber: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 S. 80.

무도회 도중에 매춘술집 '노란 십자가'로 몰래 데리고 온 것에 별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그곳의 종업원이자 창부인 마리아넬에게 수면제를 탄 편치 Punsch를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그와 시시덕거리기까지 한다. "군인이 계란빵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군용빵은 먹지 않는 법이지 [W]enn der Soldat Eierweck hat, frißt er kein Kommißbrod"(WK 539)¹⁵¹⁾라며 에 프헨을 계란빵에, 그가 종종 돈을 주고 관계를 가지곤 했던 창부 마리아넬은 군용빵에 비유할 정도로 그뢰닝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성관은 지극히 '반여성적'이었다. 그러나 그뢰닝잭은 곧 강요된 성관계 후 수치스러워하는 에프헨의 미덕에 감탄하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에프헨을 "천사 같은 아이 Engelskind"(WK 548)라 부르거나, "천사를 타락시켰다 einen Engel entheiligt"며 자신의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폰 그뢰닝제: 우리가 놀잇감으로 쓰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평범한 여자였다면 말이지, 그래! 하지만 그녀는 아니야. 자네가 그녀를 봤어야 해. 그 목소리를 들었어야 해. 그 순간에 말야, 향락이 온 다음에 이어지는 그어떤 미인도 역겹게 느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가 어땠는지 자네도 봤어야 해. 그녀가 그 약한 모습에서 얼마나 위대했는지! 나로 인해 그녀가 죄악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 그 미덕이 얼마나 온전했는지! 그리고 나, 내자신은 얼마나 하찮은지! 얼마나, 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네.

v. Gröningseck: Wenn's eins von den Alltagsgeschöpfen wäre, die, wenn wir sie nicht zu unserm Spielwerk brauchten, zu gar nichts nütze sind, ja! – Aber das ist sie nicht: du hättest sie sehn, hören sollen; in dem Augenblick, dem kritischen Augenblick, der unmittelbar auf den Genuß folgt, in dem uns die größte Schönheit anekelt – da hätt'st du sie sehn sollen: – wie groß in ihrer Schwäche! – wie ganz Tugend, auch nachdem ich sie mit dem Laster bekannt gemacht hatte! – und ich, wie klein! wie – o! ich mag gar nicht zurückdenken – (WK 561)

그뢰닝젝이 훔브레히트 부인에게 쓴 수면제를 제공한 장본인이자 "일탈을

¹⁵¹⁾ H. L. Wagner: Die Kindsmörderin. In: Sturm und Drang. Dramatische Schriften. Bd. 2(1963), S. 539. 이후 『영아살해범』의 원문 표기는 해당 도서의 판본으로 인용할 것이며 (**WK** 쪽수)로 내주 표기한다.

함께한 동지 compagnon de débauche"(WK 560)였던 하젠포트는 그뢰닝젝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젠포트는 자신이 경험한 바에 따라 여성의 본성이란 성가시고 탐욕스러우며 간교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그뢰닝젝이 순진하게도 여자의 거짓된 모습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여성에게서 미덕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이라 여긴다.

- **폰 하젠포트**: 단순하든 단순하지 않든! 계집은 계집일 뿐이야! 그 점에 대해서는 가장 경험이 없는 여자도 우리에게 항상 언질을 주는 법이지. 나는 정복당하기를 애타게 바라지 않는 여자는 거의 본 적이 없네. 정복당한 뒤에 악어의 눈물 몇 방울을 흘리지 않는 여자는 아예 본 적이 없고 말이지. 그들의 본성이 이미 그러한 것이야!
- v. Hasenpoth: Simpel oder nicht simpel! ein Weibsbild ist halt ein Weibsbild! und die unerfahrenste gibt uns immer, was den Punkt anbetrifft, noch auf zu raten. Ich hab' wenig Frauenzimmer angetroffen, die nicht sehnlichst wünschten, bestürmt zu werden, und noch die erste zu sehn, die nicht nach der Niederlage ein paar Krokodilstränen geweint hätte. Das ist schon in der Art so! (WK 562)

여성 전체를 폄하하는 하젠포트에 그뢰닝젝은 화를 내며 여성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젠포트라고 설파한다.

- 폰 그뢰닝제: [...] 자네나 자네와 같은 놈들이 그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분별 있는 여성에겐 조금도 중요할 수도 없고 중요해서도 안 되네. 자네들의 찬사는 그들의 오명이고, 자네들의 비난에는 내적인 자긍심이 깃들어 있으니 말일세. 하지만 내겐 관계가 있어. 자네가 앞서자네의 더러운 입에 담은 이름을 가진 소녀는 말이야, 아무 말 말아! 내말을 먼저 들어 보게 자네가 그녀를 더 이상 오인하지 않도록 말이네.
- v. Gröningseck: [...] Einem vernünftigen Frauenzimmer kann und soll zwar wenig daran gelegen sein, ob du und deinesgleichen so oder anders von ihr denken; euer Lob ist Brandmark, und in eurem Tadel ruht innre Selbstgröße - aber mir liegt daran, daß du das Mädchen, dessen Namen du vorhin über deine ungewaschne Lippen gehn ließest kein Wort! hör' mich erst an daß du es nicht länger verkennst: [...]. (WK 562)

그뢰닝젝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에프헨이 혼외임신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der geringste Ersatz"(WK 569)이자 자신이 더럽힌 "명예를 회복할 수단 mögliche Genugtuung"(WK 575)인 결혼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퇴마저 불사하려 한다. 그러나 하젠포트는 그뢰닝젝의비난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따라서 하젠포트는 그뢰닝젝이 "미덕에 대한 과장된 이해 때문에 mit all deinen überspannten Begriffen von Tugend"(WK 570) 정말로 에프헨과 결혼하게 되는 것만은 막기 위해 두 장의 거짓편지¹⁵²⁾를 보내 비극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 비극은 하젠포트라는 인물이 순수한 악인이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친구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신념에 따라 벌인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친구를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게끔 도와주는 친절한 행위가 어째서 비극을 불러일으킨단 말인가? 하젠포트가 그 이유를 직접 제시한다. 바로 군인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폰 하젠포트: 나한테까지 이럴 텐가? 네 동포에게도? 일탈을 함께한 동지에게도? 내 말 좀 들어보게, 형제님! 나는 자네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진짜로 그 계집과 사랑에 빠지는 걸 바라지 않아. 빌어먹을! 그건 연대의식 전체를 거스르는 거라고.

v. Hasenpoth: Doch mit mir nicht? deinem Landsmann? deinem compagnon de débauche? - Hör' mich an, Herr Bruder! ich hoffe doch nicht, daß du die Narrheit so weit getrieben und dich würklich in das Mädchen verliebt hast; das wär' ja, soll mich der Teufel zerreißen! wider allen esprit de corps.(WK 560f.)

하젠포트의 말에 따라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정말로 "연대의식 전체를 거스르는" 거라면, 여성이 그들에게 "놀이감 Spielwerk"(WK 561)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설명된다. 하지만 이것은 곧 군인의 가치관이 반여성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작품에 나타나는 군인적 가치관

¹⁵²⁾ 하젠포트는 그뢰닝젝에게 에프헨에 대한 거짓된 내용을 담은 편지를 하나 더 보내지만, 이 세 번째 편지가 비극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의 근간을 살펴보도록 한다.

하젠포트는 그뢰닝젝 소위와 홈브레히트의 딸의 결합이 불가능한 이유로소위 Leutnant는 혼인할 수 없었던 당시의 군인제도를 짚고 넘어간다. 그뢰닝젝이 그 문제는 자신이 은퇴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하젠포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셈인가? Du willst also allem entsagen?"(WK 570) 이에 그뢰닝젝은 바로 "모든 것, 모든 것을! Allem, allem!"이라고 응수한다. 이들에게 군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삶의 전부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뢰닝젝의 결심에 대한 하젠포트의 부정적인 반응은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행위가 군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군인의 핵심인 명예 개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사: 하지만, 결투는 실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까!

린트슈탈 소령: 금지라? 하! 그까짓 금지는 우리에겐 의미가 없지요! 그 어떤 군인에게도!

Magister: Aber - die Duelle sind ja verboten!

Major: Verboten? - Pah! das Verbot gilt uns nicht! - gilt keinem Kriegsmann! (**WK** 567)

폰 그뢰닝제: [...] 견장을 달고 있는 우리들에겐, 시시비비를 떠나 일단 모욕을 당했다면 오직 두 가지 방법만이 남는 것이오. 목숨을 걸거나 명예를 거는 것 말입니다.

교사: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명예도 모르는 사람이라 불리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의 성실한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사형대와 사형 집행인에게 내미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린트슈탈 소령: 당치 않기는! 말이 되고말고! 명예를 잃느니 죽음을 택하 겠소. 사형대는 명예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드는 것이오. 그 리고 범죄는 강요된 것이라면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이고.

v. Gröningseck: [...] Wir andren *Epaulettes* haben, sobald wir mit Recht oder Unrecht beleidigt werden, nur zwei Wege: entweder müssen wir unser Leben, oder unsre Ehre in die Schanz' schlagen!

Magister: Das ist ja aber ein Widerspruch: Wie! um nicht für ehrlos gehalten zu werden, muß sich ein rechtschaffner Mann der Gefahr aussetzen, seinen Kopf auf dem Schafott dem Scharfrichter

hinzustrecken: - unerhört!

Major: Gar nicht unerhört! gar nicht! Lieber das Leben als die Ehre verloren! - Das Schafott macht nicht unehrlich, sondern das Verbrechen, und ein Verbrechen, wozu man gezwungen wird, ist kein Verbrechen mehr. (**WK** 568)

여기서 군인의 명예는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명예를 잃는 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들의 신념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지나치게 과격한 것이기에 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뢰닝젝은 군인이 아닌 일반 남성들조차도 '진정한 명예'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소, 친애하는 선생! 그런 것이오! 명예로운 남성이 된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은 알지 못할 거요! Ja, mein lieber Magister! so ists! - sie wissen nicht, wie sauer es unser einem oft wird ein ehrlicher Mann zu bleiben!"(WK 568) 따라서 고작 여자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저버릴 것이냐는 하젠포트의 논지는 군인이라는 신분 아래합리화된다.

'겁쟁이 Memme'라는 단어 역시 이 지점을 잘 보여준다. 카타리나 마렌홀 츠 Katharina Mahrenholtz가 독일의 대표적인 사전출판사 두덴 Duden에서 출간한 저서에 따르면,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를 정비하면서 보충한 표현들 중 하나인 'Memme'는 '유아어 Lallwort'이자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하는 중세말 독일어 'Mamme'에서 나온 단어다. 루터는 당시 여성처럼 겁이 많은 남자를 'Memme'라 불렀다고 말한다.153)목숨보다 명예를 우선시하는 군인들에게 위험감수를 망설이는 '겁쟁이' 혹은 '비겁자'란 가장 심한 욕설인 것이다.154)따라서 여성성을 상징하는 신체부위를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

¹⁵³⁾ Vgl. "Mann oder Memme«, fragte man auch im 20. Jahrhundert noch, wenn jemand zögerte, ein Risiko einzugehen." Katharina Mahrenholtz, Dawn Parisi: Luftikus & Tausendsassa: Verliebt in 100 vergessene Wörter. Berlin 2018, S. 73.

¹⁵⁴⁾ 이와 관련해서 런트슈탈 소령의 대사들을 참고한다. "내 생애 절대로 견딜 수 없는 또 하나의 멍청한 단어로군. '수치를 주다'라니! [...] 그런 밥맛 떨어지는 단어들을 쓰는 습관은 버리길 바라오, 제군들! [W]ieder ein andres dummes Wort, das ich mein Lebtag nicht leiden konnt': beschämen! [...] Gewöhnen Sie sich dergleichen abgeschmackte Wörter ab, meine Herren!" (WK 565),

욕스러운 단어인 '겁쟁이'와 연결하는 것은 군인의 명예, 군인의 가치관은 여성혐오를 전제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시가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그너는 이 단어를 오히려 그뢰닝젝의 입을 통해 군인들의 가치관을 비난하는 데 쓰고 있다. 그뢰닝젝은 하젠포트가 에프헨을 포함한 여성 전체의 본성을 폄하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어 자네가 그리 말하는 것을 참아주는 걸 감사히 여기게. 나를 겁쟁이로, 비겁자로 만드는 일이지 Dank's meinem bösen Gewissen, daß ich dir so gedultig zuhöre - das macht mich zur Memme, zum Poltron"(WK 562) 바그너는 그뢰닝젝의 입을 빌려 여성혐오적인 언사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을 오히려 비겁한 행위라고 말하며 '겁쟁이'가 지닌 기존의 의미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당시의 군인의 명예와 여성혐오의 관계를 이해하였을 때, 하젠포트와 (에프헨만을 예외적인 존재로 여기는) 그뢰닝젝의 태도가 두개인의 특수한 성격이 아닌 군인 일반의 것임이 설명된다. 두 군인이 보여주는 여성을 경시하는 태도는 군인의 가치관과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지점에서 하젠포트와의 대조를 통해 그뢰닝젝이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듯하지만, 바그너는 강간범인 그뢰닝젝이 재평가받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영아살해를 에프헨의 멜랑콜리와 부족한 믿음의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책임전가행태("그대가 나를 조금만 더 믿었다면, 그대의 멜랑콜리에 조금만 덜 휘둘렀다면, 조금만 더 미덕에 의지했다면, 아니면 내가 덜 의지했다면 말이지,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오. Es wär's nicht, wenn du mir getraut, deiner Melancholie dich weniger überlassen, etwas mehr an die Tugend geglaubt hättest - oder ich etwas weniger."(WK 605))와, 죗값을 치르고자 하는 에프헨을 무시한 채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 직접 자비를 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뢰닝젝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긍정적인 인물로 이해될 수 없도록 바그너가 설정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2) 시민도덕과 가부장제

그뢰닝젝이 비극의 씨앗을 뿌렸다면, 마르틴 훔브레히트는 그 양분이 된 토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도덕을 엄격히 수호하는 가장으로서 마르틴은 에프헨을 항상 감시하고 통제해왔으며, 잠깐의 자유나 열정 Leidenschaft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2막 첫 부분에서 훔브레히트 부인이 마 르틴에게 "당신은 자식에게 따스히 내리쬐는 햇빛조차 허락하지 않잖아요, 다른 즐길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du gönnst deinem Kind die liebe Sonne nicht, die es beschient, viel weniger ein anders Vergnügen."(WK 548)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마르틴이 에프헨을 지나치게 통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공포정치로 인해 에프헨은 아버지에게 늘 두 려움을 느꼈었다. 그 두려움이 에프헨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의 위기를 가 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도록 침묵시켰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내게는 비수 같다! iedes Wort von ihm wird mir ein Dolchstich sein!"(WK 557)며, 혹시라도 자신이 그뢰닝젝과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눈치 챌까 두려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욱 경계하게 된 것 이다. 에프헨은 "나의 아버지, 그에 대한 두려움 die Furcht vor Ihm, mein Vater"(WK 603)을 영아살해의 계기 중 하나로 직접 언급한다.

아버지 마르틴에 대한 에프헨의 두려움은 다음 장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홈브레히트 부인: 당신은 애한테 늘 그래요. 그러니 애가 당신을 무서워해 도 놀랄 일은 아니죠.

마르틴 홈브레히트: 무서워 해? 나를! 염병할! 내가 아비거늘! 응, 에프헨, 내가 네 아비가 아니더냐? 내가 내 자식과 말하는데 말 하나하나 신중히 고르기라도 해야 한단 말이냐? [망할/제기랄/하느님 맙소사], 그런 건 내가 할 짓이 아니다!

홈브레히트 부인: 바보 같으니! 누가 그리 말해요? 그저 당신 말투가-마르틴 홈브레히트: 내 말투, 내 말투! 그야 당연히 설탕처럼 달지도, 버터 발린 듯 부드럽지도 않고, 우리의 입만 살아있는 신사 분들의 아첨과도 다 르지. 하지만 내 여식은 열일곱, 열여덟 해 동안 이미 적응했을 터! 암만 그래도 나는 내 영혼의 지복으로 야만인이 아니거늘! 이리 오렴, 에프헨, 이리! 착한 아이답게 굴며 네 어미에게 고해하였느냐? 그렇지! 그리 하였지?

에프헨: (당황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홈브레히트 부인: 네, 네, 그리 했어요! 지금은 쉬게 둬요, 다 듣게 될 거에 요.

Frau Humbrecht: Du fährst sie aber auch immer so an; - kein Wunder, wenn sie sich vor dir fürchtet.

Humbrecht: Fürchtet! vor mir! - Tausend Element! bin ich nicht ihr Vater! He, Evchen, bin ich's nicht? Soll ich etwa, wenn ich mit meinem Kind rede, jedes Wort auf die Goldwaage legen? - Das ging mir, hol' mich der Kuckuck, noch ab!

Frau Humbrecht: Närrchen! wer sagt denn das? - nur dein Ton -

Humbrecht: Mein Ton, mein Ton! ist freilich keiner von den zuckersüßen, mit Butter geschmierten, in dem unsre glattzüngichte Herren ihre Komplimenten herkrähen; - meine Tochter, dächt' ich aber, hätt' in siebzehn, achtzehn Jahren, ihn schon gewohnen können! - Ich bin doch auch, bei meiner Seelen Seligkeit, kein Menschenfresser nicht! - Komm her, Evchen, komm! - bist ein guts Mädchen gewesen, hast deiner Mutter gebeichtet? gelt! du hast?

Evchen (verwirrt.) Liebster Vater!

Frau Humbrecht. Ja ja! sie hat; laß sie nur zufrieden jetzt, sollst alles hören. (**WK** 573)

마르틴은 딸이 그를 무서워한다는 훔브레히트 부인의 말 한 마디에 화를 내고, 아내가 말투를 지적하는 것도 견디지 못하며, 오히려 에프헨에게 윽박을 지른다. 6막에서 마르틴을 에프헨에게 데려온 마르탄 부인도 마르틴의 말투를 지적한다. "마치 황소라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군! 에프헨이경기를 일으켜도 놀랄 일은 아니겠어. 말을 좀 곱게 할 순 없는 건가? Tut Er doch, als wenn Er einen Ochsen vor sich hätt'! - Kein Wunder, wenn sie die Gichter bekäm'. - Kann Er nicht ordentlich reden?"(WK 601) 마르틴 훔브레히트는 시민가정의 가장이라고 해도 극단적일 정도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훔브레히트 가문에서 마르틴이 가지는 강대한 권력을 설명하는 한 방식으

로 그의 경제능력을 살펴볼 수 있다. 바바라 마비 Babara Mabee는 하버마스의 주장에 따라 아버지의 권위를 시민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가부장적 질서가 지배적이었던 18세기 시민가정에서 아버지는 '신의대리자'로 여겨졌으며,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윤리에 따라 재산을 축적한 가정일수록 가장의 권위도 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비례하여 아내와 아이들은 더욱 더 가장에게 의존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1750년에서 1790년 사이의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의 이행단계 속에서 가족의 명성은 폭군 같은 가장과 교양 있는 아내로 설명되는 것이다.155) 이를 작품에 적용했을 때『영아살해범』에서 마르틴의 절대적인 권위도 해명되는데, 도축업으로 재산을 축적한 훔브레히트 가문이 귀족군인인 그뢰닝젝과 (병장과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처녀에게 방을 내어주고, 하녀(리셀 Lissel)를 둘 정도로 풍족한집안이기 때문이다.

시민비극에서 아버지는 시민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족 전체의 명예를 대표하고, 마르틴 역시 명예를 삶의 '지고선 summum bonum'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 구조의 취약점은 바로 시민가장의 위엄과 명예가 여성구성원의 순결을 바탕으로 선다는 것이다. 이정권은 가족의 명예와 딸의 처녀성이 가지는 긴밀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민비극에서 가족 전체의 명예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정절과 처녀성에 달려 있었고, 따라서 아버지를 비롯한 남성 구성원의 명예는 딸의 처녀성에 대한 통제와 처분 권한을 통해 정의되었다. 이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여성인물이 '창녀'라 비난받는 것은 전혀 드문일이 아니었다.156)

따라서 딸이 자신의 허락 없이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 인자한 아버지로서의 애정은 절대적인 권력자로서의 난폭함으로 바뀌게 된다. 다른 이들은 모두 한번쯤 가보는, 심지어 성직자인 교사마저 "모든 종류의 오락들 또한 일종의 예배인 것이지요 jede Ergötzung [ist] auch eine Art von Gottesdienst"(WK 550) 라며 옹호하는 무도회 Ball/Karneval에 에프헨이 다녀왔다는 것에 마르틴이 화를 버럭 낸 것도 무도회가 이 문제와 직결되어

¹⁵⁵⁾ Vgl. Mabee: Die Kindesmörderin in den Fesseln der bürgerlichen Moral, S. 33.

¹⁵⁶⁾ Vgl. Jung Kwon Lee: Geschlechterdifferenz und Mutterschaft im bürgerlichen Trauerspiel von Lessing bis Hebbel. Kulturwissenschaftliche Analysen. Trier 2013, S. 75f.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틴 홈브레히트: [...] 고귀하신 신사숙녀분들이나 젊은 귀족 남녀들은 그 고매함에 눈멀어 우리의 하느님께서 점지해주신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지 못해. 그런 그들에게는 무도회가 아주 소소한 향락이 될 테지. 누가 여기에 반대를 하겠는가? 하지만 수공업자나 일개 시민의 딸들은 그런곳에 코빼기도 내밀지 말아야 해. [...] 중산층 계집이 그런 곳에 이끌려 가면, 십중팔구 이끌려 간대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게다.

Humbrecht: [...] für die vornehmen Herren und Damen, Junker und Fräuleins, die vor lauter Vornehmigkeit nicht wissen, wo sie mit des lieben Herrgotts seiner Zeit hinsollen, für die mag es ein ganz artigs Vergnügen seyn; wer hat was darwider? - aber Handwerksweiber, Bürgerstöchter sollen die Nas davon lassen; [...] ein Mädchen vom Mittelstand an solche Orter hinführt, so ist zehn gegen eins zu verwerten, daß er sie nicht wieder nach Haus bringt, wie er sie abgehohlt hat. (WK 551)

그렇기에 무도회에 다녀온 에프헨에게 마르틴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단단히 으름장을 놓는다. "이번에는 넘어가주도록 하마. 하지만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빌어먹을! 단 한번이라도 그런다면, 네 몸의 뼈를 모 두 밟아 조각을 내줄테다. 세 번은 즐기지 못하도록 말이야. Diesmal sollst noch so durchschlupfen; wenn's aber noch einmal geschieht, - Blitz und Donner! nur noch einmal, so tret' ich dir alle Ribben im Leib entzwei, daß dir der Lusten zum drittenmal vergehen soll."(WK 558)

마르틴이 에프헨의 처신을 단속하는 것이 비극의 발생에 일조한다는 것은 그가 뒷방에 사는 여성을 비난하는 장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막에서 무도회 사건 이후 아침이 밝아 에프헨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마르틴은 "창부가 나와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한시도 편히 지낼수 없어. 과연 그것이 제 입으로 밝힐지, 아닐지? 만약 내가 그것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면, 그것의 머리통을 계단 아래로 던져버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구 Keinen Bissen kann ich in Ruhe fressen, solang' die Gurr' noch unter einem Dach mit mir ist; - Wirst's ihr bald ankündigen oder nicht? Wenn ich's ihr selbst sagen muß, so steh' ich nicht dafür, daß ich

sie nicht mit dem Kopf zuerst die Treppe hinunter schmeiß"(WK 557)라고 지독하게 욕을 하며 등장한다. 에프헨은 당연하게도 이것이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고 마르틴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린 채 용서를 빈다. 사실 마르틴은 에프헨이 아니라 훔브레히트 가족의 집 뒷방에 사는 여성이 장교와 혼외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고, 에프헨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이 격하게 비난받고 있음을 알고는 더욱 겁에 질리게된다. "내 딸이 그러고 다녔다면 내 집에 단 한 발짝도 못 디밀게 했을 게다 Meine eigne Tochter litt' ich keine Stund' mehr im Haus, wenn sie sich so weit verging'"(WK 559)라고 엄포를 놓는 아버지 앞에서 에프헨은 더더욱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후 임신 사실이 발각된 에프헨이 가출하여 자취를 감 춘 뒤 마르틴이 현상금을 걸면서까지 사라진 에프헨을 찾으려 하고, 에프헨 을 창녀라 부르면서도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말하는(WK 601)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마르틴의 달라진 모습은 뒤늦은 후회로 발현된 부성 애적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질서를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려는 시민가 장의 발악으로 보아야 한다. 에프헨이 영아살해를 저지른 증거를 발견한 마 르틴이 "저기! 저기에 있는 게 무엇이지? 아기구나! 하! 웃기는군! 네 자식 이라고, 에프헨? 내 자식이기도 한 것을! 나의 후레자식, 오로지 나만의 아 이.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저것이 네 아이라고, 사랑하는 에프헨! 그 놈의 모가지를 부러뜨릴 테다. Da! was ist da? ein Kind! ha! wie's lächelt! dein Kind, Evchen? soll ach meins sein! Mein Bastert, ganz allein mein, wer sagt, daß er dein ist, liebs Evchen! dem will ich das Genick herumdrehn,"(WK 602)라고 말하는 장면 역시 에프헨을 다시 가부장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해야 한다.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것이 되거 나 (남편이 부재할 경우) 아버지의 소유물이 되는 부권적 규범에 따라. 마르 틴은 에프헨과 에프헨이 낳은 아이 모두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 장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네 어미를 때가 되기도 전에 무덤 속에 몰아넣었잖느냐 Hast deine Mutter vor der Zeit ins Grab gebracht"(WK 602)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마르틴은 훔브레히트 부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에프헨에게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르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다시 받아들여 정상

적인 가족의 형태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정상적인 시민 가정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 정숙한 안주인의 이상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에프헨이 영아살해를 저지르게 된 결정적인계기가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다는 것이다. 하젠포트의 거짓편지를 받고집을 나와 마르탄 부인의 집에 얹혀살면서, 몰래 낳은 아이에게 먹일 젖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에프헨은 어쨌든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마르탄 부인을 통해 어머니가바로 자신 때문에 강물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큰 충격에 빠지게된다. "내 어머니가! 죽었다고! - 내 잘못이야! Meine Mutter! gestorben! - und ich schuld dran!"(WK 598) 그녀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지금껏 견디고 있었던 그뢰닝젝에 대한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폭발시켜 결국 자신의 아이를 죽이게 된다. 즉, 어머니의 자살이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에프헨의 멜랑콜리에 기폭제가 된 것이다. 영아살해를 저지른 에프헨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다음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 생각 der Gedanken, meine Mutter gemordet zu haben"(WK 603)이었다.

에프헨이 어머니의 자살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탁선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말하자면 그녀는 일종의 존속살해의 죄에 연루되는 셈인데, 이것은 딸에 대한 어머니의 연대책임이 다시 어머니에 대한 딸의 연대책임으로 순환하는 것을 보여준다. 영아살해로 치닫는 최종적인 내면의 계기가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에프헨에게 아이의 살해는 일종의 자기처벌의 의미를 내포하는 속죄행위임을 시사한다. [...] 이런 식의 절대적 자기처벌의 욕망은 도덕적 죄책감보다는 실존적 수치감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은 어머니에서 딸로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된 시민계급의 여성적 정체성을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157)

¹⁵⁷⁾ 탁선미: 독일근대문학에 나타난 영아살해 판타지, 139쪽.

그러나 정황을 꼼꼼히 따지고 보면 사실상 홈브레히트 부인의 자살에 에 프렌이 기여한 바는 없다. 홈브레히트 부인의 자살에는 총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 홈브레히트 부인 본인의 책임이 있다. 부인이 그뢰닝잭의 희롱을 즐기면서 그가 데리고 온 식당(매춘술집)이나 술(수면제가 든 펀치)을 경계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 지점이 바그너가 개작 시 교체한 제목 "에프헨, 또는 어머니들은 조심하라 Evchen, oder hütet Euch Mütter!"를 통해 더욱부각된다. 두 번째는 그뢰닝잭이 에프헨을 겁탈하여 에프헨이 임신하게 된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면밀히 다룬 바 있다. 마지막은 그뢰닝잭의 강간과 에프헨의 임신에 대해 마르틴이 홈브레히트 부인을 비난한 것이다.

마르틴 홈브레히트: (이를 갈며) [...] 짐승만도 못한 것! 그 목을 내가 비틀어주마 - (아내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피스칼이 그 사이를 막아선다.) 갑자기 모든 게 훤히 보이는구나! 내가 악마에 홀려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 저주받을 무도회! 이 짐승아, 저주받을 짐승아! 네가 네 딸을 창녀로 만들었다!

홈브레히트 부인: (흐느껴 울며) 내가! 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아실 테지요, 저에게는 어미 뱃속의 아이만큼이나 죄가 없다는 것을!

Humbrecht (beißt die Zähn übereinander): Der Herr Beelzebub und seine lebendige Großmutter! - Bestie! den Hals dreh' ich dir um - (Will auf sie los, Fiskal tritt dazwischen.) Jetzt gehn mir auf einmal die Augen auf: hat's mir doch immer vom Teufel geträumt! - Der verfluchte Ball! - Bestie, vermaledeite Bestie! hast deine Tochter zur Hure gemacht! -

Frau Humbrecht (schluchzend): Ich! der allmächtige Gott weiß, daß ich so unschuldig bin als das Kind in Mutterleib. - (WK 591)

물론 명예를 중요시하는 마르틴에게 아내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가족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은 자명하다.하지만 에프헨이 어머니의 자살에 책임을 느낀 것과, 마르틴이 그뢰닝젝이아닌 부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며 지독하게 비난한 것에는 위에서 언급된 "시민계급의 여성적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당시시민계층의 모성적 여성성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에서 아내/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관념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루소의 『에밀 Émile, ou De l'éducation』(1762)이다. 이상적인 시민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해당 저서의 5부에서 그는 교육에 있어서 아내/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도덕과 품성을 갖춘 이상적인 반려자로서 아내는 무엇보다 "정숙한 여성"이어야 한다. 즉, 여성은 "겸손하고자상하며 삼가는 태도를"가져야 하며,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타인들로부터도 자신의 미덕을 보증 받을 필요가 있다"158)는 것이다.

바바라 마비 역시 슈투름 운트 드랑의 시대에서 '정숙한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슈투름 운트 드랑 작가들에게 시민적 도덕이상의 대표자는 시민가장이 아닌 '정숙한 여성'이었다. 교양 있는 여성의 존재는 (여성개인의 해방에 있어서는 방해물이었지만)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시민가정의 사회적 외관을 책임지게 되었고, 종종 폭군처럼 행동하는 아버지보다 새로운 시민도덕에 더 빨리, 더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했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계집에서 결단력이 있고 도덕적이며 교양 있는 여성으로의 역할변화를 통해 '정숙한 여성'은 새로운 시민계층과 그들의 미덕 관념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159)

이제 아내/어머니가 시민가정의 얼굴이 되었기 때문에, 뒷방의 처녀가 장교와 혼외 관계를 가졌고 또 이것이 온 동네에 소문난 것 역시 부인의 책임이 된다. 마르틴은 부인에게 '안주인으로서' '가정의 질서'를 수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가슴 깊이 부끄러운 줄 아시오. 안주인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했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Schäm' dich ins Herzhinein, so eine schlechte Hausmutter zu sein, nicht bessere Ordnung zu halten!"(WK 558) 그러니 딸을 무도회에 데려간 것에 대한 책임, 그로 인해딸이 그뢰닝젝과 혼외관계를 맺게 한 책임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는 마르틴이 부인을 비난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르틴 홈브레히트: 너희에게 도덕과 질서를 따르라고 내 그토록 타일렀 거늘!

Humbrecht: [...] ich hab' euch oft genug von Tugend und Ordnung vorgepredigt! (**WK** 588f.)

¹⁵⁸⁾ 장 자끄 루소(2002): 에밀. 민희식 역, 육문사. 311-312쪽. (탁선미: 독일근대문학에 나타난 영아살해 판타지, 149쪽에서 재인용.)

¹⁵⁹⁾ Vgl. Mabee: Die Kindesmörderin in den Fesseln der bürgerlichen Moral, S. 32.

마르틴 홈브레히트: 무얼 말하고 싶은 게냐? 네 어미가 너를 사창가로 데리고 갔더냐?

리셀: 아이고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불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르틴 홈브레히트: 듣거라, 훔브레히트 여인이여, 듣거라!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다. 네게 자주 불러주고 싶구나.

(훔브레히트 부인은 큰 충격에 빠지고, 무언가 말하려 하다가, 입을 다물고 퇴장한다.)

Humbrecht: Was willst du? hat dich deine Mutter ins Hurenhaus geführt?

Lissel: Ach nein! so gottsvergessen ist sie nicht.

Humbrecht: Hörst's, Frau Humbrechtin! hörst's! – Ein schöns Liedchen! – will dir's noch oft vorsingen.

(Frau Humbrecht schlägt die Händ' über dem Kopf zusammen, will reden, verstummt und geht ab) (**WK** 591)

바그너가 마르틴 훔브레히트를 시민도덕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인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이상적인 시민가정의 아내/어머니'가 아닌 훔브레히트 부인을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작품에서 훔브레히트 부인은 귀족의 유흥문화를 좇고, 스스로 '귀족인 양'행세하는 인물이다. 바로 루소가 『에밀』에서 '정숙한 여성'을 강조하며 비판하고자 한 '가정적'이지 않은 귀족여성의 모습처럼 말이다. 그는 프랑스 사회의 상류층 여성들이 집안을 돌보는 데 힘쓰지 않고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것을 비판하면서, 가정에 늘 머물며 손수 아이를 키우고, 살림살이를 낙으로 여기며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야말로 현모양처 그 자체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하였다.

홈브레히트 부인: [...] 보렴, 에프헨! 이 어미를 봐서라도 그리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지는 말거라. 네 아버지가 그걸 벌써 알아차리고는, 네가 아니라 나 좋자고 무도회에 갔다 온 줄 아시잖니. 네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걸 보시면 내가 꼼짝없이 혼자 감당해야 할 거란다. 그렇지 않겠니, 에프 헨, 착하게 굴거지? 너도 그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Frau Humbrecht: [...] Schau', Evchen! tu's deiner Mutter zu Gefallen, und mach' kein finster Gesciht so: dein Vater hat sich so schon merken lassen, daß er glaubt, ich wär' mehr meintwegen als deintwegen auf den

Ball gegangen; findet er dich nun vollends so niedergeschlagen, so muß ich gewiß alles allein fressen. Nicht wahr, Evchen, du tust mir's zu lieb'? wenn's dir auch nicht drum ist. (WK 556f.)

마르틴은 비극의 시작인 무도회 사건에서부터 홈브레히트 부인이 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인 자신이 귀족문화를 즐기기 위해 갔다고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에프헨이 무도회에 간 것을 나무라며 누구나자기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단순히 처음 집 밖에 나선 어린 딸에게만 한 말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그건 시민계층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Es gehört sich aber nicht für Bürgersleut"(WK 549) 마르틴은시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세를 하려는 아내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틴 홈브레히트: 지체 높은 귀족들에게도 어쨌든 간에 여기 이 도축업 자의 것보다도 큰 양심이 있겠지! 하지만 그들의 지위가 나와 무슨 상관인 가? 나에게도 지위가 있고,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사는 법이야!

Humbrecht: Die [Pesonen vom Stande] mögen meinetwegen auch ein Gewissen haben, das größer ist als die Metzger-au draußen! – Was scheren mich die mitsamt ihrem Stand? – ich hab' auch einen Stand, und jeder bleib' bei dem seinigen! (**WK** 550f.)

과도한 시민도덕의 폐해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인물인 마르틴이 홈브레히트 부인의 시민답지 않은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숙한 여성'이아닌 홈브레히트 부인에 대해 바그너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평생 무도회에 발을 들이지도 않고 즐기지않는 이상적인 시민여성의 모습을 보이던 에프헨이 귀족남성의 단 한 번의개입으로 모성애와 대척점에 있는 영아살해를 저지르게 된다는 점에서, 바그너가 '정숙한 여성'라는 개념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다.

4) 법과 사회의 비인간성

지금까지 군인들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가부장적 시민도덕과 모성애 이데올로기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의식의 문제가 여러 사회제도와 맞물리면서 작품은 점점 건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영아살해에 구조적으로 책임이 있는 군인제도, 혼인제도, 그리고 형법제도가 작품에서 전면에 드러나 비판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소령 Major 이하의 군인들에겐 결혼을 금지하는 군인제도160)가 문제가 된다. 그뢰닝젝은 에프헨을 겁탈한 직후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결혼을 약속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켜졌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 나 그가 아직 소위였던 탓에 약속을 곧바로 이행하지 못하고, 대신 그는 에 프헨에게 소령이 되자마자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 "나는 다섯 달 후에 소령이 되오. 그때 나는 그대와 결혼하여. 공식적으로 그대를 나의 것으로 선언하리다. In fünf Monaten bin ich majorenn, dann führ' ich dich an Altar, erkenne dich öffentlich für die Meine."(WK 547) 당시 소령 이하의 군인들은 가정에 대한 걱정 없이 군인이라는 직업에 전념하도록, 또는 마비 가 설명하듯 하급 군인들의 박봉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161) 독신을 강요당했다.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었던 그들은 정부를 두게 되었고 주둔지가 변경되면 무책임하게 떠나버렸는데, 이것이 당시 영아살해의 핵심 적인 원인들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주둔군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군인들이 주둔지의 시민가정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에 따라 그들의 '정부'가 순진한 시민가정의 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귀족군인이 시민여성을 유혹하고 떠나는 일이 당시의 영아 살해 문학의 가장 흔한 줄거리가 될 정도였다. 1776년에 영아살해를 다룬 『제르빈 또는 신철학』을 출간한 렌츠가 같은 해 『군인들 Die Soldaten』과 「군인의 결혼에 대해 Über die Soldatenehen」를 발표하여 군인들의 독신제를 비난하고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그 폐해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¹⁶⁰⁾ Vgl. Weber: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 S. 78.

¹⁶¹⁾ Vgl. Mabee: Die Kindesmörderin in den Fesseln der bürgerlichen Moral, S. 31.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미혼모와 혼인에 관한 제도다. 위에서 지적했듯 여성이 군인 또는 본인보다 신분이 높은 남성에게 유혹당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 아버지와 결혼하는 것만이 혼전임신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당시 여성의 최고미덕인 '처녀성 Jungfräulichkeit'이란 한번 훼손당한 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여성은 자신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거나 적어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남성이 이 훼손에 책임을 지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뢰닝젝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에도,에프헨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그뢰닝젝의 결혼약속에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바로 그 절망에 빠뜨린 사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은 에프 헨의 자기혐오와 멜랑콜리로 이어진다.

에프헨: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하나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렇겠죠! 그래야 하겠지요. 내 자신이 당신만큼이나 경멸스럽군요, 아니, 당신보다 더! 이보다 더 경멸스러울 수는, 이보다 더 타락할 수는 없을 거예요! [...] 다섯 달이라고, 그리 말씀하셨지요? 좋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치욕을 읽어낼 수 없도록 나 자신을 참고 또 참고 억누르겠어요.

Evchen: Darf ich dir trauen, nach dem, was vorgefallen? – Doch ja! ich muß – ich bin so verächtlich als du, verächtlicher noch! – kann's nicht mehr werden, nicht tiefer sinken! [...] Fünf Monat, sagten Sie! gut! so lang' will ich mich zwingen, mir Gewalt antun, daß man meine Schande mir nicht auf der Stirne lesen soll; [...]"(WK 547)

에프헨이 그뢰닝젝보다 자기 자신이 더 끔찍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뢰닝젝의 신뢰할 수 없는 결혼약속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별도리가 없는 여성의 현실에 절망했기 때문이다. 유영희는 "어느 정도 성숙한 여성의 성적 자아실현에 대한 인간의 권리와, 이러한 자연법적 권리를실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형태는 결혼뿐"162)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의 미혼모와 혼인에 관한 제도를 비판한다.

또한 6막에서 마르탄 부인이 에프헨에게 들려주는 모친살해범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하다. 얼마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에서 창녀였던

¹⁶²⁾ 유영희: 18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난 범죄, 116쪽.

어머니가 유곽에서 낳아 기른 사생아가 커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며칠 뒤 자살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프헨은 스스로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과, 나아가 자신의 자식이 사생아로 자라 암울한 미래를 겪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점점 이성을 잃게 된다. 바그너의 작품에서 사생아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것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가 1794년 프로이센 보통법에 미혼모와 사생아의 법적·경제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법규를 포함시키면서 영아살해 범죄가 감소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¹⁶³, 당시 제도적 차원에서 사생아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실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바그너 역시 이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군인제도와 혼인제도는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인물들의 대사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반 면 영아살해범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형을 내리는 형사 당국에 대한 비판은 극의 마지막에서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폰 그뢰닝제: (교사 앞에 다시 나서며) 그 비열한, 비겁한 배신자! 이제는 믿으시겠소, 선생, 때로는 제 손으로 보복하는 것이 의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교사는 어깨를 으쓱인다.) 그 괴물들,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일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하젠포트 같은 이들을 마땅히 처벌하는 나라는 도대체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 어떻게 해야 이 울분이 풀릴지! 그가 흘린 피 위에 뒹굴 때 얼마나 큰 환희가 가슴 깊이 차오를지!

교사: 범죄를 범죄로 갚는 것보다는 이 배신당한 불쌍한 이를 사형대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더 인간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피스칼: 그래, 어떻게 구할 것이오! 영아살해범들은 모두 참수형을 받게 되는 법, 벌써 수년간 예외는 없었소.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인 것은 분명하니, 괜한 수고 마시오.

폰 그뢰닝잭: 그대의 그 형법전마냥 감정 없는 성격은 제쳐두시지요, 나리! 저는 이 길로 즉시 베르사유로 떠나, 법을 제정하는 그 전권에 직접 에프 헨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요구하겠소, 아니면-

에프헨: 나에게 자비를! 그뢰닝젝!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백번 죽어 마땅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¹⁶³⁾ Vgl. Michalik: Vom ≫Kindsmord≪ zur Kindstötung, S. 48.

피스칼: 머리를 식히시오, 소령! 물론! 많은 것들이 상황에 달려 있소!

v. Gröningseck (stellt sich wieder zum Magister): Der niederträchtige, feige Verräter! - Glauben sie jetzt bald, Magister, daß es Fälle gibt, wo Selbstrache zur Pflicht wird? - (Magister zuckt die Schultern.) Wo ist der Staat, in dem solche Ungeheuer, solche Hasenpoths, die unter der Larve der Freundschaft ganze Familien unglücklich machen, nach Verdienst bestraft werden? - Ha! wie will ich mir wohl tun! mit welcher Herzenswonne will ich mich in seinem Blut herumwälzen! -

Magister: Es wäre menschlicher, glaub' ich, wenn Sie darauf bedacht wären, diese arme Betrogne vom Schavott zu retten, als Verbrechen mit Verbrechen zu häufen.

Fiskal: Ja, da rettet sich was! - Das Gesetz, welches die Kindermörderinnen zum Schwert verdammt, ist deutlich, und hat seit vielen Jahren keine Exzeption gelitten; ist nun das Faktum, wie es der Anschein gibt, auch klar, so können sie die Müh' sparen.

v. Gröningseck: Und Ihnen nebst Ihrer ganzen kriminalischen Unfühlbarkeit zum Trotz, mein Herr! will ich mich heut noch auf den Weg nach Versailles machen, bei der gesetzgebenden Macht selbst Gnade für sie auszuwürken, oder –

Evchen: Gnade für mich! Gröningseck! wo denken Sie hin? – soll ich zehntausend Tode sterben! – lieber heut als morgen!

Fiskal: Nun halb so hitzig, Herr Leutnant! freilich! es kommt vieles auf die Unstände an! - (**WK** 604f.)

3막의 군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에게 결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역설한 교사에게(WK 567), 그뢰닝잭은 형법과 그 집행기관으로서 국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구권 Faustrecht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교사는 당장 하젠포트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에프헨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피스칼은 "영아살해범들은 모두 참수형을 받게 되는법"이라며 에프헨을 구면할 방법은 없다고 일갈한다. 실제로 당시 프로이센에서 참수형을 당한 범죄자 중 절반이 영아살해범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아살해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피스칼의 발언대로 영아살해범들이 "예외 없이" 처형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범죄를 저지른 에프헨을 "사형대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더 인간적"인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뢰닝젝이 피스칼을 "형법전마냥 감정 없는 성격"이라 비난하는 것은 형법의 비인간성을 주장하는 바그너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그너는 영아살해범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채 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당시의 형법제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스칼이 그뢰닝젝에게 "물론 많은 것들이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영아살해범들은 "예외 없이" 처벌당한다고 말했던 것과 모순되는 발언으로, 공권력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있다.

그뢰닝젝이 에프헨의 사면을 위해 베르사유로 떠난다고 말하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극의 배경이 18세기 후반의 슈트라스부르크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여기서 베르사유는 루이 16세를 지칭하는 것이다. 변방에 위치한 마 을에서 일어난 소규모 범죄의 해결을 위해 왕을 알현한다는 것은 피스칼이 완곡하게 돌려 말하듯 지나치게 '머리가 뜨거운' 일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작품 내적인 논리가 아닌 작품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바 그너가 작품을 집필하게 된 계기인 영아살해범 마리아 라이폴트는 1775년 11월 임신은폐와 영아살해죄로 참수형을 선고받아 구금되지만, 1776년 1월 루이 16세에게 종신형으로 감형 받았다. 『영아살해범』이 같은 해 7월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바그너는 마리아의 감형사실을 알 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뢰닝젝이 베르사유로 간다는 것은 바로 왕이 영아살해범에게 자비를 베푼 일이 실제로 있어났다는 것에 대한 암시 이며, '감정 없이 차가운 형법전'이 아닌 감정이 있는 왕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자조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독자들 역시 감정이 있는 사 람으로서 현실의 영아살해범들에게 동정심을 가져달라는 바그너의 호소로도 읽을 수 있다.

3. 영아살해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바그너는 『영아살해범』에서 영아살해라는 범죄가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영아살해의 다양한 원인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아살해와 관련된 여러 담론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

우선 독자들에게 영아살해범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했던 바그너는 시민비극의 형식을 빌리면서도 시민비극의 전형적인 틀을 전복시켜 시민도 덕의 폐해를 가시화한다. 이는 시민비극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와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바그너는 멜랑콜리 담론을 활용하여 여성의 멜랑콜리를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려는 남성적시선을 비판한다. 그리고 비극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인물인 그뢰닝젝에 대한 에프헨과 다른 인물들의 상반된 평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 영아살해에 있어서 유혹자 남성 Verführer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사회를 비난한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영아살해범에 대한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을 마르탄 부인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관객들에게 직접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1) 시민비극

독자들에게 영아살해범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했던 바그너는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 독자층인 시민계층을 자극하고자 시민비극의 형식을 이용했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던 슈트라스부르크의 관객들이 가까운 현실이라 느낄 수 있도록 방언 등의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는 언어를 활용하는 등, 시민비극의 대표적 작가인 레싱이 강조했던 동정심의 전제로서의 동일시 전략을 따랐다. 하지만 시민비극의 외관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그 핵심을 전복시키고 있다. 이를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와 비교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독일 시민비극의 첫 작품이자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는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이 출간되기 4년 전인 1772년에 등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그너의 작품을 둘러싼 200년간의 논쟁이 무색할 만큼 그 전개가 파격적인 『에밀리아 갈로티』는 가히 18세기 최고의 문제작이라 불릴만하다. 두 작품은 당시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 순수창작이라기보다는 소재를 취한 배경이 있다는 점(각각 비르기니아 전설과 마리아 라이폴트 등의 실제 사건들)에서 이미 충분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는 그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아살해범』에서

에프헨이 군인 장교에게 치욕을 당하고 그 결과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면, 『에밀리아 갈로티』에서 에밀리아는 영주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손으로 죽음을 맞는다. 즉, 신분갈등과 '근친살해 parricidium', 그리고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의 명예를 그 주제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신분 갈등이 일어나는 계기와 과정이 매우 흡사한데, 레싱의 작품에서 궁정사회에 속하는 영주 마리넬리가 시민가정의 사적인 영역에 침입하여 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처럼¹⁶⁴⁾, 귀족인 그뢰닝잭이 주둔지 이동을 통해 홈브레히트 집안에 숙박하게 됨으로써 시민가정이 비극에 가까워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간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작품이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결코 같은 선상에서 다뤄질 수 없다. 큰 부분에서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싱의 작품이 주인공 에밀리아를 이상적인 시민여성의 전형으로 그려놓았으며 시민도덕의 숭고함을 찬송하고 있다면, 바그너는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시민도덕을 그 폐해를보여줌으로써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친살해라는 공통주제에 대해서도 태도가 갈리는데, 오도아르도가 광기에 빠져 에밀리아를살해하는 것은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는 위대한 행위지만, 에프헨이 정신 착란의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 작가가 그 감형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두 작가의 시민도덕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먼저 시민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차이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다. 레싱의 작품에서 시민은 근대화된 자유롭고 도덕적인 개인으로 자율성과 존엄성의 가치를 역설한다. 이상적인 시민의 현현과도 같은 오도아르도와 에밀리아가 귀족들에 의해 야기된 불행과고통을 겪으면서도 도덕과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은 관객에게 동정심을 일으킨다. 반면 바그너의 작품에서 시민계층을 대표하는 홈브레히트 부부는 부정적인 인물들로 묘사된다. 특히 마르틴 홈브레히트는 도덕적인 면모보다는 엄격한 도덕을 강요하고 감정과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인모습을 보이기에 관객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막시밀리안 베르겐그루엔 Maximilian Bergengruen에 의하면 그는 전근대적, '전시민적 vorbürgerlich' 법이해에 따라 행동한다. 그는 이제 시민사회의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정 내 자구권 Faustrecht이 유

¹⁶⁴⁾ 이정권: 계몽시대 시민의 이상과 종교 관점에서 본 시민처녀의 죽음, 307쪽 참조.

효하다고 여긴다. 이전에 구걸하는 거지아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팬 순경 파우스트함머를 폭력을 통해 응징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아직 전근대적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bellum omnium contra omnes' 상태에 있는 것을 알수 있다.165) 법으로 금지된 결투를 옹호하는 군인이자 귀족인 그뢰닝젝이 이러한 전근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이지만, 시민도덕을 수호하는 마르틴 훔브레히트가 같은 모습을 모이는 것은 시민계층에 대한 레싱의 이해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훔브레히트 부인은시민가정의 '정숙한 여주인 sittsame Hausfrau'과는 달리, 무도회 등 귀족의유흥문화를 향유하고자 하고 그뢰닝젝의 희롱을 즐기는 등 '귀족인 양' 행세하려는 허영심으로 결국 비극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인물로서 시민가족이라는 사회적 기관의 취약성을 부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주인공은 같은 시민여성임에도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에밀리아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성찰하고 행동할 자유와 의지가 있었지만, 에프헨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용납되지 않았다. 에밀리아가 위기 속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인간 주체임을 의식하고 자아를 발견한다면, 에프헨은 자신에게 닥친 비극에 의해 자기혐오와 멜랑콜리로 이성을 잃게 된다. 에밀리아가 경건심과 순종을 체화한 채 정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희생하는 숭고한 최후를 보여준다면, 에프헨은 불안과 분노 속에서 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결말을 맺는다. 이렇게 레싱과 바그너는 전혀 다른 여성상을 그리고 있는데, 레싱이 당시 사회의 규범을 온전히 내면화한 이상적인 여성을 내세우고 있다면, 바그너는 사회의 비인간적인 규범과 제도에 의해 타락하는 현실의 여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은 시민비극의 형식을 취한 경향극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2) 멜랑콜리

작품에서 홈브레히트 부부와 마르틴의 사촌인 신학 교사, 그뢰닝잭은 에 프헨의 멜랑콜리(Melancholie; Kopfhängerei)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먼저

¹⁶⁵⁾ Vgl. Bergengruen: Das neue Recht und der neue Körper, S. 46. 여기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영국의 정치철학자인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가 저서 『리바이어던 Leviathan』(1651)에서 고안해낸 실험이자 개념이다.

그뢰닝젝은 1막에서의 사건 이후 에프헨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는커녕얼굴도 몇 번 보지 못했던 탓에 3막에서 신학 교사에게 에프헨의 근황에 대해 묻는다. 이에 대해 교사는 에프헨이 벌써 14일째 방에만 머물러 있으며 "멜랑콜리에 집어 먹힌 die Melancholie frißt sie noch auf"(WK 563) 것 같다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빌고 간청해도 꼼짝하지 않으니 마르틴이 이에 대해 점점 "인내심을 잃어간다 unduldsamer"고 덧붙인다.

이어서 에프헨의 근황과 그뢰닝젝의 결혼약속을 모두 알게 된 하젠포트는 무엇인가 알겠다는 듯, 그뢰닝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녀의 멜랑콜리는 육체의 문제를 원인으로 하는 것 같네만. soviel ich muthmaße hat ihre Melancholie physische Ursachen zum Grund."(WK 569) 이에 그뢰닝젝은 에프헨이 임신했다는 것을 털어놓는다.

세 번째는 4막에서 홈브레히트 부인은 아버지의 불같은 성미를 언급하며에프헨의 꾹 닫힌 입을 어떻게 해서는 열고자 에프헨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언급된다. 그러나 에프헨은 자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홈브레히트 내외를 위한 것이라며,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제[에프헨의] 멜랑콜리나 우울함을 더욱 심하게 만들 뿐 sehr viel dazu beigetragen, meine Melancholie oder Kopfhängerey, wie sies nennt, zu vermehren"(WK 572), 어쩌면 그들이 살아서 딸이 죽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면 저는 다시 부모님의딸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 죽은 아이일 거고요. dann bin ich wieder ganz ihre Tochter, oder - [...] Ein Kind des Tods."

에프헨이 홈브레히트 부인에게 말한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에프헨은 그뢰닝젝에게 자신의 내면의목소리가 자꾸만 피로 쓰인 자신의 운명에 대해 속삭인다고 말한다. 그들의불쌍한 아이가 고아가 되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창녀'와 '사기꾼'이라는 끔찍한 단어로 말문을 트게 될 것 ihm statt 'Vater' und 'Mutter' die gräßlichen Worte 'Hure' und 'Meineid' so lang' ins Ohr schrein"(WK 577)이고, 에프헨이 "자신과 아이의 끔찍한 불행을 끝내야 seinem und meinem Elend ein Ende zu machen" 한다는 것이다. 그뢰닝젝은 에프헨이 느낀 이잔혹한 운명에 대한 예감을 "우울한 공상 melancholische[] Träumereien"으로 취급하며 자신을 믿고 다시금 명랑하게 지내줄 것을 약속해달라고 한다.

에프헨의 '우울한 공상'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는 동안, 5막에서 훔브레

히트 부부는 그뢰닝젝의 이름으로 보내진 하젠포트의 편지를 통해 에프헨의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된다. 훔브레히트 부인은 이미 집을 나간 에프헨을 찾 으면서 요 몇 주간 에프헨이 다시 멜랑콜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데, 그 말에 마르틴이 역정을 낸다.

홈브레히트 부인: 여느 때처럼 그저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녀한테 들은 바로는, 애가 꼭두새벽부터 몹시 놀란 안색으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몸을 던지지만 않았으면! 요 몇 주간 다시 우울해보이더니 -

마르틴 홈브레히트: 악마는 뭐하나, 손발이 달린 그놈의 멜랑콜리를 잡아 가지 않고! 황소라도 된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겠군.

Fr. Humbrecht: Dacht' ich, sie schlief noch, wie sonst. - Da ist sie in aller Früh', wie ich von der Magd höre, ganz kunsterniert zum Hauß hinaus gegangen. - Wenn sie sich nur nicht ins Wasser gestürzt hat! - sie war ein paar Wochen her wieder so melancholisch -

Humbrecht: Der Teufel soll die Melancholie holen, die Händ' und Füß' hat! - Ich bin vor den Kopf geschlagen, wie ein Ochs - (**WK** 587f.)

마지막으로 이미 영아살해가 일어나고 경찰인 피스칼까지 도착한 6막에서 마르틴과 그뢰닝젝, 신학 교사는 어떻게든 에프헨을 구제해보려고 하지만 에프헨에게는 죄값을 치르고 죽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체념한 에프헨이 그 뢰닝젝을 탓하는 말투로 이렇게 될 것이라 말하지 않았냐고 하자, 그뢰닝젝은 에프헨이 멜랑콜리가 아니라 미덕을 더 믿고 따랐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리어 에프헨을 책망한다.

에프헨: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그뢰닝젝! 내 운명은 피로 쓰여있다고? 폰 그뢰닝제: 그대가 나를 조금만 더 믿었다면, 그대의 멜랑콜리에 조금만 덜 휘둘렀다면, 조금만 더 미덕에 의지했다면, 아니면 내가 덜 의지했다면 말이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오.

Evchen. Sagt ich nicht, Gröningseck! mein Schicksal wäre mit Blut geschrieben? -

v. Gröningseck. Es wärs nicht, wenn du mir getraut, deiner Melancholie dich weniger überlassen, etwas mehr an die Tugend geglaubt hättest - oder ich etwas weniger.((WK 605)

이렇게 총 여섯 장면에서 에프헨의 멜랑콜리가 언급되는데, 이를 크게 두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에프헨이 자신의 멜랑콜리를 스스로 언급하며이것이 죽음이라는 결말을 맺을 수도 있는 끔찍한 불행과 연관되어 있다고말하는 세 번째 장면과, 에프헨의 주변인물들이 그의 멜랑콜리에 대해 말하는 나머지 장면들이다. 후자의 경우 - 각각 다른 종류의 멜랑콜리에 대해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에프헨의 멜랑콜리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166) 그들은 에프헨의, 여성의 멜랑콜리가 심각한 실존적 위기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주변 인물들, 주로 남성인물들에 의해 에프헨의 멜랑콜리는 기질이나 질병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에프헨이라는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멜랑콜리는 사회적 불명예와 자유의 부재로 인한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단순한 기분상의 문제, 임신이라는 신체적 상태에서 발생하는 질병,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질 등 남성의 이데올로기적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성능력과 자유의식을 갖춘 여성이 자신이 처한사회적 억압과 부자유를 성찰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으로 읽어야 한다. 먼저 바그너가 에프헨의 멜랑콜리를 남성적 이데올로기에 의거하여 읽어내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페미니즘적 비판을 선취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다.

작품 속에서 주변 인물들, 특히 남성인물들이 에프헨의 멜랑콜리를 단순한 문제로 여기는 것은 멜랑콜리에 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멜랑콜리에 대한 역사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히포크라테스와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체적 질병 또는 정신적 결함, 즉 나태, 무기력, 권태, 게으름, 경솔함, 비애 등을 의미하는 '아케디아 Acedia'로 보는 것이다. 멜랑콜리는 이처럼 질병으로 여겨지거나 여성의 모습을 통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표현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관점에서 천재와 예술가의 면모, 창조적 활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천재와 예술가로서의 면모는 남성들에게만 종속된다.167)

¹⁶⁶⁾ **WK** 587f.에서 훔브레히트 부인은 에프헨의 멜랑콜리에 대해 예사롭게 넘어갔으면 안됐다는 식의 반응을 하지만, 곧 마르틴이 그놈의 멜랑콜리 얘기 좀 그만하라고 역 정을 내는 바람에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에프헨의 멜랑콜리를 기질, 신체적 질병 등으로 이해하려는 남성인물들의 시도에서 위와 같은 멜랑콜리의 여성혐오적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바그너가 의도했던 것은 작품을 통해 이 역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에프헨의 멜랑콜리의 원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것이 사회적 상황에 의한 실존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베르겐그루엔에 의하면 바그너는 당시에 영아살해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기질론이나 생리이론들 Memse-Theorien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런 이론들이 작품에 적용될 만한 틈을 남기지 않았다. 168)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본질과 생리 및 병리적 특성을 네 가지 체액의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한 기질론에 의거하면, 불같은 성미를 지닌 아버지마르틴은 담즙질 Choleriker, 수동적이고 태평스러운 어머니는 점액질 Phlegmatikerin, 바람 같은 그뢰닝잭은 다혈질 Sanguiniker, 에프헨은 우울질 Melancholiker의 성격에 들어맞는 듯 보인다. 169) 그러나 작품에서 에프헨의 멜랑콜리가 지적되는 것은 에프헨이 그뢰닝잭에게 강간당하고 임신하게된 이후이므로 그의 멜랑콜리를 단순한 기질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질론 이후의 담론으로는 에른스트 니콜라이 Ernst Anton Nicoloai가 멜 랑콜리를 신경질환으로 설명한 것이 있다. 임신 중 생리중단이 산부의 신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논리는 당시 매우 일반적이었다. 생리가 중단됨에 따라 피가 방출되지 못한 채 끈적거리고 걸쭉해지는 것이 신경액 Nervensaft의 분비/배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생리중단이 신경기능과 연결되어 신경질환으로서의 멜랑콜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렇듯 주목받아야 할 사회적 원인을 신체적 원인으로 압도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170) 그러나 에프헨의 멜랑콜리가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출산 후 몇 주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임신 중 생리중단이 문제가 된다는 신경액설은 에프헨의 멜랑콜리를 설명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분만 시 약화된 책

¹⁶⁷⁾ 이정권: 멜랑콜리의 문화적 수용과 레싱의 드라마적 변용 - 문화·젠더학적 분석-. 실린 곳: 헤세연구 제34집(2015), 59-60쪽 참조.

¹⁶⁸⁾ Vgl. Bergengruen: Das neue Recht und der neue Körper, S. 44.

¹⁶⁹⁾ Vgl. ebd., S. 40-44.

¹⁷⁰⁾ Vgl. ebd., S. 43.

임능력'이라는 영아살해죄의 감경요건 역시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영아살해 당시 에프헨의 광기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이 주목되어야 한 다.

또한 에프헨의 상태를 기분상의 문제, 의욕부진, 게으름, 원인 없는 슬픔 으로서의 '시적 멜랑콜리 poetische Melancholie'로 해석하려는 주변인물들의 시도는 에프헨이 영 Young의 『밤의 상념 Nachtgedanken』을 애독한다는 것에 주변인물들이 우려를 표한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3막에서 신학 교사가 그뢰닝젝에게 에프헨의 소식을 들려주며, 에프헨이 늘 우울한 인상 으로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영의 저서만 읽고 있다고 말하자 그뢰닝젝 은 그 책을 읽는 것이 명랑한 이에게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지만, "멜랑 콜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불만이 많고, 무기력하게 늘어진 이에게는 Lektür für ein mißvergnügtes, abgespanntes, erschlafftes Herz, ohne welches keine Melancholie statthaben kann"(WK 564) 적합하지 않다며 교 사에게 에프헨에게서 그 책을 떼놓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교사는 이미 그러기를 여러 번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에프헨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고 말한다. "그 애는 우리에게 이미 오랫동안 귀가 따갑도록 사정했습니다, 비통함과 권태감 때문에 죽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기꺼이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sie winselte uns aber so lange die Ohren voll, wollte vor Gram und Langerweile den Geist aufgeben - kurz ich war froh, und legte es wieder hin."(WK 564) 이 대화장면에서 멜랑콜리의 무기력과 권 대, 즉 아케디아적인 면모가 남성인물들의 입을 통해 에프헨에게 씌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르겐그루엔의 지적에 따르면, 에프헨은 사생아 임신으로 멜랑콜리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에 『밤의 상념』 을 애독하게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독서는 멜랑콜리의 주된 원인이라기보 다는 그것을 가속화하는 정도의 부수적, 부차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 되어야 하다.171)

바그너가 이러한 이론들이 작품 내적 논리로 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그 한계를 지적한 것은 무엇보다 이 이론들이 이데올로기적인 동기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에프헨의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 에프헨의 멜랑콜리를 부정적인 것,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하려는 것은 남성적

¹⁷¹⁾ Vgl. Bergengruen: Das neue Recht und der neue Körper, S. 42.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략으로서, 여성에게 지적 능력을 전제하는 성찰적인 멜랑콜리를 결코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에프헨의 주체적 독립성과 성찰 능력 을 폄하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작품 속 에프헨과 멜랑콜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요소들은 무엇인가? 에프헨의 멜랑콜리는 가부장제의 구조 속에서 침묵을 지켜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절망이라는 '성찰적 멜랑콜리'로 시작하여, 분노와 '우울증의 폭발'로 인한 '광기의 멜랑콜리'라는 결말이 난다. 작품에서 눈에 띄는 사건의시작은 그뢰닝젝의 성폭행이지만, 에프헨을 진정한 비극에 몰아넣은 것은가부장제라는 구조적 문제이다. 마비는 이를 마녀사냥의 역사와 연결 지어설명한다. 마녀라 여겨졌던 여성의 면모들은 17세기 의학자들에 의해 마법으로부터 해방되어 멜랑콜리, 우울증, 정신 착란 등의 질병으로 진단되었다. 그러나 '마녀들'에 대한 지배는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시민도덕을 페티시적인 미덕의 모습으로 끌어올린 시민계층의 부상과함께 이상적 여성과 악마적 여성의 양극화는 심화되었던 것이다.172)

여성의 자유와 욕망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화신과도 같은 마르틴 훔브레히트의 지배와 감시를 완벽히 내재화했다면 에프헨은 아마도 레싱의 에밀리아와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 여성의 결말이 전혀 다른 길로들어선 것은, 에프헨이 에밀리아와는 달리 가부장제의 틀 밖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남성인물들이 에프헨의 멜랑콜리를 단순한 기분의 문제라고 폄하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영의 『밤의 상념』이 여기서는 반대로 에프헨의 지적 성숙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하젠포트가 영의 저서를 '단 한 장만 읽어도 양말로 목을 매고 싶어지는'(WK 564) 끔찍한책이라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마비는 계몽주의의 과도한 이성 강조에 대항하고 책에서 얻는 지식의 경직성을 고발하는 책이라 설명한다. 그는 특히이 책이 18세기 후반 독일의 여성독자들에게 사랑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이사실을 통해 많은 시민가정의 여성들이 시민도덕의 규범들을 불합리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173) 이에 따라 작품에서 에프헨이 『밤의 상념』을 즐겨 읽는다는 언급이 등장하는 것은 바그너가 에프헨을 개인의 해방과 자유에 대해 이성적으로 숙고할 줄 아는 인물로 설정했다는 것을

¹⁷²⁾ Mabee: Die Kindesmörderin in den Fesseln der bürgerlichen Moral, S. 30.

¹⁷³⁾ Vgl. ebd., S. 30.

의미한다. 따라서 에프헨의 멜랑콜리는 시민적 성윤리와 계몽주의적 자유 관념 사이의 모순적인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이 지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에프헨: 아, 내가 남자였다면!

훔브레히트 부인: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에**프헨**: 오늘이라도 당장 아메리카로 길을 떠나서,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걸 돕고 싶어요.

Evchen: O wenn ich ein Mann wäre!

Fr. Humbrecht: Was wär's?

Evchen: Noch heute macht' ich mich auf den Weg nach Amerika, und hälf' für die Freiheit streiten. (**WK** 571)

에프헨: 신사분들은 처녀들을 입맛대로 고르는 일에 익숙하지요.

Evchen: Die Herren sind's gewohnt, sich als Kandidaten schon ihr Mädchen zu wählen; (**WK** 578)

여기서 에프헨이 당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신사와 시민처녀가 가지는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민여성으로서 자유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프헨의 멜랑콜리는 단순히 불안정한 심성을 의미하는 요소가 아니라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성찰능력을 보여주는 장치로 보아야 한다. 혼외임신을 한 시민여성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날카로운 이성을 지닌 개인은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멜랑콜리를 겪게 되는 것이다. 즉, 에프헨의 멜랑콜리는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침묵해야 하는 여성의 성찰적 멜랑콜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적 멜랑콜리'는 '광기의 멜랑콜리'로 이어진다. 에프헨은 가족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세탁부 마르탄 부인의 집에 머물면서, 아이에게 먹일 젖조차 나오지 않는 극도의 빈곤을 경험한다. 다 말라버린 그의 가슴 앞에 아기는 배가 고파 계속해서 울어대는 한계적 상황에서 에프헨은 마르탄을 통해 모친살해를 저지른 사생아의 이야기와 훔브레히트 부인의 자살소식을 연이어 듣게 된다. 소식을 들은 에프헨이 느끼게 된 사생아의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절망, 돌이킬 수 없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그뢰닝잭

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로 이어진다.

에프헨: 그래요, 그래요! 내가! 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그 여자에요. 몸에 선한 피라곤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유곽에서 이리저리 뒹굴었으며, 명예훼손자에게 속아 넘어가, 여기 벌써부터 엄마도 아빠도 없는 젖먹이를 두었지요. 내가 엄마라면 응당 아기를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할 테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바로, 그, 그 - 그러니까, 내가 바로 훔브레히트 집여식이에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신대로,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

Evchen: Ja, ja! Ich - Ich! ich bin die Muttermörderin, die keinen guten Blutstropfen in sich hat, die sich im Bordel herumwälzte, die von einem Ehrenschänder sich hintergehn ließ, die hier ein säugendes Kind hat, das, kaum geboren, schon vater- und mutterlos ist, - denn wenn ich Mutter wär', müßt' ich's auch nähren können - das kann ich nicht. - Ich bin's, die, die - kurz, ich bin des Humbrechts eigne Tochter; die, wie Sie sagte, sich ersäuft soll haben: [...] (WK 599)

그뢰닝젝을 "명예훼손자"라고 지칭하는 부분에서 에프헨이 그뢰닝젝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이를 살해하는 순간에서 더 욱 두드러진다.

에프헨: [...]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한다.) 노래하는 거니? 부르는 거니? 우리의 마지막 노래를?174) 부르거라, 작은 그뢰닝젝아, 불러! 그뢰닝젝! 그게 네 아버지의 이름이란다! (아기를 침대에서 다시 일으켜 쓰다듬는다.) 몹쓸 아빠지! 너와 내게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되려고 하지 않아! 한때는 내게 곧잘 맹세하였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하! 사창가에서 그리 맹세하다니! (아이에게) 울부짖는 거니? 아직도 울부짖어? 내가 울부짖게 해주렴, 내가 창녀라고, 모친살해범이라고. 너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잖니! 조그마한 후레자식,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분노로 이를 갈 며) 너는 내가 겪은 그 어떤 것도 겪지 말아야 하고, 내가 견뎌야 했던 그어떤 것도 견딜 일이 없어야 해. (에프헨은 바늘을 집어 들고 그것으로 아기가 잠에 들도록 짓누른다. 아기는 더욱 지독하게 울부짖는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릴 정도로, 에프헨은 크게 노래를 부르다가, 조금씩 조용해

¹⁷⁴⁾ 원문의 표현인 'Schwanengesang'은 직역하면 '백조의 노래'이지만, 이는 비유적으로 백조가 죽어가면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를 일컫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맥에 맞게 '마지막 노래'로 번역하였다.

진다.) [...]

Evchen: [...] (Das Kind schreit wieder.) Singst du? singst? singst unsern Schwanengesang? - sing', Gröningseckchen! sing' - Gröningseck! so hieß ja dein Vater! (Nimmt's vom Bett wieder auf und liebkost's.) Ein böser Vater! der dir und mir nichts sein will, gar nichts! und mir's doch so oft schwur, uns alles zu sein! - ha! im Bordell so gar es schwur! - (Zum Kind) Schreist? schreist immer? laß mich schrein, ich bin die Hure, die Muttermörderin; du bist noch nichts! - ein kleiner Bastert, sonst gar nichts; - (mit verbißner Wut) - sollst auch nie werden, was ich bin, nie ausstehn, was ich ausstehn muß - (Nimmt eine Stecknadel und drückt sie dem Kind in Schlaf; das Kind schreit ärger; es gleichsam zu überschrein, singt sie erst sehr laut, hernach immer schwächer.) (WK 600)

자신의 아이를 "작은 그뢰닝젝"이라 부르는 것은 아이의 존재가 에프헨에게 그뢰닝젝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뢰닝젝으로 인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것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의 아이마저 사생아로서살아야 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에프헨은 아이를 영원히 잠재운게 된다.

에프헨: [...] 네 아비는 몹쓸 놈이었지,

네 어미를 창녀로 만들었어. [...]

이게 뭐지? 달다! 아주 달아! 하지만 뒤이어 쓴맛이 느껴진다. 아, 이제 알 겠구나. 내가 낳은 자식의 피라는 걸! 내가 그걸 마셨다고? (아이를 침대에 던진다.) 자고 있구나, 그뢰닝젝! 자거라! 영원히 잠 자거라! 곧 나도 잠들게 될 것이다. 너처럼 평온하게 잠들지는 못해도, 한번 잠이 들면, 너만큼자게 될 테지.

Evchen: [...] Dein Vater war ein Bösewicht,

Hat deine Mutter zur Hure gemacht; [...]

Was ist das? - süß! sehr süß! aber hintennach bitter - ha, jetzt merk' ich's - Blut meines eignen Kinds! - und das trink' ich? - (Wirft's Kind aufs Bett.) Da schlaf', Gröningseck! schlaf'! schlaf' ewig! - bald werd' ich auch schlafen - schwerlich so sanft als du einschlafen, aber wenn's einmal geschehn ist, ist's gleichviel. (**WK** 601)

죽어가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의 내용이나, 아이의 얼굴에 튄 핏방

울을 입맞춤으로 지워내는 것, 달면서도 쓴 그 피가 자신이 낳은 아이의 피라는 사실을 느리게 인지하는 것 등에서 에프헨이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에프헨의 멜랑콜리가 분노로 인한 정신착란 속에서 영아살해를 저지르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결말부에서 에프헨의 멜랑콜리는 자툰이나 메데아의 멜랑콜리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메데아 신화 속에서도 자신의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잔인한 어머니 메데아 가 등장한다. 그녀는 분노 속에서 자툰처럼 광기를 보이며 '정신착란'에 빠져 있다. 메데아 신화와 자툰 신화가 보여주듯이 그리스의 단어 '멜랑콜리'는 암울하고 격앙하는 기질로도 이해되며 다른 관점에서 인간 기질의 다양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신화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의 단어 '멜랑콜란 Mélancholan(μελαγχολᾶν)'은 암울하고 격분하는 기질을 포함한다.175)

멜랑콜리를 저항의 의미로 해석하려는 흐름에 따라, 에프헨의 영아살해를 자유를 갈망하며 억압에 저항하는 존재의 자기표현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종종 존재해왔다. 그러나 에프헨의 영아살해에서 그 어떠한 저항의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 마비는 정신 착란이 "순간적인 힘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본질적 결핍으로 인해 광기에 빠지는 것"176)이라는 푸코의 정의에 따라, 에프헨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상태임에 주목하여, 에프헨의 영아살해가 무정부적/무질서적 저항의 행위가 아니라 무력과 절망의 징표라고설명한다.177)

즉, 멜랑콜리의 결말, "우울증의 폭발 raptus melancholicus"¹⁷⁸⁾은 혼외임신을 한 여성의 사회적 추방과 그로 인한 빈곤, 미혼모의 무력함, 사생아의절망적 미래,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아닌 피해자 여성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남성에 대한 분노) 등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억압의 결과라고

¹⁷⁵⁾ 이정권: 멜랑콜리의 문화적 수용과 레싱의 드라마적 변용, 63쪽; 78쪽.

¹⁷⁶⁾ Michael Foucault, Wahnsinn und Gesellschaft. Frankfurt a. M. 1964, S. 160. (Mabee: Die Kindesmörderin in den Fesseln der bürgerlichen Moral, S. 41에서 재인용.)

¹⁷⁷⁾ Vgl. Mabee: ebd., S. 41.

¹⁷⁸⁾ Dertinger: Mutter, Gattin, Mörderin, S. 227.

볼 수 있다. 에프헨의 영아살해는 사회가 만든 광기의 결과이므로 에프헨 개인이 아닌 사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슈투름 운트 드랑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던 영아살해 문학들 중에서 여성인물이 영아살해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으로서 멜랑콜리를 설정하고, 다각도에서 강조한 작가는 바그너가 유일하다. 다른 작품들이 - 차마 제정신으로 저지른 범죄라기엔 너무도 끔찍한 성질 때문에- 주로 임신 직후의 정신착란상태만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더라도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정도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영아살해범을 가장 먼저 주인공으로 내세운 바그너의 작품이 멜랑콜리를 강조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바그너가 멜랑콜리라는 요인을 다른 해석이 개입할 일말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은 채 여성인물의 서사에 사용한 것은 그가 시민비극의 형식을 빌린 목적과 마찬가지로, 독자들로부터 연민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다. 독자와 동일시되는 등장인물의 멜랑콜리는 곧 독자의 멜랑콜리이기 때문이다.179)

3) 남성의 책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프헨은 1막의 사건 이후 연이어 벌어지는 비극들 역시 그뢰닝젝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는 순간에 그뢰닝젝에 대한 원망과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괴테의 그레트헨이나 레싱의 마리와 같은 동시대 영아살해 문학의 여성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이므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에프헨: 다시! 그가 다시 온다고! 마르탄 부인, 보세요, 저는 계집일 뿐이지만, 그렇지만 - 그가 돌아오면, 다시 제 눈에 띄면, 저는 그에게 한 손으로 이 편지를, 보세요 (편지를 가방에서 꺼낸다), 코앞에 들이밀고, 다른 손으로 그의 심장에 빵 자르는 칼을 찔러 넣을 거예요. 그는 제게 그런 일을 당해야 마땅해요!

Evchen: Wieder! - Er sollte wiederkommen! Frau Marthan, sieht Sie's, ich bin nur ein Weibsbild, aber - wenn er wiederkommt, mir wieder unter die Augen tritt, so stoß' ich ihm mit der einen Hand diesen Brief hier, sieht Sie (zieht ihn aus der Tasche), unter die Nase, und mit der

¹⁷⁹⁾ 이정권: 멜랑콜리의 문화적 수용과 레싱의 드라마적 변용, 68쪽 참조.

andern bohr' ich ihm ein Brodmesser ins Herz. - Er hat's um mich verdient! - [...] (**WK** 599)

마르틴 홈브레히트와 그뢰닝젝이 자구권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프 헨 역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뢰닝젝에게 복수를 행하고자 한다. 이 강렬한 의지는, 혼외임신으로 자신이 맞이하게 될 끔찍한 운명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파우스트와 나눈 사랑이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이후에 감옥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파우스트와 재회할 때조차 그를 원망하지 않는 그레트헨이나, 아이의 시체를 숨기는 게 발각되어 처형당하기까지 체르빈의 이름을 입밖에 내지 않은 채 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죽은 마리에게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극의 당사자 여성인 에프헨과는 달리, 주변 (남성)인물들은 그뢰 닝젝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오히려 신학 교사는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마르틴 훔브레히트는 그가 에프헨과 결혼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교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그뢰닝젝을 사랑하십니까, 에프혠?

에프헨: 그래요, 내가 사탄을 사랑하듯이! 그 둘 모두를 경계하였지만, 그 둘에게 보기 좋게 넘어가 버렸지요.

교사: 그래도 이전까진 그를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에프헨: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가 타락시킬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저를 창녀로, 모친살해범으로, 그리고 -

교사: 그 모든 건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책임도 아닌 -

에프헨: 그래, 당신이 그의 변호사인가요? 언제부터 그랬죠? 여기 (아기를 가리키며) 제 변호사가 있는데.

교사: 제 자신만이 그의 변호사인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당신자신의 마음속에도 존재할 겁니다. 요약하자면, 그뢰닝젝은 아직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말입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려 제시간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 편지, 제가 당신에게 읽어 준 편지 말입니다, 사촌형제! 그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봉투를 보여주니, 그가 하젠포트의 필체와 인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것으로 된 다른 편지를 제게 보여주었는데, 에프헨에 대한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불행을 직감하고, 절반

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길에 나섰습니다. 한 시간 전에 '갈까마귀'에 짐을 풀고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굉장히 서두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로 그러는지 짐작하여, 멀리서부터 당신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와 직접 대화하시겠습니까?

홈브레히트: 그가 결혼하여 에프헨의 명예를 되찾아주려 한다면, 그러지요! 그게 아니라면, 코와 귀가 아깝지 않은 게 아니라면 얼굴도 내밀지 말아야 할거요!

교사: 그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Magister: So denk' ich auch; ein Umstand kann viel ändern. – Hören Sie nur! – Sie lieben den Gröningseck, Bäschen?

Evchen: Ja, wie ich den Satan liebe! hab' mich vor beiden gehütet, und von beiden schön anführen lassen.

Magister: Sie liebten ihn doch eh'mals; sonst wären Sie nicht -

Evchen: Ja, da wußt' ich aber nicht, daß er mich zur Hure, zur Muttermörderin - zur -

Magister: Das alles war weder sein Vorsatz, noch weniger seine Schuld -

Evchen: So! - Sind sie auf einmal sein Advokat? - wie lang' wohl noch? Hier (aufs Kind deutend) liegt meiner.

Magister: Ich bin sein Advokat nicht allein; ich mein', ich mein', in Ihrem eignen Herzen wird sich noch einer vorfinden. Kurz zu sein, Gröningseck liebt Sie noch eben so zärtlich als je; eine tödliche Krankheit hielt ihn ab, auf die bestimmte Zeit einzutreffen – von dem Brief, den ich Ihnen vorgelesen, Herr Vetter! weiß er kein Wort; ich wies ihm den Umschlag, da fand sich's, daß es des Leutnants Hasenpoths Hand und Siegel ist. Er zeigt mir andre Briefe von dem nämlichen, die voller Unwahrheiten von Evchen waren. Da er selbst Unrat merkte, machte er sich, kaum halb wiederhergestellt, auf den Weg. Vor einer Stunde stieg er im ≫Raben≪ ab und ließ mich zu sich rufen; – wir sahn Sie in größter Eile vorbeilaufen, mutmaßten die Ursache und gingen Ihnen von weitem nach. – Wollen Sie ihn selbst sprechen?

Humbrecht: Wenn er sie heiraten, ihr die Ehre wiedergeben will, ja! Sonst soll er mir, wenn ihm Nas' und Ohren lieb sind, nicht vors Gesicht kommen.

Magister: Das will er. (WK 602f.)

작품에서 에프헨이 그뢰닝젝을 진실로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 다. 물론 에프헨이 그뢰닝젝에게 직접 사랑을 말하는 장면은 존재한다. "저 는 당신을 처음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제는 그걸 당신 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이 저를 그리 약하다 생각지 않 으셨겠지요. 그리고 당신을 아직도 미워할 수는 없어요, 당신의 것이 되리라 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은. ich liebte sie, so wie ich sie kennen lernte, jetzt kann ichs ihnen sagen - sonst hätten sie mich nicht so schwach gefunden, - und kann sie auch noch nicht hassen, wenn ich auch nie die Hofnung hätte, die Ihrige zu werden:"(WK 576) 그러나 이 발언을 진 정한 사랑고백이라 확정할 수는 없는데, 그뢰닝젝에게 겁탈당해 임신하게 된 사실을 에프헨 스스로 어떻게든 납득하기 위해 자신을 속이게 된 것이라 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그뢰닝젝이 에프헨을 강 간헸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신학 교사는 친척인 에프헨에게 그뢰닝젝을 사랑하냐고, 적어도 사랑했었지 않았냐고 다그치고 있다. 그뢰닝젝이 성폭행 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에프헨에게서 긍정에 가까운 답변을 듣자마자 교사는 그뢰닝젝의 사정을 설명하며 자발적으로 그를 변호 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이미 훔브레히트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에프헨 이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이후임에도 그뢰닝젝의 사랑을 운운하며 결혼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그것도 에프헨 본인이 아닌 마르틴 에게 말이다.

에프헨: 그가 천 번을 그리 한 대도, 차라리 형리를 더 반기겠어요!

교사: 하지만 그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도 있고요!

에 프 헨: 상황이 더 나빠졌네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지워지니까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여기 이 편지! (그것을 방에 내던진다) 한 악마가 그것을 작성하였지요. 내 자신의 마음의 불안, 나의 아버지, 그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 생각 - 이것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나를 절망에 빠뜨렸지요. 나는 스스로를 도와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지만, 결심이 부족해 차마 내 손으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 형리가 해주겠지요! 내 아이는 죽었어요, 내손에서 죽었어요 -

Evchen: Und wenn er zehnmal will, so wollt' ich doch lieber den Scharfrichter sehn.

Magister: Er ist aber unschuldig! kann's ihnen beweisen.

Evchen: Desto schlimmer! so fällt die Schuld alle auf mich. (Steht auf vom Bett.) Der Brief hier! (wirft ihn in die Stube) - Der Teufel hat ihn geschrieben - meine eigne Herzensunruh', die Furcht vor Ihm, mein Vater, der Gedanken, meine Mutter gemordet zu haben - dies, und o was alles noch mehr! brachte mich in Verzweiflung - ich wollte mir aus der Welt helfen, und hatte nicht Entschlossenheit genug, selbst Hand an mich zu legen; jetzt mag's der - Henker tun! - Mein Kind ist tot, tot durch mich - (WK 603)

에프헨이 직접 강조하고 있듯이, 이 상황에서 그뢰닝젝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비극이 에프헨의 탓으로 벌어졌다는 말과 같다. 이미 충 분히 죄책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에프헨에게 그뢰닝젝의 무죄를 주장하는 신학 교사의 발언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곧바로 등장한 그뢰닝 젝 역시 멜랑콜리에 빠져 미덕을 저버렸다며 에프헨을 책망하는 것으로 보 아, 그뢰닝젝이 영아살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책임보다 에프헨의 책임을 더 크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혹자 남성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 부인하고, 주변 인물들도 그를 변호하는 것은 당시 영아살해를 저지른 여성 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여성을 비극에 몰아넣은 당사자이자 아이의 아버 지인 남성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시민여성에 대한 귀족남성의 만행은 라메커스의 저서에 구체적으로 서술 되어 있다. 귀족들이 시민여성에게 하는 결혼약속은 대체로 구두로 맺어졌 던 데다가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부인되었다고 한다. 둘 사 이에 오고 간 금전이나 패물은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았으므로 결혼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심지어 이 경우에도 귀족남성이 내용 을 애매모호하게 작성하거나 서명을 틀리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문서가 제대로 된 경우에도 귀족남성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반환을 요구하거나 증거물 자체를 폐기하는 일이 잦았다. 사법공무원들이 이 과정에서 귀족남 성을 돕기도 했다.180) 영아살해범에게 사형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주장하 는 이들은 유혹자 남성이 사건에 있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181)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페스탈로치가 분류한 영아살해의 13가지 원인들에 '여성을 유혹한 남성의 불성실과 기만 die Untreue und der Betrug verführender Jünglinge'이 첫 번째로 꼽힐 정도로 영아살해에 대한 유혹자 남성의 책임은 엄중하다. 그러나 1780년 만하임 논문현상공모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선택된 세 명의 당선자 중 파일 박사 Dr. J. G. B. Pfeil만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으며, 그조차도 시민교육을 개선하자는 최선책 외에 시행할 수 있는 방책들 중 하나로 언급했을 뿐이다.182)

바그너는 당시 영아살해범을 처벌함에 있어서 그 지나친 가혹함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 유혹자 남성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당시 형법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에프헨이 자신의 책임으로 어머니가 자살하고, 직접 낳은 아기까지 살해한 절망적인 상황을 유혹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사랑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교사의 모습은, 그레트헨과 마리를 '사랑을 지고선으로 여기는 비현실적인 여성'으로 내세운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와 렌츠의 『체르빈 혹은 신철학』 에 대한 비난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이다.

4) 이상적인 독자상: 마르타 부인

바그너는 작품의 많은 부분에서 과도한 시민도덕의 폐해, 여성의 멜랑콜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영아살해죄에서의 유혹자 남성 배제 등 영아살해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들을 비판해왔다. 뿐만 아니라 작가가 비판에서 더나아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영아살해범』을 하나의 경향극으로 집필하면서 당시의 독자 및 관객들에게 영아살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 내고, 영아살해범들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하는 등 현실의 당대인들을 깨우쳐 바른 인식을 갖게 하려고 했다.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작품에 구현해놓은 것이 바로 독자들에게 바라는

¹⁸⁰⁾ Vgl. Ramecker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S. 21.

¹⁸¹⁾ Vgl. ebd., S. 150.

¹⁸²⁾ Vgl. ebd., S. 84f.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마르탄 부인이라는 인물을 내세운 것이다. 시민도덕과 같이 그 모습이 지나치게 이상화되는 것을 경계한 바그너는 지극히 현실적 인 독자/관객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작품에서 마르탄 부인은 가출한 에프헨을 받아 주고, 그 자신도 간신히 벌어먹고 사는 부족한 형편임에도 에프헨과 에프헨의 아이를 내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마르탄의 집에 머무른 5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눈물만쏟아내는 에프헨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북돋워주는 등 그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이 정서적 지지는 작중에서 그 누구도, 부모인 훔브레히트 부부조차도 제공해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마르탄 부인: 하느님은 아직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단다. 그걸 아가씨와 아가씨 아이에게서 시작하진 않으실 게야. 그리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기꺼이 할 생각이란다. [...] 우리 모두가 죄 많은 인간이지.

Frau Marthan: Gott hat noch niemand verlassen, er wird an Ihr und an Ihrem Kind nicht anfangen; und ich will ja gern alles tun, wa ich tun kann; [...] wir sind alle sündliche Menschen; (**WK** 594f.)

위의 인용문에서 마르탄 부인의 행동원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죄 많은 인간"이라는 말은 한 개인의 죄를 희석시키는 발언으로, 에프헨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동전 몇 푼마저 에프헨과 아이에게 먹일 빵을 사오는 등,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기꺼이 할 생각"이라는 말 그대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마르탄 부인은 "사람은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된 man soll zwar niemand richten,"(WK 595)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로서, 눈앞에 있는 아가씨의 정체를 몰랐을 때에는 어머니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소문 속 에프헨을 비난한다. "하지만 - 그 여자에게는 선한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것 같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지! aber - es muß doch kein guter Blutstropfen in ihr gewesen sein, sonst hätt' sie das nit getan!"(WK 595) 인간이 인간을 심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신만이 인간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교리를 따르지만, 모친살해라는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른 소문 속 여성에게는 가감 없이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물론 그 여자가 직접 자신의 목을 자르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지만 - 칼이 충분히 가까이에 들어섰던 것 같구나. 그 여자가 올바르게 처신했다면, 그 어미가 그리 큰 비탄에 빠진 채 죽지는 않았을 테지. Freilich die Gurgel selbst hat sie ihr nicht abgeschnitte, aber - das Messer nah genug doch dran gesetzt. - Hätt' sie sich in der Ordnung aufgeführt, so wär' ihre Mutter nicht vor lauter Schagrin gestorben -"(WK 598). 마치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 중 <우물가에서> 장면에서 그레트헨이 베르벨이라는 마을처녀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음을 알게된 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평소 같으면 나도 얼마나 세차게 욕설을 / 퍼부었을지 모르는데, / 어느 불쌍한 처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면! / 다른 사람의 죄를 책할 때는 / 아무리 꾸짖어도 충분하지 못했는데! / 남의 일이 검게 보이면, 더 검게 칠하곤 했지, / 도무지 그 검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UF 177f.)

그러나 마르탄 부인은 '모친살해범'에프헨이 바로 눈앞에 있는 불쌍한 아가씨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곧장 태도를 바꾼다. "아아, 사랑하는 하느님이시여! 아니란다! 아가씨가 물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어, 그렇게선하고 그렇게 불행하다니 - 부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용서해주렴 - 틀림없이 꾐에 빠진 것일 테지 - 그렇지 않으면 아가씨가 그럴 리 없어 -" Ach, du lieber Herr Gott! nein! das hab'ich wärli nit um Sie verdient, - so gut und so unglücklich - verzeih' Sie mir ja alles, was ich da sagte - ganz gewiß ist Sie verführt worden - sonst wär' Sie nie -"(WK 599)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멀리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여기며 그 주인공을 거리낌 없이 비난하지만, 가까이서 벌어진 불행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바그너는 이러한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마르탄 부인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독자 및 관객들로 하여금 『영아살해범』 속 에프헨에게 비난이 아닌 동정을 하기를, 현실의 영아살해범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취하길 바랐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정권은 마르탄 부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6막에서 에프헨의 영아살해가 드러날 때 마르탄은 등불을 켜탁자에 가져다 놓는데, 이것은 '계몽의 빛 Lichtsymbolik der Aufklärung'이라는 상징을 그대로 구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4막에서 에프헨이 임신사

실을 말하고자 망설일 때, 마르틴이 집에 돌아오자 방의 등불을 가지고 마르틴에게로 가버린 훔브레히트 부인과 대조를 이룬다. 1막의 강간 장면이어 움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되돌아볼 때, 에프헨을 어둠 속에 남겨두는 훔브레히트 부인의 이러한 행동 역시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막에서의 어둠이 그레트헨과 훔브레히트 부인의 도덕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83) 바그너가 마르탄 부인을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인' 관객의 모습으로 설정해두었음을 이해했을 때, 등불을 들고 오는 마르탄의 이미지는 '깨어 있는 관객'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에프헨의 영아살해는 사회가 강요한 희생의 결과이다. 군인들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 가부장적 시민도덕, 여성에게 강요되는 '정숙한 안주인'이라는 이상, 영아살해범에게 유독 가차 없는 법과 사회의 비인간성이 한 여성을 영아살해라는 비극으로 내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멜랑콜리는 존재의 위기가 아닌 단순한 기분문제로 치부되고,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유혹자 남성은 단죄로부터 자유롭다. 유영희가 정리한 대로, 영아살해범은 "그녀가 속한 사회의 희생물이며, 엄한 도덕성의 희생물이며, 그녀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형법 제도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1840 "범죄는 강요된 것이라면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이고 ein Verbrechen, wozu man gezwungen wird, ist kein Verbrechen mehr"(WK 568)라는 린트슈탈 대령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그너는 독자/관객들이 영아살해라는 범죄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마르탄 부인처럼 현실의 영아살해범에게 동정심을 가지길 바랐다.

¹⁸³⁾ Lee: Geschlechterdifferenz und Mutterschaft im bürgerlichen Trauerspiel von Lessing bis Hebbel, S. 265.

¹⁸⁴⁾ 유영희: 18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난 범죄, 118쪽.

IV. 결론

지금까지 괴테의 『원형 파우스트』와 바그너의 『영아살해범』에서 영아살해 모티프가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작품이 당시 시대적 문제였던 영아살해 논쟁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괴테는 법학자·정치가로서 미혼모 및 영아살해범에 대한 형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에서 영아살해 모티프를 선취함으로써 당대의 시인들이 문학을 통해 영아살해 논쟁에 참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그러나 사형에 대한 작가의 정치적인 입장과, 남성중심서사라는 작품의 성격으로 인해 『원형 파우스트』에는 '영아살해극'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바그너는 동시대의 작품들 중 가장 '영아살해극' 개념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영아살해라는 비극의 끔찍함을 현실 그대로 드러내고,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시민과도 같은 현실의 대중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며 영아살해범에 대한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문제작 『영아살해범』은 이제 더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작품이 '경향극'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지 만, 『영아살해범』은 당시의 사회에서만 그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에는 현 재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점들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다. '성적 수치심'이 라는 단어가 (여성의 정조관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용어로서) 성범죄 피 해자에게 이차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되 는185)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영아살해범』을 다시 한번 현실로 불러올 필요가 있다.

『원형 파우스트』 역시 완성본인 『파우스트 I·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와 관련된 그레트헨 비극이 오히려 이후 완성본의 결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가려진 가치를 재고해보아야 한 다. 특히 영아살해 문제는 괴테의 신, 자연(법), 교회에 대한 개혁적인 입장 과 모성에 대한 결핍을 보여주는 여성관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새롭게 주

¹⁸⁵⁾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466&kind=AA01 (최종검색일: 2022. 08. 01)

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는 그레트헨 비극을 통해 현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살해범이 친모인 경우에만 영아살해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온전히 여성의 범죄인 영아살해는 특수범죄로서 최근까지도 그 감경조항의 일부가 수정된 바 있을 정도로 유효한 문제이다. 쉴러의 『잃어버린 명예 때문에 범행한자 Der Verbrecher aus verlorener Ehre』(1786)에서도 잘 드러나듯이범죄자는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계몽주의자들의 인본주의적 사상 속에서 영아살해범은 범죄자로서 다시금 고려되었다. 그러나 '영아살해죄'가 근본적으로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모성애라는 이상화된 개념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아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영아살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적으로 탐구하였던 18세기 후반의 작품들을 현시점에 다시 불러냄으로써 영아살해죄에 대해 재고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1. 일차 문헌

- 괴테, 요한 볼프강 폰(지명렬 편역): 원형(原形) 파우스트. 서울대학교 출판 부 2003.
- Goethe, Johann Wolfgang von: Urfaust. Hrsg. von Ulrich Gaier, Stuttgart 1989. (=**UF**)
- Wagner, Heinrich Leopold: Die Kindsmörderin. In: Sturm und Drang. Dramatische Schriften. Bd. 2(1963), S. 535-605. (=**WK**)

2. 이차 문헌

- Baumann, Barbara u. Oberle, Birgitta: Deutsche Literatur in Epochen. München 1985.
- Baerlocher, René Jacques: Anmerkungen zur Diskussion um Goethe, Todesstrafe und Kindsmord. In: Goethe-Jahrbuch 119(2002), S. 208-217.
- _____: "Goethes Schuld an der Hinrichtung von Johanna Höhn?" In: Goethe-Jahrbuch 120(2003), S. 332-339.
- Bergengruen, Maximilian: Das neue Recht und der neue Körper. Wagners Kindermörderin zwischen Anthropologie und Rechtstheorie. In: Die Grenzen des Menschen. Anthropologie und Ästhetik um 1800. Hrsg. von Maximilian Bergengruen, Roland Borgards und Johannes Friedrich Lehmann. Würzburg 2001, S. 37–49.
- Breithaupt, Fritz: Anonymous Forces of History: The Case of Infanticide in the Sturm und Drang. In: New German Critique. No. 79(2000), pp. 157–176.
- Dertinger, Mona: Mutter, Gattin, Mörderin Eine Untersuchung zu

- Weiblichkeit und weiblicher Kriminalität in Recht und Literatur. Heidelberg 2018.
- Eberhard, Johann August: Sittenlehre der Vernunft. Berlin 1781.
- Einsiedel, Wolfgang von u.a.(Hrsg.): Kindlers Literatur Lexikon im dtv. Bd. 20, München 1974.
- Finkelnburg, Karl Maria: "AUCH ICH ..." Kindesmord-Iustiz und Strafrecht unter Goethe. In: Berliner Tageblatt Nr. 161(05. 04. 1931)
- Fischer-Lamber, Hanna(Hrsg.): Der junge Goethe. Bd. 2, Berlin 1964.
- Flach, Willy: Beiträge zum Archivwesen, zur thüringischen Landesgeschichte und zur Goetheforschung. Hrsg. von Volker Wahl, Weimar 2003.
- Foucault, Michael: Wahnsinn und Gesellschaft. Frankfurt a. M. 1964.
- Froitzheim, Johann: Goethe und Heinrich Leopold Wagner: ein Wort der Kritik an unsere Goethe-Forscher. Strassburg 1889.
- Genton, Elisabeth(Hrsg.): Goethes Straßburger Promotion. Zum 200.

 Jahrestage der Disputation am 6. August 1771. Urkunden und Kommentare. Basel 1971.
- Guenther, Margaret B.: Faust: the Tragedy Reexamined. In: Beyond the Eternal Feminine. Critical Essays on Women and German Literature. Hrsg. von Susan L. Cocalis, Kay Goodman, Stuttgart 1982.
- Habermas, Rebekka u. Hommen, Janja: Das Frankfurter Gretchen: der Prozess gegen die Kindsmörderin Susanna Margaretha Brandt. München 1999.
- Haupt, Jürgen: "Die Kindermörderin". Ein bürgerliches Trauerspiel vom 18.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In: Orbis Litterarum. Bd. 32(2007), S. 285–301.
- Kant, Immanuel: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cademie der Wissenschafte(und Nachfolgern), Berlin 1900.

- Konersmann, Ralf(Hrsg.): Wörterbuch der philosophischen Metaphern: Studienausgabe. Darmstadt 2014.
- Lee, Jung Kwon: Geschlechterdifferenz und Mutterschaft im bürgerlichen Trauerspiel von Lessing bis Hebbel. Kulturwissenschaftliche Analysen. Trier 2013.
- Mabee, Babara: Die Kindesmörderin in den Fesseln der bürgerlichen Moral: Wagners Evchen und Goethes Gretchen. In: Women in German Yearbook. Bd. 3(1987), pp. 29–45.
- Mahrenholtz, Katharina u. Parisi, Dawn: Luftikus & Tausendsassa: Verliebt in 100 vergessene Wörter. Berlin 2018.
- Michalik, Kerstin: Vom ≫Kindsmord≪ zur Kindstötung: Hintergründe der Entwicklung des Sondertatbestandes der Kindstötung (§217) im 18. und 19. Jahrhundert. In: Feministische Studien. H. 1(1994), S. 44–55.
- Möller, Ulfred: Heinrich Leopold Wagner. In: Heinrich Leopold Wagner: Die Kindesmörderin. Ein Trauerspiel. Hrsg. von Dr. Ulfred Möller, Leipzig 1914.
- Pestalozzi, Johann Heinrich: Uber Gesetzgebung und Kindermord. Wahrheiten und Träume, Nachforschungen und Bilder. Hrsg. von K. Wilker, Frankfurt u. Leipzig 1783.
- Pfeil, Johann Gottlob Bejamin u. Klipstein, Philipp Egel u. Kreuzfeld, Johann Gottlieb: Drei Preisschriften über die Frage: Welches sind die besten Mittel, dem Kindsmord abzuhelfen, ohne die Unzucht zu begünstigen?, Mannheim 1784.
- Rameckers, Jan Matthias: Der Kindesmord in der Literatur der Strum-und-Drang-Periode. ein Beitrag zur Kultur- und Literaturgeschichte des 18. Jahrhunderts. Rotterdam 1927.
- Schmidt, Erich: Heinrich Leopold Wagner, Goethes Jugendgenosse. Jena 1879.
- _____: Wagner, Heinrich Leopold. In: Allgemeine Deutsche Biographie. Bd. 40, Leipzig 1896.

- Scholz, Rüdiger: Goethes Schuld an der Hinrichtung von Johanna Höhn. In: Goethe-Jahrbuch 120(2003). S. 324-331.
- Schweikle, Günther u. Schweikle, Irmgard(Hrsg.): Metzler Literatur Lexikon: Begriffe und Definitionen. Stuttgart 1990.
- Steube, Johann Kaspar: Von Amsterdam nach Temiswar: Wanderschaften und Schicksale. Hrsg. von Jochen Golz, Berlin 1984.
- Suphan, Bernhard: Goethe im Conseil. In: Vierteljahfschrift für Literaturgeschichte 6(1893), S. 597-608.
- Trunz, Erich: Anmerkungen des Herausgebers. In: Faust. Hrsg. von Erich Trunz. (HA). Bd. 3, München 1972.
- Ulbricht, Otto: Kindsmord und Aufklärung in Deutschland. München 1990.
- Wahl, Hans: Antworten auf häufige Anfragen bei den Goethe-Instituten. In: Goethe. Vierteljahresschrift der Goethe-Gesellschaft. Neue Folge des Jahrbuchs. Hrsg. von Hans Wahl. Bd. 1(1936), S. 74–75.
- Wahl, Volker(Hrsg.): "Das Kind in meinem Leib". Sittlichkeitsdelikte und Kindsmord in Sachsen-Weimar Eisenach unter Carl August. Eine Quellenedition 1777–1786. Weimar 2004.
- Weber, Heinz-Dieter: Kindesmord als tragische Handlung. In: Der Deutschunterricht. H. 28(1976), S. 75-97.
- Werner, Oscar Helmuth: The Unmarried Mother in German Litera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1770–1800. New York 1917.
- Wieruszowski, Alfred: Goethe und die Todesstrafe. In: Juristische Wochenschrift 12(1932), S. 842-845.
- Wulffen, Erich: Bekanntes und Unbekanntes über Goethe als Kriminalisten. In: Dresdner Anzeiger. Wissenschaftliche Beilage Nr. 12(29, 03, 1932).
- 고익환: 그레트헨 비극의 의의-파우스트 구원과 관련해서. 실린 곳: 괴테연 구 제2권(1986), 159-192쪽.
- 권이선: ≪윤리(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의 Gewissen의 내부법정은 허구인가? F. Ishikawa의 '양심법정설' 논의를 중심으로. 실린 곳:

- 건지인문학 제16집(2016), 29-53쪽.
- 루소. 장 자끄(민희식 옮김): 에밀. 육문사 2002.
- 박광자: 『파우스트』의 그레트헨 비극. 실린 곳: 괴테연구 제14권(2002), 1-22쪽.
- 박상기: 중세독일의 형사재판제도 카롤리나 형법전을 중심으로. 실린 곳: 법사학연구 제14집(1993), 211-237쪽.
- 박종소: 『우어파우스트』에서의 절대자아와 사랑의 상관성. 실린 곳: 독일 언어문학 53권(2011), 51-69쪽.
- 안삼환: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세창출판사 2016.
- 안진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어머니상". 실린 곳: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65권 0호(1998), 54-82쪽.
- 오순희: 악마와 성모 테오필루스 전설과 파우스트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악마와의 계약". 실린 곳: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제126집(2013), 91-117쪽.
- 유영희: 18세기 독일문학에 나타난 범죄 쉴러의 『잃어버린 명예 때문에 범행한 자』와 바그너의 『영아살해 모』를 중심으로. 실린 곳: 헤 세연구 제32집(2014), 95-124쪽.
- 이인웅: 『초고 파우스트』와 『파우스트』 제1부의 그레트헨 비극 연구. 실 린 곳: 괴테연구 제2권(1986), 138-158쪽.
-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 2017.
- 이정권: 계몽시대 시민의 이상과 종교 관점에서 본 시민처녀의 죽음 레 싱의 『에밀리아 갈로티』를 중심으로.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59 집(2013), 301-324쪽.
- 이정권: 멜랑콜리의 문화적 수용과 레싱의 드라마적 변용 문화·젠더학적 분석-. 실린 곳: 헤세연구 제34집(2015), 57-88쪽.
- 임우영: 괴테 시선 1.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 탁선미: 독일근대문학에 나타난 영아살해 판타지 그 사회적 맥락과 젠더 정치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40집(2008), 133-156쪽.

3. 인터넷 자료

- Lichtenheldt, Mario: Keine Gnade für Gretchen Goethes dunkle Seite. 2 011. (https://pagewizz.com/keine-gnade-fuer-gretchen-goethes-dunkle-seite-2/, 2022. 08. 01)
- Laudon, Mirko: Goethe und die Kindsmörderin. 2014. (https://www.strafak te.de/historisches/goethe-und-die-kindsmoerderin/, 2022. 08. 01)
- Schmidt, Erich: Wagner, Heinrich Leopold. In: Allgemeine Deutsche Biographie. Bd. 40(1896). (https://www.deutsche-biographie.de/pnd11862833X.html#adbcontent, 2022. 08. 01)
- Trunz, Erich(Hrsg.): Goethes Werke.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Bd. 10. Hamburg 1948. (http://www.zeno.org/Literatur/M/Goethe,+ Johann+Wolfgang/Autobiographisches/Aus+meinem+Leben.+Dichtung+und+Wahrheit/Dritter+Teil/Vierzehntes+Buch, 2022. 08. 01)
- Wagner, Heinrich Leopold: Die Kindermörderin. 1776.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Die_Kinderm%C3%B6rderin.html?id=7EY7AAAA cAAJ&redir_esc=y
- §79 StGB Tötung eines Kindes bei der Geburt. (https://www.jusline.at/gesetz/stgb/paragraf/79, 2022. 08. 01)
-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251%EC%A1%B0, 2022. 08. 01)
- 박수연: 성법죄 가중처벌 기준 '성적수치심→성적 불쾌감' 변경. 202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46&kind=AA01, 2022. 08. 01)

Zusammenfassung

Kindsmord in der Literatur von Sturm und Drang

- Goethes *Urfaust* und Wagners *Die Kindermörderin*

Park, Chae-Eun Germanistik Seoul National Universität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Art und Weise beleuchtet, wie Kindsmord als Schlüsselproblem im späten 18. Jahrhundert in der Literatur von Sturm und Drang behandelt wurde. Anhand der zwei repräsentativen Werke dieser Tendenz, Goethes *Urfaust* und Wagners *Die Kindermörderin* betrachten wir welche Diskussionen um Kindsmord in der Epoche des Sturm und Drangs ausgetragen wurden.

Das Motiv des Kindsmords fungiert in der Literaturgeschichte konsequent als Schnittpunkt zwischen gesellschaftlichen Ordnungen wie Strafrecht und Bevölkerungspolitik und verschiedenen Einstellungen zu Ehe sowie Frauen. Das Motiv wurde je nach Autor und Epoche aus unterschiedlichen Perspektiven aufgenommen und umgestaltet. Besonders wichtig ist aber das späte 18. Jahrhundert in der Geschichte dieses Motivs: Da verzeichnete das Verbrechen des Kindsmords eine bemerkenswerte Zahl und wurde somit zum Problem, das auf stattlicher

Ebene zu lösen galt, und das viele Schriftsteller beschäftigten. Weil es in dieser Zeit zu einer Reform der Justiz kam, die nicht nur die objektiven strafrechtlichen Anforderungen, sondern auch die subjektive wie psychologische Situation und Motivation des Täters berücksichtigte, erhoben sich Stimmen, die eine Verbesserung des Bewusstseins für Kriminelle und eine Milderung übermäßig harter Strafen forderten. In Übereinstimmung mit dem Geist von Sturm und Drang, der für die individuelle Freiheit und Emanzipation des Gefühls stand, wollten die Dichter diese Bewegungen mit dem Thema Kindsmord ins Werk setzen.

Goethes *Urfaust* ist ein wegbereitendes Werk über das Kindsmordmotiv in dieser Zeit. Im Werk zeigte der Autor, der als Jurist und Politiker zur Abschaffung der Kirchenbuße beitrug, eine mitfühlende Einstellungen gegenüber alleinerziehenden Müttern und Kindermörderinnen. Es ist aber auch eine unbestreitbare historische Tatsache, dass er die Todesstrafe Kindermörderinnen unterstützte. Goethes zwiespältige gegenüber dem Kindsmord wurde als "Auch-ich"-Legende bezeichnet und vielen Kontrovers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aufgezeigt, dass diese Problematik auch in Urfaust zu finden ist. Zunächst hat er in der "Gretchen-Tragödie", die einen großen Teil des Werkes ausmacht, die sozialen Ursachen, die Kindsmord fördern, konkret dargelegt und Gretchen als ein Sympathieobjekt dargestellt, womit er bestätigte, dass er das Kindsmordproblem kritisierte. Jedoch ist kritisch anzusehen, dass Fausts Liebe zu Gretchen problematisch ist und die Erlösungsmöglichkeit Gretchens trotz dessen treuen und mütterlichen Charakters nicht angesprochen ist. Besonders Gretchens Gehorsam gegenüber den drei Urteilen kann zur Rechtfertigung des Todesurteils gegen Kindermörderinnen dienen. Diese Aspekte können als die Grenze des Werkes bewertet werden, da es im Grunde eine männerzentrierte Erzählung ist.

Wagners *Die Kindermörderin* ist ein Tendenzdrama, das seine Absichten zur Enthüllung des Kindsmordproblems aktiv zum Ausdruck

bringt und das Grauen des tragischen Unglücks unverhüllt beschreibt. Diese derbe Darstellung führte jedoch entgegen der Absicht des Autors zu heftigen Kontroversen um die Umarbeitung des Werkes, die fast 200 Jahren dauerten. Doch aus der historischen Tatsache, dass Die Kindermörderin die "Mannheimer Preisfrage", die Kristallisationspunkt der Kindsmorddebatte, ins Leben rief, lässt sich behaupten, dass dieses Drama dazu beitrug, das Publikum mit der tragischen Realität des Kindsmords zu konfrontieren und Verhütungsmaßnahmen zu entwickeln. Wagner machte darauf aufmerksam, dass Kindsmord nicht einfach eine Tragödie auf individueller Ebene sei, sondern eine auf gesellschaftlicher. Durch die Gestaltung der Personen zeigt er viele soziale Ursachen des Kindsmords: die Frauenfeindlichkeit unter Soldaten, die schädliche Auswirkungen der patriarchaler Bürgermoral und des Mutterliebesdiskurses. die Absurdität des Sozialsystems die Unmenschlichkeit von Recht und Gesellschaft. Darüber hinaus verstärkte die kritische Verwendung von verschiedenen durch gesellschaftlich verbreiteten Diskursen um Kindsmord seine Botschaft. Wagner entlehnte die Form des bürgerlichen Trauerspiels und stürzt aber dessen typischen Rahmen um, um die Missstände der Bürgermoral sichtbar zu machen. Er wirf der Gesellschaft vor, den Kindsmord auf ein individuelles Problem zu reduzieren, indem er die damals gängige Diskurse über Melancholie und männliche Verführer kritisch prüfen lässt. Überdies zeigt er durch die Figur Frau Martan eine wünschenswerte Haltung angesichts dieses sozialen Problems, was er schließlich im Publikum fordern möchte.

Schlüsselwörter: Kindsmord, Sturm und Drang, Justizreform, Goethe, Urfaust, Gericht, Wagner, Die Kindermörderin, Bürgermoral, Melancholie

Studentennummer: 2018-28324